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문학석사 학위논문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윤 민 희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 연구

지도교수 손 유 경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9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윤 민 희

윤민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년 장	(인)
부위	원장	(인)
위	위	(6))

국문초록

이 연구는 박완서 소설 세계가 모녀 관계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어머니와 딸이 공존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겹의 복잡한 감정이 박완서 모녀 서사의 중추가 됨을 밝히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는 한국 전쟁체험과 증언의 측면, 중산층 여성의 생존 방식에 대한 조명의 측면, 여성해방의식에 기반한 인물 및 사건 설정의 측면, 노년 삶의 문학적 형상화 측면, 신문 연재소설과 베스트셀러라는 점에서 부각되는 대중성의 측면에서 탐구되어 온 박완서 소설을 작가의 독특한 모녀상과 결합해 보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 다섯 가지 측면 중에서도 한국 전쟁기에 형성된 모성이 딸의 자기 정체감 획득에 끼치는 영향과,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온 딸이 수행하는 아픈 어머니 돌봄의 의미를 중심으로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애정과 증오가 공존하는 모녀 사이의 긴장상태야말로 박완서가 조형하는 다채로운 모녀 관계의 밑동임을 확인하려는 문제의식을 갖는다.

이를 위해 가족 형태의 축소를 초래한 한국 전쟁시기의 모녀 사이에 형성된 공모(共謀) 의식을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략으로서 살피고, 어머니와 딸사이에 특유한 감정 작용을 역사화하는 데 박완서 모녀 서사의 문학사적 의의가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여기서 나아가, 전쟁으로 인한 혼란함 속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삶을 생기 있게 유지할 의지를 전적으로 상실할 때도리어 딸에게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생존 반응으로서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려는 자기애가 발동되는 양상을 발견하였다. 이는 박완서 모녀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가 노출하는 한계를 보완하는 작업이 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딸이 같은 성별을 지녔다는 데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딸을 어머니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할 유일한 인물이자, 전쟁 및 산업화라는 역사를 지나온 어머니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내면의 성숙을 이루게 되는 인물로 해석하는 경향을 띠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설에 나타난 모녀의 애증 관계의 양상을 의미화함에 있어 정신분석학

이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딸이 어머니에 대한 질투와 원망을 운명적으로 갖게 된다는 관점을 견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바 있었다.

또한 이 연구는 1980~90년대 발표한 연작소설 및 후기 단편소설에 나타 난 박완서 모녀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때 초기 단편소 설에서 어머니로부터 자립하기 위하여 집을 떠났던 딸들이 후기 단편소설에 서 어머니 곁으로 돌아와 수행하는 어머니 돌보기의 상징적 의미를 검토하였 다. 특히 돌봄자로서 딸이 세워지는 작품에서 돌봄 수행자(딸)와 돌봄 대상자 (어머니)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내가 남편을 돌보거나 며느리가 시부모를 돌보는 작품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하게 다른 특징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2장 1절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전쟁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 나타 난 가족 인식의 협소화와 모녀 결속의 양상을 조망하였다. 특히 한국 전쟁 이전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엄마의 말뚝 1」에서부터 어머니 중심으로 구성 된 가족 형태가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전쟁이 초래 한 남자 구성원의 죽음과 관련하여 박완서 주목한 문제란 단순히 아버지 가 장 없는 모자녀 가족 형태를 서사화하는 데 있기보다 남자 구성원의 죽음 이후 어머니와 딸이 삶을 살아간 방식에 있었음을 화두로 올렸다. 이러한 관 점으로 나머지 소설들을 분석했을 때 박완서 소설에서 아들의 신체·정신적 상해와 죽음이 가족 구성원으로 하여금 생존에 대한 불안을 내면화하도록 하 는 사건으로서 가족 밖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을 추동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 을 확인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 사결정 역할이 모녀를 포함한 여자 가족 구성원에게 압도적으로 부과되는 계 기가 되고 있었다.

2장 2절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에 대한 기갈로부터 멀어지는 동시에 자기 존재의 '가치 있음'을 확인하고자 분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딸의 서사가 『나목』,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목마른 계절』,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 걸쳐 마련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는 아들의 죽음을 목도한 어머니가 극심한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딸이 보이는 정서적 반응을 추적하고자 한 이 연구의 당초 목적이기도 하였다. 이 절에서는 『나목』에서 옥희도에 대한 이경의 사랑이 자기 긍정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다는 점을 조

명하였다.

3장 1절에서는 초기 단편소설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집을 떠났던 딸들이후기 단편소설에서 어머니 곁에 머물며 수행하는 돌봄의 상징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박완서 소설 속 성장기 아들의 자립이 '방 문 닫기'라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그려지는 데 비해 딸의 자립은 '집 떠나기'로 서사화된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딸의 자립이 집을 떠나는 것일 뿐 아니라 어머니를 떠나는 문제로 복잡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단편소설로 「무중(霧中)」,「무서운 아이들」을 살폈다. 또한 딸의 자립 문제는 나이들고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주체로서 딸이 등장하게 되는 토대가 되며 딸들의돌아옴이 어머니 돌봄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특히 어머니를 돌보는 일차적 주체가 될 때 딸들이 느끼는 감정이 「엄마의 말뚝 2」의 경우와,「환각의 나비」,「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의 경우에서 상호 대비됨에 주목하였다.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하여 딸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구축된박완서 모녀 서사는 '딸의 어머니'라는 이름과 '어머니의 딸'이라는 이름을 길어 올리고 있었다.

3장 2절에서는 딸의 돌봄의 의미가 왜곡되는 양상에 착목한 박완서의 시선을 따라감으로써 모녀 간 돌봄의 굴레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후기 단편소설에서 돌봄 수행자(딸)와 돌봄 대상자(어머니)가 관계 맺는 방식은 아내가 남편을 돌보거나 며느리가 시부모를 돌보는 단편소설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하게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그 다름은 여성에게 돌봄의 책무를 승계하면서도 그 주체가 딸인 경우 돌봄의 자격은 부여하지 않는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기인하였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주도할 권한이 딸보다 장손에게 무겁게실리는 장면을 통하여 가족 내에서 딸이 주변화되는 문제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엄마의 말뚝 3」을 읽었다. 「환각의 나비」,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는 딸 자신이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장남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빼앗는일이라고 여기며 죄책감을 느끼는 양상이 두드러짐을 보였다. 어머니를 돌보는 딸에게 주어지는 내적 보상(보람)과,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겪게 되는 갈등 및 심리적 어려움(면구스러움)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사적 돌봄의 굴레를 독해하는 주요한 심리적 역동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의 끈끈함을 동성의 혈연 가족 구성원끼리 형성하리라 기대되는 선험적 유대감으로 한정하여 분석하는 선행 연구의 관점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 그 대신 개인사, 가정사, 역사적으로 핵심이 되는 사건을 공유한 모녀가 결속하거나 갈등하면서퇴적해 온 여러 겹의 감정 작용을 공존의 흔적으로 의미화함으로써 박완서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의 문학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 주제어: 박완서, 모녀 관계, 한국 전쟁, 모녀 결속, 노년, 돌봄

■ **핵** 번: 2019-27053

목 차

1. 서론	1
1.1.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1
1.2. 연구의 시각	23
2. 정서적 유대의 필연성과 불안정성	35
2.1. 가족 인식의 협소화와 모녀 결속의 계기	35
2.2. 자기애 발견으로 선회하는 딸의 서사	62
3. 승계되는 돌봄 수행의 책무 (38
3.1. 돌아온 딸의 어머니 돌보기	88
3.2. '딸의 어머니'자리 찾기의 보람과 굴레1	03
4. 결론11	16
참고문헌	20
Abstract 12	26

1.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이 연구의 목적은 박완서 소설 세계가 모녀 관계1)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어머니와 딸이 공존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겹의 복잡한 감정이 박완서 모녀 서사의 중추가 됨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가족 구성원의 축소를 초래한 한국 전쟁시기의 모녀 사이에 형성된 공모(共謀)2) 의식을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략으로서 살피고, 어머니와 딸 사이에 특유한 감정 작용을 역사화하는 데 박완서 모녀 서사의 문학사적 의의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나아가, 전쟁으로 인한 혼란함 속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삶을 생기 있게 유지할 의지를 전적으로 상실할 때 도리어 딸에게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생존 반응으로서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려는 자기애가 발동되는 양상을 발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이 논문은 애정과 증오가 공존하며 상호 간섭하는 모녀 사이의 긴장 상태야말로 박완서가 조형하는 다채로운 모녀 관계의 밑동임을 확인하려는 문제의식을 갖는다.

또한 노년 어머니와 딸이 관계를 맺는 새로운 양상에 착목한 작가의 시선을 좋아감으로써, 1980~90년대 발표한 연작소설과 단편소설에 나타난 박완

¹⁾ 박완서의 단편소설 중 혈족 관계에 있지 않은 의붓자녀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 검토하는 모녀 관계는 직계 혈족 관계를 맺고 있는 생물학적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한정한다. 의붓자녀가 등장하는 단편소설로는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움딸」이 있다.

²⁾ 한국 전쟁기를 다룬 박완서 소설에서 어머니와 딸은 아들/오빠의 죽음을 은폐하고 시체를 매장함으로써 비밀을 공유하게 된다. 소설 속 아들/오빠는 한국 전쟁기 의용군에 징집되지 않기 위해 숨어 있다가 폭격을 당하거나(『나목』), 좌익 사상으로부터 전향하기를 거부하다 가 총살을 당하거나(『부처님 근처」), 의용군에 징집되었다가 상해를 입고 도망쳐 온 후 인민군에게 발각되어 총살 당하는 방식(『목마른 계절』, 「엄마의 말뚝 2」, 『그 산이 정말 거지 있었을까』)으로 죽음에 이른다. 따라서 아들/오빠의 '떳떳하지 못한 죽음'과 죽은 몸을 처리하는 일은 가족 내에서 비밀스럽게 은폐해야 하는 일로써 어머니와 딸에게 전가된다. 이연구에서는 어머니와 딸이 아들/오빠의 죽음을 목도해야 했으며 조용히 처리해야 했던 공모의 경험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며 이를 모녀 결속의 실질적인 토대로서 바라본다.

서 모녀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때 초기 단편소설에서 어머니로부터 자립하기 위하여 집을 떠났던 딸들이 후기 단편소설에서 어머니의 곁에 머물며 수행하는 어머니 돌보기의 상징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돌봄자로서 딸이 세워지는 작품에서 돌봄 수행자(딸)와 돌봄 대상자(어머니)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내가 남편을 돌보거나 며느리가 시부모를 돌보는 작품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하게 다른 특징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딸의어머니 돌보기는 결혼한 아들 부부가 아닌 딸에게 노후 삶이 맡겨진 어머니의 모욕감을 의식하며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박완서 소설이 모녀 사이의 독특한 감정 작용을 서사화하는 데 일관된 관심을 쏟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의 끈끈함을 동성의 혈연 가족 구성원끼리 형성하리라 기대되는 선험적 유대감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기를 목표하지 않는다. 이 연구는 한국 전쟁기 공모의 기억을 개인사, 가정사, 역사적으로 핵심이 되는 사건으로 공유한 모녀가 결속3)하거나 갈등하면서 퇴적해 온 여러 겹의 감정 작용을 공존의 흔적으로 의미화함으로써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의 문학적 의의를 분석한다.

소설가 박완서(朴婉緒, 1931.10.20.~2011.01.22.)는 1931년 경기도 개풍에서 태어났다. 1950년 숙명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였으나 한국 전쟁이 일어나 학업을 중단한다. 1970년《여성동아》공모에 장편소설『나목』이 당선되어 등단한 이후 80여 편의 단편소설과 15편의 장편소설, 콩트집, 산문집, 동화 등을 발표하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였다.4》지금까지 축적된 박완서 소설 연구 및 비평에서 주목하는

⁴⁾ 아래 박완서 작품 연보는 제목, 단행본 발표 시기를 밝힌 것이고 펴낸곳, 재출간·개정판 연보는 생략하였다. 박완서, 『프롤로그 에필로그 박완서의 모든 책』, 작가정신, 2020 참조.

장편소설	소설집과 등	콩트집	산문집	동화
『나목』(1970)	『부끄러움을	가르칩니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³⁾ 박완서 소설에서 딸은 어머니와 자기가 한 일을 '공모의 기억'으로, 어머니와 자신을 '공모 자'로 인식하곤 한다. 소설 속 인물들이 특정한 상황의 이해관계에 따라 같은 편이 되기도 하고 다른 편이 되기도 하는 양상은 비단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박완서가 묘 사하는 인물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러한 관계를 '결속'으로 보게 되면 특정한 계기로 가까워졌다가 다시 일상적인 느슨한 관계로 돌아가는 일시적 유대 관계가 더욱 잘 표현된다고 판단하여 이 연구에서는 '공모'대신 '결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지점을 살펴보면 박완서 소설은 최소한 다섯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게 거론됨을 알 수 있다. 첫째, 한국 전쟁 체험과 증언의 측면, 둘째, 중산층 여성의 생존 방식에 대한 조명의 측면, 셋째, 여성해방의식에 기반한 인물 및 사건설정의 측면, 넷째, 노년 삶의 문학적 형상화 측면, 다섯째, 신문 연재소설과

『휘청거리는 오후上, 下』(1977) 『도시의 흉년1, (1977)『목마른 계절』(1978) 『도시의 흉년3』(1979) 『욕망의 응달』(1979) 『살아 있는 날의 시작』 (1980)『오만과 몽상』(1982)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983)『서 있는 여자』(1985)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 는가』(1989) 『미망1, 2, 3』(1990)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 『그 산이 정말 거기 있 었을까』(1995) 『아주 오래된 농담』 (2000)『그 남자네 집』(2004)

다』(1976) 『창밖은 봄』(1977) 『배반의 여름』(1978) 『박완서 선집』(1978)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 (1979) 『이민 가는 맷돌』(1981) 『도둑맞은 가난」(1981) 『엄마의 말뚝』(1982) 『그 가을의 사흘 동안— 그림소설』(1983) 『서울 사람들』(1984) 『그 가을의 사흘 동안』 (1985)『꽃을 찾아서』(1986) 『사람의 일기』(1987) 『침묵과 실어—이상문학 상 수상작가 대표작품선 6_(1987) 『유실』(1988) 『저문 날의 삽화』(1991) 『박완서 문학상 수상 작 품집 (1994) 『하 말씀만 하소서』 (1994)『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1995)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1995) 『울음소리』(1996) 『너무도 쓸쓸한 당신』 (1998)『엄마의 말뚝—다시 읽 는 박완서』(2005) 『환각의 나비』(2006) 『친절한 복희씨』(2007) 『엄마의 말뚝2, 3—다시 읽는 박완서」(2007) 『기나긴 하루』(2012) 『부처님 근처』(2012) 『노란집』(2013) 『이별의 김포공항』 (2019)

(1977)부르는 『혼자 합창』 (1977)『여자와 남자가 있는 풍 경』(1978) 『살아 있는 날의 소망』 (1982)『지금은 행복한 시간인 가』(1985) 『서 있는 여자의 갈등』 (1986)『보통으로 산다』(1986)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들』(1986)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1990) 『한 말씀만 하소서』 (1994)『한 길 사람 속』(1995) 『모독』(1997) 『어른 노릇 사람 노릇』 (1998)『님이여, 그 숲을 떠나 지 마오』(1999) 『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남길까』(2000) 『두부』(2002) 『호미』(2007) 『못 가본 길이 더 아름 답다』(2010) 『세상에 예쁜 것』(2012)

(1979)『7년 동안의 잠』(1982) 『쟁이들만 사는 동네』 (1986)『산과 나무를 위한 사랑 법』(1992) 『부숭이의 땅힘』(1994) 『속삭임』(1997) 『이게 뭔지 알아맞혀 볼 래?』(1997) 『자전거 도둑』(2000) 『옛날의 사금파리』 (2002)『보시니 참 좋았다』 (2004)『세 가지 소원—작가가 아끼는 이야기 모음... (2009)『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2009) 『아가 마중―참으로 놀 랍고 아름다운 (2011)『굴비 한 번 쳐다보고』 (2012)『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못난이』(2014) 『엄마 아빠 기다리신다』 (2014)『노인과 소년』(2017)

'베스트셀러'라는 점에서 부각되는 대중성의 측면이 그것이다.

첫째와 관련한 박완서의 관심은 등단작인 『나목』(《여성신문》, 1970)에서부터 주목받아 왔는데 1990년대 발표한 『그 많던 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응진출판, 1992),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응진출판, 1995)에서 작가의한국 전쟁 체험이 소설의 핵심적인 사건으로 다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평단과독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둘째, 셋째, 넷째와 관련하여는 주로 1980~90년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 소설이 언급된다. 특히 넷째는 박완서가 스스로를 '나이 든 작가'로 소개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소설에서 두드러진다. 다섯째는 거의 모든 박완서 소설의 의의 및 한계와 관련하여 꾸준하게 거론되는 요소이다. 이 같은 다섯 가지 측면은 박완서 소설 세계 전반에 대해서뿐아니라 개별 작품을 분석할 때에도 주요한 틀거리로 사용되며 하나의 작품에여러 요소가 중첩되어 나타난다.5)

그런데 박완서 소설의 묘미는 위의 다섯 가지 요소는 작가의 독특한 모녀 관과 결합되는 자리에서 배가된다. 각 요소가 모녀 관계를 경유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가시화한다. 첫째, 한국 전쟁기에 형성된 모성이 딸의 자기정체감 획득에 끼치는 영향의 측면, 둘째, 중산층 가정의 어머니 세대와 딸세대의 생존 방식 차이의 측면, 셋째, 여성해방의식에 대한 세대론적 접근가능성의 측면, 넷째,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온 딸이 수행하는 어머니 돌봄의의미의 측면, 다섯째, 당대 주요 독자층으로서 주부 여성의 반응과 요구에대한 이해의 측면이다. 이 연구에서는 모녀 관계에 대한 작가의 일관된 관심에 주목하되 다섯 가지 측면 중 앞의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이때 둘째, 셋째 문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까닭은 1980~90년대단편소설에 대한 선행 연구가 둘째, 셋째에 편중되어 있으며 넷째에 관하여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합이다. 요컨대 이 연구의 궁극

⁵⁾ 예를 들어, 이선미는 "《휘청거리는 오후》(…)에 대한 평가는 주로 1970년대 물신주의와 사회풍속에 대한 비판이라는 관점과 여성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했다는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최근에는 중산층의 세대의식이나 대중성과 관련된 연구도 나오고 있어, 박완서 소설의 주제의식과 관련하여 가장 밀도 있게 논의된 작품"이라고 밝힘으로써 《휘청거리는 오후》에 대한 당대적 평가의 흐름을 정리한 바 있다. 이선미,「'여성'의 사회적 해석과 1976년의 박완서 소설 — 《휘청거리는 오후》의 대중성을 중심으로」,『현대문학의 연구』No.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10, 576~577면.

적인 목표는 첫째, 넷째 문제를 중심으로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있다.

먼저 박완서의 한국 전쟁시기 모녀 관계에 내포한 문학적 의미를 탐구하는 기왕의 연구는 가부장제적 이데올로기의 피억압자인 여성으로서 어머니와 딸의 정체성에 주목하는 페미니즘 비평의 축과, 어머니와 딸의 내밀한 욕망에 주목하는 정신분석학적 비평의 축으로 이루어져 왔다. 문학 작품의 가치를 해설하는 데 사용되는 비평 언어 및 주된 틀거리는 당대 평단이 공유하던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문학사적 자취가 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여성문학 및 페미니즘 비평이 문단 안팎의 큰흐름을 형성한 1990년대에 두드러지던 전자의 축이, 정신분석학 이론이 활발하게 수입되고 번역되면서 후자의 축으로 뻗어 나간 자리를 되짚어본다.이같은 시도는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한국 전쟁시기 모녀 관계의 문학적 상징성을 풀이해 온 한국 문학사의 계보를 탐색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등단 평론「박완서 문학 연구 - 억척 모성의 이중성과 딸의 세계의 의미를 중심으로」로 박완서 모녀 관계 연구의 주요한 거점을 마련한 권명아이는 한국 전쟁이라는 역사적 장면에 놓인 여성이 살아남기 위해 자기보존적 본능에 따르게 되며, 이때 체현되는 모성을 '억척 모성'이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억척 모성을 경험하고 발견함으로써 구축된 '딸의 세계'에서 읽히는 어머니에 대한 딸의 양가적인 반응을 조명함으로써 박완서 모녀 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을 탐구하였다. 권명아가 지적했듯이 "박완서의 작품에서 줄곧 반복되어나타나는 이 모녀상은 체험적 의미로 환원될 수 없는 문학적 의미망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박완서의 작품에서 역사와 현실, 개인과 과거의 관계를 탐구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단위"라는 점에서 "작가의 작품세계의 본질적 영역"기이 된다. 그 근거는 첫째, 모녀 관계에 대한 박완서의 문학적 상징화작업이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나목』에서부터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둘째,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빚어지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망이 두

⁶⁾ 권명아, 「박완서 문학 연구 — 억척 모성의 이중성과 딸의 세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가 세계』, 세계사, 1994.11, 332~350면.

⁷⁾ 위의 글, 333면.

사람의 이전/이후 삶에 주요한 변곡점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전쟁에 관한 박완서의 체험이 소설 속 모녀 관계를 형성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간과하기 어렵고, 한국 전쟁으로부터 이어지는역사적 국면에 대한 반응으로서 모녀 관계를 관찰해 온 작가의 시선에 주목한다면 박완서 소설이 지닌 "사회 비판적 성격과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탐구의 문제"8)가 더이상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박완서 모녀 관계는 그 문학적·상징적 의미를 한국 전쟁기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에 한정하여 평가하기보다 작품세계 전반을 아우르는 광활한 대지이자 밑받침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여야 한다.9)

이후 권명아¹⁰⁾는 1970~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박완서 소설 속 모녀 관계의 의미를 밝히는 자리에서 억척 모성의 이중성과 그것을 발견하는 딸이느끼는 공감과 반감의 양가적 감정을 각각 구체화하고, 어머니의 역사적 삶

⁸⁾ 위의 글, 334면,

^{9) &}quot;전쟁에서 출발한 현대사의 질곡을 뚫고 나갔던 강인한 모성성은 한편으로는 반생명적이고 비인간적인 역사 속에서 인간적인 가치를 보존함으로써 역사의 질곡에 대응한다는 긍정적 인 의미를 지니지만, 또한 외부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성성의 속성은 가족이기주의, 보신주의, 경제제일주의 등 한국 현대사의 부정적인 양상과 결합되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박완서의 소설은 이러한 모성성의 이중성을 어머니와 딸의 충돌과 얽힘, 혹은 딸의 세계를 통해 잘 드러내고 있다. 역사의 소용돌이를 뚫고 나가는 억척 모성의 생 명력의 이중성과 그러한 어머니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과 이해의 모순에 찬 운동과정 속에 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딸의 세계는 박완서의 작품세계의 본질적인 특징을 이 루는 것이다." 위의 글, 같은 면.

¹⁰⁾ 권명아, 「박완서 - 자기상실의 '근대사'와 여성들의 자기찾기」,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98.11. 389~410면. 권명아의 작업에서 '모성'을 재정의하기 위한 여러 단서가 마련된 점은 눈에 띄는 성과이다. 단서 달기는 '모성' 혹은 '여성성'을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것으 로 추상화해 온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페미니즘 비평의 중요 과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모성'의 의미에 대해 단서를 다는 시도는 아래의 인용에서 잘 나타난다. "따라서 박완서 소설에서 모성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유전 본능이나 자식을 위한 헌신적 사랑과 포용력, 생명력의 상징으로서 신비화되는 모성과 철저하게 구별된다. '억척 모성'이 보여주는 강인한 생명력은 역사적 현실의 규정력 속에서 여성들이 진정한 자기됨 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규정력의 억압과 그에 대한 대결의 처저한 산물일 뿐이었지 결코 필연적인 것도 당위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395면); "박완서 문학에 이르러 가 장 뚜렷하고도 선명한 문학적 표상을 얻은 '억척모성'은 우리 격변의 근대사의 산물인 동 시에 근대사 과정에서 여성의 자기 정체성 찾기의 특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392면); "따라서 박완서 문학에서 '억척모성'이라는 표상은 모성의 생명력이라는 추 상적 규정으로 단일하게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억척모성'이라는 표상 에는 '모성'이라는 보편적 범주보다는 우리 역사 속에서 여성이 자유로운 자기됨을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갈등과 질곡의 의미가 더 깊이 새겨져 있다."(392~393면).

에 가리어진 개별성을 발견하는 존재가 딸임을 강조하였다. 권명아의 분석에 따르면 박완서의 딸들은 어머니의 개별성을 발견하고, 어머니의 역사성 및 개별성에 공감과 반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끼면서 어머니와 공존한다. 즉 박완서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이름이 딸에 의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딸이 발견하지 않는다면/못한다면 영원한 익명의 존재로 남게 된다.

그런데 권명아의 강조점이 모녀 관계의 특수성이 아닌 여성의 삶 및 여성적 정체성에 있음은 지적할 만하다. 위의 연구는 어머니의 억척 모성을 발견하는 것이 딸인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은 채 해당 시기 작품 속 어머니와 딸의 삶을 여성의 삶으로 환치한 후 그것을 피억압자의 삶으로 연결한다. 그리하여 딸은 어머니와 같은 피억압자이기에 어머니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딸은 자신과 어머니가 다르지 않음을 성찰함으로써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성장한다. 여기서 어머니의 삶과딸의 삶, 여성의 삶, 피억압자의 삶이라는 개별 항의 경계를 점진적으로 지워나가는 권명아의 서술 전략은 여성의 역사를 여성만의 역사로 게토화하지않으려는 의식적 노력의 자취로 보아야 함을 알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어머니의 삶과 딸의 삶이 갖는 특수성이 여성의 삶으로,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갖는 특수성이 여성끼리의 관계로 흡수되어버릴 위험은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설명은 박완서가 어머니 세대보다는 딸 세대가 자기를 인식하고 성찰하고 성장해 가는 양상에 더욱 관심을 가졌던 경향에 대한 해설이라는 점에서 유익하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을 던져 둔다. 첫째, 어머니의 정체성과 딸의 정체성은 선험적으로 획득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군가에 의해 발견/확인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러한 관점이 내포한 한계는 딸이 발견하는 어머니의 정체성이 어머니에 의해 구성된 정체성인지 발견자로서 딸에 의해 구성된 정체성인지에 대해 선택적으로 침묵한다는 점이다.

둘째, 피억압 계층 여성이라는 사회·생물학적 위치를 공유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딸의 동일시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어머니와 딸이 공존하며 주고받는 구체적인 행위를 비가시화한다. 예컨대 신체적 이동의 어려움 및 가난에 처한 한국 전쟁 상황에서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빈집을 털어 식량을 마련하

거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돌봄의 책무를 지는 것으로부터 어머니와 딸이 운명적 결속을 체감하는 계기는 찾아진다. 따라서 유사한 몸을 가진 개체로 서의 동일시만으로 모녀의 유대감을 설명하기에는 모자람이 있다.

셋째, 어머니 세계의 이중성을 이해함으로써 자기 삶의 모순을 이해하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다는 설명¹¹⁾은 고통을 매개로 한 여성 연대를 상상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 선행 연구로부터 얻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박완서 모녀 관계의 상징적 의미를 톺아 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설정한 가설은 박완서 소설 속 어머니와 딸이 특정한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위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대하기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박완서에게 있어서 모녀 관계가 전체 시기 작품세계의 본질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음은 충분히 강조되어야 하는 사실이다. 그와 동시에 박완서 모녀 관계 연구에서 한국 전쟁 체험의 특수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문제는 한국의 6·25 소설의 주요 소재가 전쟁에 참여했던 남성(인물)의 체험으로 제한되는 경향에서 찾아진다. 다시 말해 한국의 6·25 소설에서 남성의 체험이 한국 전쟁기 민족의 체험으로 환원된다는 점에 대하여해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박완서는 집안의 남자들, 즉 아버지와 오빠가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삶을 살아낸 어머니와 딸의 역사를 민족의 역사의 한 국면(局面)에 배치한다. 전쟁과 이념 다툼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아버지와 오빠의 역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어머니와 딸의 역사를 전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 딸/누이와 아들/오빠의 역사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미분화된 우리의

^{11) &}quot;따라서 딸은 '억척모성'으로서 어머니의 세계를 발견함으로써 바로 보편의 이름과 개별 존재자의 이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 성찰과정은 자신이 놓인 역사적 현실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성찰에 이르게 된다." 위의 글, 395면. 이 같은 설명이 선행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고통을 매개로 한 딸의 성찰이라는 측면에서 논의 된 바 있다.

[&]quot;이와 같이 딸인 나의 정체성의 확인은 엄마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수반되는 과정이며, 자신 안에 있는 모순적인 의식을 발견하고 이해함으로써, 엄마의 삶의 이율배반성을 비로소 고통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 어머니의 세계는 그 이율배반 자체 속에서 〈근거를 잃은〉 삶의 고통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만 딸의 세계는 어머니의 세계의 이율배반의 고통을 이해함으로써, 그 삶의 역사적 질곡을 껴안음으로써만, 자신의 삶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권명아, 앞의 글, 344면.

역사임을 박완서 소설은 보여준다. 아버지와 오빠의 시신을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고 그 기억 위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어머니와 딸은 혈연 가족 관계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역사의 '공모자'라는 측면에서 연결된다.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를 사적 가족의 틀거리만으로 분석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결속의 기억을 통해 어머니와 딸이 성급하게 연대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박완서가 이룬 문학적 성과가 더욱 도드라진다. 오히려 결속의 기억은 생활에의 활력을 앗아가거나(어머니의 경우), 그 기억으로부터 탈주하려는 욕망을 추동하면서(딸의 경우) 어머니와 딸 사이의 복잡한 감정을 야기한다.

한편 어머니에 대한 딸의 애착 및 증오 양상에 주목한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정신분석학 이론을 방법론으로 삼아 박완서 소설 속 모녀의 전쟁 체험 의 의미를 해석한다. 김은하12)는 『나목』을 분단소설 혹은 전쟁소설로 범주화 하는 기왕의 관점이 지닌 한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한다. 하나는 그러한 관점으로는 소설 속 "애증에 찬 모녀 관계의 긴장"과 "전오이디푸스기(pre-O edipal)의 어머니에 대한 딸의 갈망"을 읽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13) 다른 하나는 "박완서 소설의 히스테릭한 여주인공들이 보여주는 전복적 욕망을 가 족 로맨스로 환원해버리는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14) 김은하에 따르면 『나 목 은 전쟁으로 인해 부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자신의 욕망에 직면하는 이경 의 성장 서사를 축으로 한 소설이다. 이때 이경의 욕망은 남성 인물들과의 애정 관계에 대한 욕망과, 어머니와의 전오이디푸스기적 결합의 욕망으로 나 타나는데 전자가 후자의 실패, 즉 어머니에 의한 소외에서 비롯한 결핍에 의 해 추동된다. 그런데 아들/오빠의 죽음을 어머니/누이의 남근 상실로,15) 이 경의 성장 및 모녀의 화해를 예견된 실패로16) 귀결하는 이 같은 관점은 오 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이 여성의 생애를 실패의 언어로 설명함으로써 노출 하는 한계를 재술하는 공간에 머문다. 요컨대 아들/오빠의 죽음이 "모녀관계

¹²⁾ 김은하, 「애증 속의 공생, 우울증적 모녀관계 : 박완서의 『나목』론」, 『여성과 사회』 15, 2004, 112~130면.

¹³⁾ 위의 글, 114면.

¹⁴⁾ 위의 글, 같은 면.

¹⁵⁾ 위의 글, 118~119면.

¹⁶⁾ 위의 글, 127면~128면.

의 진정성을 심문에 부치는 계기가 된다"17)는 설명은 이론적 차원에 다소 치우친 접근으로 보인다.

이후 박정애¹⁸⁾는 모녀 관계의 의미 변경에 대한 한국 전쟁의 영향이라는 차원으로 논점을 구체화하여 더욱 설득력 있게 분석한다. 박정애는 모녀 관계를 "말의 주체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¹⁹⁾ 요인으로 보고, 이것이 한국 전쟁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사건 혹은 시기와 얽혀 작동하는 방식이 문학적으로 상징화되어 온 양상에 주목하였다. 박정애는 한국 전쟁을 "남성 가장의 죽음 혹은 실종을 초래함으로써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던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전면으로 부상시킨" "극적 계기"로 정의한다.²⁰⁾ 한국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이처럼 정의할 수 있다면 『나목』, 『그 많던 싱아는 누가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등의 소설을 전쟁 체험 소설로 묶을 때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박정애는 소설 속 딸이 "어머니와의 분리와 결합을 수행하는 지점에 주목"²¹⁾함으로써 박완서의 모녀서사에 관한 논의의 공백 채우기를 시도한 셈이다.

그런데 박정애의 논의가 "고통과 시련을 무릅쓰고" "'제의적 공간'"으로서 전장을 통과함으로써 "독립적 개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의 이미지를 제시한다든가,22) "낡은 주체를 허물고 새로운 주체를 구성하기 위"해딸이 겪어야만 하는 "'제의적 고통'"으로서 어머니의 죽음을 설정하고 이를 "고가(古家)의 해체"와 상징적으로 연결한 측면23)은 정신분석학의 '아들(소년)의 아버지 죽이기'를 '딸의 어머니 죽이기'로 환원한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는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무엇보다 '상징적 죽음', '제의적 고통', '언제까지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통증'과 같은 불편 언어를 통과할 때라야 모녀 관계의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해 볼 지점이다. 왜냐하면 박완서의

¹⁷⁾ 위의글, 118면.

¹⁸⁾ 박정애, 「여성작가의 전쟁 체험 장편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와 '딸의 성장' 연구 :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과 박완서의 『나목』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3, 2005, 311~336면.

¹⁹⁾ 위의 글, 316면.

²⁰⁾ 위의 글, 320면.

²¹⁾ 위의 글, 같은 면.

²²⁾ 위의 글, 328면.

²³⁾ 위의 글, 331면.

모녀서사를 통증을 경유하여 독해할 때 그것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거세 공포를 되비추는 기제로 작동할 위험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가 문제 삼는 또 다른 시대적 배경은 1980~90년대이다.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는 한국 전쟁 이후 어머니들이 자식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대처(大處)로 나가는 삶에 대한 꿈', '신식 교육을 통한 입신출세의 희망'을 자식들의 희망 진로로 전이시켰다. 이에 자식들은 어머니 욕망의 대리자로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고 출세하기 위하여 대학 교육을 받으며 부모 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한다. 가족 구성원끼리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자면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서 두드러진변화가 나타난다. 즉 아무리 가난해도 아들만큼은 대처로 보내 신식 교육을받게 했던 과거에 딸들은 집에 남아 어머니의 전통성을 이어받았다. 그런데이제 딸들도 대학 교육을 받게 되고, 산업화 및 도시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집밖의 논리를 체화한 딸들이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중산층 가정 모녀 관계의 특수성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에 대한 문학적 반응으로 해당 시기 모녀 관계를 다룬 소설(대체로 여성작가의 소설)에서 딸이 어머니의 삶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준거가 사회운동의 정치성과 여성해방운동의 정치성으로 크게 양분되어 나타나는 경향을보인다. 요컨대 1980년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는 소설 속 딸들은 대처에서 발견한 독립성과 개방성을 준거로 삼아 어머니 삶의 태도와 생존 방식을 부정하는 인물로 그려지곤 한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들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 연구는 어머니의 전통적 생존 방식에 대한 딸의 비난과 그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어머니와 딸이 보이는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중산층 가정내 여성의 올바른 정체성이 양자 중 무엇인지 묻거나, 그들이 표상하는 허위의식에 대해 작가가 비판적 입장을 취하느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자리가 수없이 마련되어 온 점은 지적해 둘 만하다. 그리고 이 같은 경향은 1980년대여성문학 담론의 지평에서 박완서가 호출되었던 맥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등단작 『나목』에서부터 여성들이 가정 안팎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

한 관심을 드러낸 박완서는 특히 1980년대 여성문학 담론과 활발하게 교류하였기 때문이다.

박완서 소설 세계를 탐구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은 박완서 소설이 동시대 여성운동의 비전을 소설화하는 데 기여한 바를 따져 물음으로써 그 문학사적 위상을 구명하려는 태도일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태도가 비단 박완서 소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여성문학 전반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써 마련되어 왔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여성문학을 여성운동의 실천방안 중 하나로서 의미화하는 협소한 인식은 여성문학의 다채로운 양상과 그 의의를 살피는 논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未達態)이던 여성문학이 1990년대들어 기존의 주류였던 (남성)문학을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고 짜여진 여성문학의 성장(成長) 서사는 정치·사회·역사·문화적 담론과 상호 작용하며 시대적 맥락을 구성하는 역동적인 영역으로서의 문학이 아니라, 제반 담론들의 경향에따라 승인이 결정되는 피동적인 영역으로서의 여성문학을 상상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24) 따라서 1980년대 한국 여성문학의 문학사적 위상을 변경하는

²⁴⁾ 여성문학의 이행 과정을 성장 서사화하는 경향은 1990년대 여성문학의 문학적 성취를 진단하는 연구의 주요 테마이다. 해당 연구 목록을 첨가하는 것을 과제로 남겨 두고, 여기서는 하나의 예로 박혜경의 글을 발췌해 둔다. 박혜경은 1990년대 여성작가들이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보이는 것이 1980년대 문단에서 전혀 볼 수 없던 일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지만, 1990년대 여성작가/문학의 위상을 남성작가/문학의 위상과 비교하는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1980년대 여성작가 베스트셀러의 속성을 통속성으로, 1990년대 여성작가 베스트셀러의 속성을 문학성으로 설명하는 배타적인 관점도 지적할 만하다.

[&]quot;중요한 것은 최근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젊은 여성작가들의 수적인 우세 그 자체가 아니라, 그녀들의 활동영역이나, 그녀들이 일구어내는 문학적 성과의 질적 수준이 지금까지 남성작가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문단의 흐름을 상당부분 위협할 정도의 수위에 도달해 있다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베스트셀러 집계에 오르고 있는 작가들 가운데 많은 부분을 이들 젊은 여성작가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독자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명도를 확보하면서 그 문학적 영향력의 폭을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지금까지 잘 팔리는 대중소설 작가로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는 여타여성작가들의 수는 적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베스트셀러 순위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들 젊은 여성작가들의 작품이 그러한 통속적 차원의 작품들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문학적 자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작품에 곧바로 베스트셀러 소설에 대한 우리의 고정된 선입견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을 주저하게 만든다." 박혜경,「사인화(私人化)된 세계 속에서여성의 자기 정체성 찾기」,『문학동네』제2권 제3호(통권 4호), 문학동네, 1995.08.15, 3 면. (강조 표시—인용자)

작업의 출발선은, 소설 속 등장인물이 노동 계급 여성이 아니라면 그 작품들을 진정한 여성문학으로 보지 않는 비평적 관점을 비판하는 자리에 마련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또 하나의 문화》와 《여성》 필진 사이의 긴장 관계는 주목을 요한다.25》 물론 당대 여성 무크지 필진들의 입장이 서로 얼마나 달랐는가 하는 물음은 그들이 여성문학을 문학과 여성의 단순한 결합으로 보는 데그치지 않으려는 사유의 흐름에서 만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진지한 이해와 겹쳐질 때 유의미하다 할 만하다. 그럼에도 여성 해방 및 해방된 여성(들)의 주체성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개별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관점의 차이는 발생한다.26》 두 그룹은 세 가지 굵직한 논읫거리를 두고서로 다른 입장을 개진하면서 여성문학을 의미화하는 언어의 차이를 보이기때문이다. 첫째, 여성에 대한 계급적·가부장적 억압에 대항하는 여성문학의지향점, 둘째, 박완서 소설에 대한 실제 비평, 셋째, 두 그룹이 전략적으로 내세운 공동체적 글쓰기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바 '박완서논쟁'은 중산층 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그들의 입장 차이를 표면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중산층 여성을 여성운동 주체에 포함하고 그들의 억압적 경험에 주목함으로써 가부장제에 균열을 내는 대안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 《또 하나의 문화》는 「해산바가

²⁵⁾ 한국 여성문학이 여성 무크지 《또 하나의 문화》(1984년 12월 설립, 1985년 2월 창간) 및 《여성》(1985년 11월 창간, 출판법 개정에 따라 1990년 『여성과 사회』로 개칭하였음), 《여성운동과 문학》(1988년 8월 창간)과 상호 교섭하며 나아간 양상에 주목한 저마다의 논의에서 주요하게 언급하는 바 당대 여성 무크지는 여성해방운동에 관하여 서로 다른 관점을 견지하였다.

한국 여성문학과 1980년대 여성 무크지의 상호 교섭에 주목한 연구로 다음을 참조. 김은 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Vol.51, 상허학회, 2017, 21~22면;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 - 『또하나의 문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Vol.43,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7~36면.

²⁶⁾ 당대 여성 무크지의 입장 차이 전반과 박완서논쟁에 관한 이 연구의 이해는, 당대 여성 무크지를 '또문'그룹과 '여성'그룹으로 크게 나누고 핵심 쟁점을 정리한 이선옥의 글에 기대어 있다.

[&]quot;『또하나의문화』1~6호, 《여성》1~3호, 《여성운동과 문학》1~2호를 대상으로 여성문학논쟁을 정리해 보면, 《여성》과 《여성운동과 문학》의 글은 같은 그룹의 필자들의 글로 하나의 관점으로 묶어볼 수 있어서 이후 논의에서는 '또문'그룹과 '여성'그룹으로 지칭하여 관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선옥, 위의 글, 17면.

지」(1985)와 같은 작품을 "철저한 리얼리즘"²⁷⁾ 소설로 평가하였다. 한편 중산층 여성을 "지배권력과의 관계에 놓인 위치에 따라 기회주의적인 성격이드러날 수 있는 흔들리는 계층"²⁸⁾이라고 본《여성》은『살아있는 날의 시작』(1980),『서 있는 여자』(1985) 등의 작품을 "중산층적 시각의 한계에 의해 제한되"²⁹⁾어 있는 소설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 차이는 여성문학으로서 박완서소설의 성취도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로 구체화되었는데, 소설의 중심 인물이 중산층 여성이라는 점으로부터 박완서 소설에 대한 당대적 평가가 갈라져나왔다는 사실은 여성해방문학이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 그룹의 반응을 내포한다.³⁰⁾

한편 오자은은 중산층을 규정하는 속성이 무엇이며 소설 속 인물이 그것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묻기보다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정의내리는 이들이 취하는 생존방식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박완서의 관심이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박완서 소설 속 중산층 인물 연구의 변곡점이 된다. 오자은31)은 한국 전쟁 체험이 중산층이 취하는 생존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 1970~80년대 도시 개발과 중산층 의식의 관련성,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들이 중산층 가정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야기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였다. 특히 중산층 여성 화자가 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붕괴되었던 역사적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상기하며 일상을 유지하는 행위가 지닌 제의적 의미를 밝힌 지점은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서 중산층이라는 사회적 계층이 형성되는 1980년대 양상을 짚어내기에 이 연구에서 주목하였다.32)33)

²⁷⁾ 위의 글, 25면.

²⁸⁾ 위의 글, 20면.

²⁹⁾ 위의 글, 26면.

^{30) 1980}년대 여성문학에서 나타나는 중산층 여성 인물의 의미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오자은, 「1980년대 박완서 단편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존재방식과 윤리」, 『민족문학사연구』 Vol.50, 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231~256면; 「중산층 가정의 욕망과 존재방식: 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론」, 『국어국문학』 No.164, 국어국문학회, 2013, 489~518면; 「중산층 가정의 데모하는 딸들: 1980년대 김향숙 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No.45, 한국현대문학회, 2015, 413~449면; 「무엇이 중산층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가: 70~80년대 중산층 여성 소설들을 중심으로」, 『문화과학사』 No.95, 문화과학, 2018.9, 378~406면.

³¹⁾ 오자은, 「1980년대 박완서 단편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존재방식과 윤리」, 『민족문학사연구』, Vol.50, 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231~256면.

³²⁾ 누가 중산층이고 무엇이 중산층의 속성인가를 묻기보다 자기를 중산층으로 규정하는 이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찾아지는 아쉬움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소설의 중심 인물인 중산층 여성이 딸 세대와 대결하는 양상에 주목함 으로써 심리·정서적으로 무한히 멀어지는 모녀 관계를 상정한다는 점이다. 둘째, 어머니 세대와 보수성을, 딸 세대와 새로움을 상호 배타적으로 관련짓 는 전형적인 세대 감각 위에서 모녀 관계를 설명한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같은 목표를 설 정하게 된 동인(動因)은 다시 두 가지이다. 첫째, 산업화 시기를 배경으로 하 는 박완서의 후기 단편소설에는 모녀 간 세대론적 대결에 주안점을 두는 것 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산층 가정 내 아내로서 어머니가 취하는 생존방식에 대한 딸의 반감에 주목하여서만은 딸들이 아픈 어머니 곁을 지키며 돌봄으로써 펼쳐지는 새로운 모녀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박완서 소설의 독특함이란 딸에 의해 돌보아지는 어머니를 그린다는 점, 달리 말해 노인에 대한 돌봄 수행을 장남/며느리의 몫으로 환원하는 일반적인 관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박완서 소설 속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정 형화된 세대론을 통해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을 상당 부분 노출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전통적 부자관계를 되비치는 관계로 서 박완서 모녀 관계를 의미화하는 선행 연구의 한계로부터 거리를 둔다.

이 취하는 생존 방식(존재 방식)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위협 요인이 무엇인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서술은 오자은의 누적된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오자은에 따르면, "1970년대 압축적인 경제 성장의견인차이자 실질적인 수혜자이며 1940년대에 지방에서 출생하여 유년기에 6·25를 경험했고 청소년기에 4·19를 목격한 뒤, 산업화 경제 성장으로 전부 관료, 대기업 사무직,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로 성장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졸업한 대학 근처나 사대문바깥에 살다가 이후 서울 중심부의 맨션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는 일종의 가상의 공동체-중산층 가정들이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80년대라고 할 수 있다."위의 글, 234~235면.

³³⁾ 오자은의 후속논의는 박완서 소설 속 중산층 가정이 배경이 아닌 주인공 그 자체로서 등 장하는 시기를 1970년대로 소급한다. 1970년대는 한국 전쟁 이후 가난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민족적 염원이었던 1960년대와, 중산층 문제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개입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싸고 이른바 '중산층 담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1980년대 사이에 위치한다. "즉 70년대는 본격적으로 중산층 가정되기의 욕망과 방식들이 탄생하고 훈련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주요한데, 당시 "압축적인 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실질적인 수혜자들이 자신들을 중산층으로 자리매김하고 훈련하는 방식"을 전형적으로 묘사하다는 점에서 박완서의 소설이 유의미하다는 분석이다.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욕망과 존재방식 : 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론」, 『국어국문학』 No.164, 국어국문학회, 2013.8, 492면.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앞서 말한 넷째, 즉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온 딸이 수행하는 아픈 어머니 돌봄의 의미 측면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돌봄의 의미 연구는 주로 단편소설을 대 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가족 내 여성 구성원(아내, 며느리, 딸)이 아픈 노인을 돌보는 행위를 '부양'으로 보 는가 '돌봄'으로 보는가에 따라 논점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인 부양 문제에 접근한 이른 시기 연구로 간호옥34)은 박완 서 소설을 통해 "가족간의 심리적인 갈등과 노인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35), "노인을 진정한 가족성원으로 받아주지 않으려는 젊은 사람들의 의식"36)을 살핌으로써 당시의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젊은 세대의 인식 전환을 도모하였다. 이후에도 박완서 소설 속 노인 부양에 주목한 연구 에서는 박완서 소설에서 노인 부양 문제가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의미화하고,37) 자녀에 의해 소외되는 노년의 심 리적 특성을 묘사한다는 점을 들어 박완서 노년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를 밝 힌다.38) 기존 연구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인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소설 속 노인 인물들이 앓는 질병인 치매(노망)의 상징적 의미를 고 찰한 후속 연구에서도 아픈 노인을 부양하는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 양 상에 주목하는 경향은 일관성을 보인다.39)

³⁴⁾ 간호옥, 「현대소설에 나타난 노인부양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사업적 접근 : 박완서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Vol.11,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7~24면.

³⁵⁾ 위의 글, 7면,

³⁶⁾ 위의 글, 8면,

³⁷⁾ 오준심·김승용,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 갈등 연구」, 『한국노년학』 Vol.29 No.4, 한국노년학회, 2009, 1341~1359면; 박태상, 「박완서의 90년대 노년문학에 나타난 '가족갈등' 양상 — 갈등이론과 심리학적·사회학적 노년학 이론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No.76, 한국비평문학회, 2020, 89~124면.

³⁸⁾ 송명희, 「노년 담론의 소설적 형상화 - 박완서의 「마른 꽃」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 연구』 Vol.13 No.1,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2, 1~25면.

³⁹⁾ 김은정, 「모녀 서사를 통해 본 '치매'의 상징성 연구」, 『한국문학논총』 Vol.61, 한국문학회, 2012, 303~327면; 「현대소설에 나타난 치매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No.63, 한민족어문학회, 2013, 313~340면;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질병의 의미」, 『한국문학논총』 Vol.70, 한국문학회, 2015, 293~332면; 김지혜, 「현대소설에 나타난 치매 표상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No.72, 현대문학이론학회, 2018, 53~80면.

김은정(2015)은 박완서 소설 속 노인 질병이 치매(노망), 암, 뇌졸중(중풍)이라는 세 가지형태로 반복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각 질병의 상징적 의미 및 서사적 기능을 분석한다.

한편 박완서 소설 속 아픈 노인을 돌보는 행위를 부양이 아닌 돌봄이라고 보는 연구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족 구성원의 갈등 상황자체를 문제삼기보다 돌봄 행위를 논의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인간의 상호의존성에 관하여 탐구하는 경향을 띤다. 40) 엄미옥 41)은 1970년대 이후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감에 따른 문학적 반응으로서 '돌봄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였음을 선언하였다. 엄미옥은 노인의 치매(노망)를다룬 소설의 서술 방식이 "관찰과 기록의 성격을 띠고 있"42)으며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돌봄을 받는 인물의 정체성과 역사가 재구성된다"43)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소설에 나타난 돌봄의 의미를 환기하는 데 연구의 주안점을 둔다. 치매(노망)에 걸린 노인을 돌보는 여성 인물이 겪는 어려움에 관하여도서술하지만 연구의 주된 관심은 여성 인물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내면의성숙을 이루는 과정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보인다.

여성 인물의 내면의 성숙을 예비하는 서사적 장치로서 노인에 대한 돌봄의 의미를 고찰하는 관점은 김미영44)의 연구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김미영은 "여성의 서사에서마저 소홀히 다뤄지는 여성의 돌봄을 공론화하면서현재화"45)하는 자리에 박완서 소설을 위치시킨다. 특히 돌봄을 수행하며 갈등을 겪는 여성 인물들이 그 과정에서"'자기 발견'(「살아있는 날의 시작」)과 '정체성의 회복과 자립'(「친절한 복희씨」)"46)을 도모한다고 보는 설명, 나아가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돌봄의 의미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인물이 상호의존적인 돌봄 윤리를 기반으로 자기 돌봄의 윤리를 확립해가는

⁴⁰⁾ 돌봄을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관련지은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돌봄'은 사회적 역량이자, 복지와 번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이다. 무엇보다도 돌봄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을 인지하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케어 컬렉티브(The Care Collective), 『돌봄 선언』(*The Care Manifesto*), 정소영 옮김, 니케북스, 2021, 17면.

⁴¹⁾ 엄미옥, 「고령화사회의 문학 - '치매'를 다룬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학회』 Vol.24 No.1, 대중서사학회, 2018, 285~321면.

⁴²⁾ 위의 글, 294면.

⁴³⁾ 위의 글, 295면.

⁴⁴⁾ 김미영, 「박완서 소설 속 돌봄 인식 방식 연구」, 『국어문학』 Vol.72, 국어문학회, 2019, 195~229면.

⁴⁵⁾ 위의 글, 199면.

⁴⁶⁾ 위의 글, 216면.

과정"이라는 점에서 찾아진다는 설명은 엄미옥이 돌봄을 바라본 관점과 공명하는 지점이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 정연희⁴⁷⁾는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을 견지하며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인 돌봄의 의미를 밝힌 바 있다. 요컨대정연희는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를 중심으로 "돌봄에 내재되어 있는 윤리적 감수성으로서 영성을 검토하"⁴⁸⁾였다.

선행 연구의 흐름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박완서 소설 속 여성 인물이 아픈 노인을 돌보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가 '부양'(대체로 2009~2020년의 연구 경향)에서 '돌봄'(대체로 2018~2022년의 연구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그 기점은 2018년경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 중에는 연구자에 따라서 한 편의 글안에서 두 용어를 혼용하거나,49) '부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와 '돌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 사이에 논점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50) 이는 '돌봄'이라는 용어가 이론적으로 정립되는 과정 중에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돌봄'이라는 용어를 선택하는 연구에서 논점이 다양화되는 경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양'에서 '돌봄'으로의 이행이 단순히 용어 사용의 차원이 아니라 인식적·이론적 차원의 지평을 변경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만한다. 노인에 대한 아내, 며느리, 딸의 돌봄을 사랑이나 효(孝)의 측면에서 설명하거나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돌봄을 모성(성)의 측면에서 설명함으로써 그것을 자연화하는 데서 벗어나, 인간의 상호의존성에 기인하는 협력적 행위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51)

⁴⁷⁾ 정연희, 「박완서 단편소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의 '여성가족로맨스'와 돌봄의 영적 의미」, 『현대소설연구』 No.8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515~540면.

⁴⁸⁾ 위의 글, 521면.

⁴⁹⁾ 박태상, 앞의 글.

⁵⁰⁾ 정미숙·유제분, 「박완서 노녀소설의 젠더시학」, 『한국문학논총』 Vol.54, 한국문학회, 2010, 273~300면; 안지나, 「1970년 한일 노년문학의 '치매' 표상과 젠더」, 『횡단인문학』 제3호,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2019, 47~76면; 양영자, 「중산층 가정 시부모의 피돌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박완서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20, 39~68면.

⁵¹⁾ 한편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돌봄에 관한 최근 연구를 검토하면 '부양'에서 '돌봄'으로의 이행이 단순한 맞교환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다. 달리 말해 돌봄이라는 주제를 경유하면 여성 인물의 행위를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의미화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담론이 형성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관련 논의로는 자식을 돌볼 권리를 쟁취하는 미혼모의 돌봄 주체화 양상을 분석한 정우경,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첫째, 아픈 노인의 성별과, 그들을 돌보는 여성 인물(아내, 며느리, 딸)의관계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돌봄 대상자와 돌봄 수행자가 맺고 있는 가족 관계에 따라 그들이 주고받는 행위 및 감정이 달라지도록 설정한 작가 의도에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소설 속 돌봄 수행자와 돌봄 대상자의 관계를 일반화하였다. 둘째, 돌봄을 수행하는 여성 인물이 내적 갈등을 겪는 동시에 보람과 만족감 또한 느끼는 양가적 반응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았다. 아픈 노인을 돌보는 행위를 부양으로 본 선행 연구에서는 노인에대한 혐오 감정을 중심으로 한 가족 갈등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픈노인을 돌보는 행위를 돌봄으로 본 선행 연구에서는 돌봄을 자기 성찰 혹은내면 성숙의 기회로 의미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 연구는 박완서가 아내에 의한 남편 돌봄을 서사화하는 방식과, 며느리에 의한 시어머니 돌봄을 서사화하는 방식, 그리고 딸에 의한 어머니 돌봄을 서사화하는 방식 사이에 유의미할 만큼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는 선행 연구가 남겨 둔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이다. 또한 소설 속 딸이 보여주는 양가적 반응, 즉 어머니를 직접 보살핀다는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장남의 역할을 빼앗았다는 면구스러움을 느끼는 측면에 주목하여 연구의 뼈대를 잡았다.

종합하자면 이 연구는 박완서의 전 시기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의 특수성에 주목하는 셈이다. 박완서의 작업이 "시대적 환경의 변화가 어머니의 삶속에 새겨놓은 모순과 상처의 다양한 흔적들을 매우 탁월하게 복원"52)하기에 보배롭다는 평가는 축적된 여러 연구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근대적혼란기의 한가운데를 해쳐온 한 여성의 치열했던 삶을 기록하는 주체가 바로그녀의 딸이라는 점"53)이 어떤 이유에서 "가장 의미있는 국면"54)인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러하기에 이 연구는 '어머니의 삶을 기록하는 주체가 바로 그녀의 딸이라는 점'이 어떠한 이유에서 의미

가』에 나타난 '돌봄 주체화'양상」,『한국현대문학연구』 No.63, 한국현대문학회, 2021, 85~112면이 있다.

⁵²⁾ 박혜경,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을 읽는다』, 열림원, 2003,108면.

⁵³⁾ 위의 책, 같은 면.

⁵⁴⁾ 위의 책, 같은 면.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는 오직 딸만이 그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려는 욕구로부터 멀리 있다. 중요한 문제는 딸이어머니의 삶에 대해 말하는 방식으로 구축되는 모녀 서사가 어떠한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이 연구는 어머니에 관한 딸 화자의 서술이, 어머니에 대한 딸의 해석과 판단이 선행되었음을 표시한다고 본다. 무엇에 관하여 말하는 행위는 무엇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나목』에서 "나는 어머니를 싫어하며서도 어머니가 살아가는 데 내가 어느 만큼의 보람이나 힘이되고 있나 쯤은 문득문득 궁금해하는 터였으므로 (…)"(87면)처럼 궁금증을 담은 채로 말해지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달리 말해 박완서 모녀 서사에서 자주 화자로 세워지는 딸들은 어머니의 삶을 증언하고 기록하는 역사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는 박완서 소설에나타난 모녀 관계란 딸이 생각하는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이다. 딸은 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깊은 애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증오를 느끼는지거침없이 말한다. 박완서 소설에서 모녀 관계가 이러한 방식으로 구축될 때어머니 자신의 목소리는 자주 소거되는데 이는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의 분명한 한계인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성과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박완서 소설 속 딸의 심리·정서적 분투를 이해함으로써 어머니의 위치를 새롭게 발견하기를 목표하고 있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세운 기준은 기존 박완서소설 연구에서 발표 시기를 10년 단위로 나누고 각 시기별 작품군에 나타나는 특징을 상호 비교하는 전략이 두드러진 경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마련하였다. 박완서 소설 연구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발표된 작품들에 두루 걸쳐 이루어지는데, 초기 연구에서는 발표 시기를 10년 단위로 나누고 각 시기별 작품군에 나타나는 특징을 상호 비교하는 전략이 두드러진경향이 있다. 특히 강인숙55)은 박완서의 등단작인 『나목』(1970)과 『한 말씀만 하소서』(1994)를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1980년대 작품군을 설정하고, 1970년대와 달리 1980년대의 소설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⁵⁵⁾ 강인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 강인숙 평론 전집 3』, 박이정, 2020.

강인숙은 1980년대를 박완서가 가톨릭 신자가 되는 시기로 의미화하면서 박완서의 1970년대 소설 세계와 1980년대 소설 세계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이유를 밝혔다.56) 가톨릭 신자가 된 박완서의 글쓰가 "토악질이나 증언, 복수나 가면 벗기기의 글쓰기"로부터 "구원의 가능성이 자리 잡"은 글쓰기로 옮겨 가게 되었다는 분석이다.57) 특히 1980년에 발표한 「그 가을의 사흘 동안」과 「엄마의 말뚝」 1에서 "6·25 체험의 심리적 트라우마外傷, Trauma에서의 해탈의 기미가 싹"을 틔우고 있다는 발견58)은 이전 시기 작품군에 비해 달라진 1980년대의 작품군의 특징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발표 시기에 따라 작품을 10년 단위로 나누고 각 시기별 특징을 비교하는 방식은 소설 세계를 관통하는 박완서의 문제 의식을 파악하는 데용이하지 않다.59)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르면 시기별 차이가 발생한 원인과양상을 밝히는 데 몰두하게 됨으로써 소설 세계의 연속성을 간과할 위험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별 작품의 발표 시기에 따라 작품군을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연구에

⁵⁶⁾ 위의 책. 180면.

⁵⁷⁾ 위의 책. 181면.

⁵⁸⁾ 위의 책, 179면.

⁵⁹⁾ 박완서의 작가 생애 전체를 이루는 작품들을 시기별로 분절하는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작업을 통해 박완서의 소설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관점을 밝힌 지면으로 오자은의 박사학위논문을 참고하였다.

[&]quot;박완서가 『나목』으로 등단했던 70년부터 9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상당히 많은 단편과 중장편들을 발표했지만 이 작품들이 시기별로 분절해서 경향성을 따질 수 있을 만큼 사상 의 변화가 추적되거나 세계관의 변모가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박완 서의 소설은 어느 시기의 작품을 읽어도 확연한 시차가 느껴진다거나 초기 작품과 후기 작 품 사이에 두드러진 분절점을 발견하기는 힘들며, 이 때문에 박완서의 어느 작품을 보아도 비슷한 인상을 받거나 늘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한다. 이는 박완서가 다루는 소재 자체가 6.25 전쟁에 얽힌 작가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나 가정주부, 중산층 가 정의 일상 등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이것은 박완서 소설에 대한 기존의 비판이 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박완서 소설이 초기부터 하나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서 그것이 계속 변주되며,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모순과 균열을 포착하는 과정 자체를 상 당히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박완서 소설에서 서사의 가장 큰 추 동력, 사건을 만드는 계기, 인물들의 성격을 구성하는 재료는 중산층 주인공들이 '비어있 음'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지에 대한 고투이며 이를 때로는 비판적으 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관점을 바꾸어가며 변주하는 것이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의 박 완서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여겨진다." 오자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 산층의 정체성 형상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2, 21~22면.

서는 모녀의 어머니와 딸이 결속하는 양상을 하나의 축으로, 어머니에 대한 딸의 돌봄 수행을 또 다른 축으로 삼아 대상 작품을 선별하였다.

1.2. 연구의 시각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의식 중 하나는 기존 박완서모녀 관계 연구가 어머니와 딸이 같은 성별을 지녔다는 데 지나치게 많은의미를 부여해 왔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러한 관점을 견지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뻗어 나감을 보인다. 하나는 딸을 어머니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해줄 유일한 인물이자, 전쟁 및 산업화라는 역사를 지나온 어머니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내면의 성숙을 이루게 되는 인물로 해석하는 경향이다. 그런데 정체성이란 선험적으로 주어지거나 특정한 계기에 의해 완결된형태로서 획득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이연구는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어머니에 대한 딸의 동일시를 딸이 어머니와 같은 여성이기에 당연히 수행하는 일로 상정하는 관점으로부터 거리를 둔다.

다른 하나는 소설에 나타난 모녀의 애증 관계의 양상을 의미화함에 있어 정신분석학 이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경향이다. 기실 20세기 초반 지그문 트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전 단계에서 여자아이가 갖는 남근(penis) 선망을 통해 모녀 관계를 설명한 이래로 모녀 관계에 관한 연구의 방법론으로 정신분석학 이론을 인용하는 사례는 문학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1905) 중 '2. 어린아이의 성욕'에서 아이들의 성 관념 가운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남성) 생식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최초의 것"으로 받아들여 "여자아이들은 자기 것(클리토리스-인용자)과 다르게 생긴 남자아이의 생식기를 보더라도 남자아이들과 비슷한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즉시 그 사실을 인정하려 들면서 남근 선망에 빠진다"고 하였다.60)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전 단계에서 여자아이의 남근 선망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단계에서 남자아이가 여자 혹은 여자아이의 성기를 보고 "자신의 성기가 없어지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상상"하게 됨으로써 "거세 위협을 실제적인 위험으로" 느끼게

⁶⁰⁾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프로이트 전집 7), 박종대 옮김, 열린책들, 2020, 85면.

되는 것과 대조적인 반응이다.⁶¹⁾ 논쟁적인 지점은 여자아이가 자신의 성기가 남자아이의 성기와 달리 "〈너무 왜소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것을 차별 대우나 열등감의 원인으로 느낀다"고 본 점이다.⁶²⁾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그들의 성기의 형태적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심리학적 발달을 경험하는 양상을 운명적인 것이라고 보았다.⁶³⁾

더욱 논쟁적인 지점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전 단계에서 여자아이가 겪는 변화를 중심으로 여성의 심리 발달을 설명하고자 시도한 두 편의 글에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성의 해부학적 차이에 따른 심리적 결과」(1925) 와 「여성의 욕망」(1931)에서 여자아이의 남근 선망이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철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설명한다.

남근 선망의 결과로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은 어머니라는 대상에 대한 애정이 식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관련성에 대해 아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다만 확실한 것은 결국엔 거의 항상 자신의 남근 부재에 대한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자신을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세상에 내보낸 사람이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64) (강조 표시-인용자)

여자아이는 남근 선망을 버리고, 대신 아기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목적을 위해 아버지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와 함께 어머니는 이제 질투의 대상이 되고, 여자아이 자신은 어린 여자로 탈바꿈한다. (중략) 이 새로운 상황에서 여자아이는 〈여성 생식기의 조숙한 깨어남〉이라고 불릴 만한 육체적 센세이션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이런 사랑이 결국 중단되어야 한다면 그 자리엔 다시 아버지의 정체성이 전면에 등장한다. 이 정체성과 함께 아이는 남성성 콤

⁶¹⁾ 지그문트 프로이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소멸」, 위의 책, 274면.

⁶²⁾ 위의 글, 276면.

^{63) &}quot;물론 여자에게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초자아, 잠복기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소아 성기 기와 거세 콤플렉스도 여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다만 남자아이와 똑같을 수는 없다. 양성 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적 요구도 여기선 힘을 잃는다. 형태론 적 차이는 심리적 발달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의 말을 변주하자면, 〈해부학적 구조가 운명〉인 것이다."위의 글, 같은 면.

⁶⁴⁾ 지그문트 프로이트, 「성의 해부학적 차이에 따른 몇 가지 심리적 결과」, 위의 책, 288면.

플렉스로 돌아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콤플렉스가 아이에게 고착화된다.65) (강조 표시-인용자)

어쨌든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이 첫 단계 끄트머리쯤에 어머니에게 서 등을 돌리게 되는 강력한 동기로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제대로 된 남근을 주지 않았다는 원망, 즉 자신을 여자로 태어나게 한 것에 대한 원망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다.66) (강조 표시-인용자)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여자아이가 자신의 성기(클리토리스)를 남자아이의 성기(페니스)와 비교하여 '불완전'하다고 느끼며, 이를 어머니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보았다. 그러다 성취할 가능성이 요원한 남근선망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사랑의 대상으로', '어머니는 질투의 대상'으로여기게 된다. 이 같은 분석은 그동안 남자아이의 심리 발달을 여자아이의 심리 발달에 대입하면서 지그문트 프로이트 스스로 의심하지 않았던 문제, 즉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단계에서 여자아이가 사랑의 대상을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포함한다. 그러나 남근에 대한 소망이 아기에 대한 소망으로 전환되는 지점, 아이에 대한 소망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전이되는 지점에 대하여는 여전히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여자아이가 남근 선망을 포기하게 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단계로 넘어오면서 어머니에 대한 질투와 '원망'을 갖게 된다는 설명은 추후치열한 논쟁 지점이 되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여성이 어머니에 대하여 '여자로 이 세상에 나오게 했다는 원망'을 운명적으로 지닌 존재라고, 다시말해 여성이란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운명적인 열등감을 지닌 채로어머니를 원망하는 존재라고 선언한 셈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딸들은 어머니에 대한 "실망"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어머니에게서 떨어지는 방향으로내볼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름 아닌 "소아기 성욕의 일반적인 특성" 탓일 따름이다.67)

⁶⁵⁾ 위의 글, 290면.

⁶⁶⁾ 지그문트 프로이트, 「여자의 성욕」, 위의 책, 326면.

⁶⁷⁾ 위의 글, 327면.

이 연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모녀관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적이라고 본다. 첫째는 '(남근)결핍으로서의 여성성'68)을 제시하고 이를 계기로 무한히 멀어지는 모녀 관계를 상정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모녀관에 따르면 "모녀가 공유하는 관계 또한 긍정적 정서와 연계될 수 없"69)다. 두 번째는 유아기적 경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어머니와 딸의 실질적인 경험을 배제한다는 점이다. 특히 두 번째 한계와 관련하여 지 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유아기적 본능 환원론'"의 혐의를 진다 는 점에서 "감정의 사회성 문제를 적절히 설명해내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할 만하다.70) 이러한 문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까닭이 생물학적 특성과 거의 관련이 없으 며 여성성을 구성하는 사회적 억압과 관련이 있다는 기본 입장을 공유하는 케이트 밀렛(Kate Millett)의 『성 정치학』(1970),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Shulamith Firestone)의 『성의 변증법』(1970), 베티 프리던(Betty Friedan)의 『여성성의 신화』(1974)에서 일찍이 지적된 바 있다.71)72)

^{68) &#}x27;남근'은 프로이트의 용어인 penis와, 라캉의 용어인 phallus의 번역어이다. 이 연구에서는 프로이트가 사용하는 '남근(penis)'을 인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프로이트와 라캉이 각각 사용하는 '남근(penis/phallus)'의 의미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두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프로이트가 사용한 생물학적 남성 성기를 일컫는 penis와, 라캉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상징적 기표를 의미하기 위해 penis와 구분해서 사용한 phallus는 흔히 우리말로 '남근'이라고 번역되어왔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남근이라는 표현에는 페니스/팔루스라는 이중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프로이트와 라캉, 양자의 결합으로 정신분석학을 설명하는 줄리엣 미첼의 입장을 고려하여 페니스와 팔루스를 구별하지 않고 남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신주진, 「줄리엣 미첼: 마르크스와 프로이트를 넘어」,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페미니스트 정신분석이론가들』, 여이연, 2016, 20면. (각주2의 내용이다.)

⁶⁹⁾ 홍기령, 「신화적 사유 속의 모녀관계 : 여성주의 정신분석학을 방법론으로」, 『아시아여성 연구』 Vol.45 No.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6.5, 284면.

⁷⁰⁾ 김왕배, 「도덕감정 - 부채의식과 죄책감의 연대」, 서동진 외, 『감성사회』, 글항아리, 2014, 71~72면.

⁷¹⁾ 로즈마리 퍼트넘 통·티나 페르난디스 보츠(Rosemarie Putnam Tong·Tina Fernandes Botts),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Feminist Thought), 김동진 옮김, 학이시습, 2019, 278면.

⁷²⁾ 케이트 밀렛,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베티 프리던이 다루는 의제의 광범위성 및 논의 방식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일컫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동시에 언급하는 까닭은 그들이 여성성에 대하여 갖는 기본 입장, 즉 '여성성이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한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고전적 정신분석학)과 라크 라캉 (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현대 정신분석학)을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한 정신분석 페미니즘73) 이론가들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자크라캉이 가부장적 의미로 제한한 '여성(성)'을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사유 전환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정신분석 페미니즘의 관점에서도 여성(성)과 모성(성)에 관하여 정신분석학의 기본 원리를 여전히 고수한다는 데 중대한 어려움이 있다.

모든 정신분석학에서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구조를 단 하나의 원인(프로이트의 경우는 거세 콤플렉스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초도로우의 경우는 前오이디푸스 관계)에 의해 빚어진 고정적인 것으로 본다는 데 있다. 예컨대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은 오이디푸스 단계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새롭기는 하지만, 여전히 심리-성 발달의 일반 구조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여성성, 더 구체적으로는 모성을 사회의기원과 분리시켜 이론화하고, 사회 및 역사의 기원보다는 심리-성의발달을 더 우선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74)

위 인용문과 같은 비판점이 있는 정신분석 페미니즘의 관점을 취한다면 박완서 소설 속 딸이 "어머니를 부정하면서도 어머니를 향한 철회되지 않은 사랑과 공생의 관계를 간직"⁷⁵⁾하는 까닭을 현재의 사회·역사적 상황에서가

^{73) &#}x27;정신분석 페미니즘'이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정신분석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포괄하여 일 컫는 용어이나,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여성주의 정신분석학' 등 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명칭 사용이 엄밀하지 않은 까닭은 개별 이론가들이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 취하는 기본 입장이 서로 다른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관점 에서 전개된 이론을 통칭하는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입장은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같이 페 미니즘과 정치철학의 범주들을 '하이픈(一)'으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 찰을 요구한다.

⁷⁴⁾ 이연정, 「여성의 시각에서 본 '모성론'」, 심영희·정진성·윤정로 공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 어머니의 성, 삶, 정체성』, 나남출판, 1999, 34면.

⁷⁵⁾ 김수진, 「정상성과 병리성의 경계에 선 모성: 박완서의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엄마의 말뚝 2〉와 아니예츠카 홀랜드의 〈올리비에, 올리비에〉를 중심으로」, 위의 책, 309 면.

아닌 전(前)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신 분석 페미니즘의 모녀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연구가 분석하는 바 박 완서 소설 속 모녀가 경험하는 결속과 갈등은 그들이 생존하기 위하여 취하 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에 대한 상호 (불)이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 연구는 답답한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 복하는 딸의 특수한 관계를 역사적 국면과 연결함으로써 박완서 모녀 관계의 문학적 상징성을 탐구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둔다.

박완서 소설 속 어머니와 딸이 결속하는 계기를 유아기의 강한 애착 관계에서 찾지 않으려는 이 연구는 박완서가 역사를 통과해 온 여성의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에 소설 속 여성 인물로 하여금 특정한 문제에 직면하도록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제시한 작가의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 전쟁 및 산업화를 통과해 온 여성들의 삶을여성사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여성사란 20세기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연구 분야로, 기존의 역사가 여성들을 "인류 발전 과정에서 단지 '주변적인' 공헌만을 한 존재들로" 기록하고 있다고 보아 "잃어버린 절반을 재구성하고여성을 능동적인 동인으로 사건의 중심부에 위치시키는" 새로운 역사 기록방식이다.76) 여성사의 관점으로 역사를 검토하면 "항상 역사 속에 살았고,역사 속에서 활동했으며,역사를 만들"77)어 온 여성들의 생존 방식을 재구성하는 데 유리하다.

근대적 학문으로서 한국 여성사 연구는 1945년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며 1 960년대까지는 한국사의 하위 분야로서 그 위치가 미미하였다. 78) 그러다 1 980년대 이후 "여성학이 학문 범주로 자리를 잡고 여성 지식인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을 경험했던 여성들이 여성의 역사와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79) 한국 여성사의 관점에서 여성의 삶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여성들이 직면하고 통과해 낸

⁷⁶⁾ 거다 러너(Gerda Lerner), 『왜 여성사인가』(Why History Matters), 강정하 옮김, 푸른 역사, 2006, 149면.

⁷⁷⁾ 위의 책, 같은 면.

⁷⁸⁾ 강영경, 「[총론]한국 여성사 연구의 동향」, 강영경 외, 『한국 여성사 연구 70년』, 한국학 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8면.

⁷⁹⁾ 박정애, 「근대 한국 여성사 연구 동향」, 위의 책, 158면.

문제들이 무엇이며 얼마나 긴급한 것이었는지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목적에서 한국 여성사의 자료를 검토한다. 첫째, 박완서 소설 속 어머니와 딸이 전향한 아들/오빠의 죽음(죽어가는 과정)을 목도할 뿐만 아니라 그의 떳떳하지 못한 죽음을 가족 밖 외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비밀로 공유함으로써 형성된 모녀 관계의 특수성을 도출하겠다. 다시 말해 한국 여성사를 경유하여 박완서 소설을 읽는 연구 방법이 한국 전쟁기 어머니와 딸의 결속을 생존 전략으로서 포착한 작가의 시선을 의미화하고 문학적 의의를 밝히는 데 유익하다고 이 연구는 판단하였다.

둘째, 모녀 관계에 관한 기왕의 탐구에서 어머니와 딸이 공존하며 수행한 구체적인 행위가 비가시화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적 사유의 장을 마련 하겠다. 한국 전쟁기를 배경으로 한 박완서 소설에서 어머니와 딸이 아들/오빠의 시신을 직접 처리하기 위해 결속하는 장면 및 가족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는 장면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국 전쟁으로 인한 피난 생활을 다룬 박완서 소설에서 딸들이 어머니, 오빠, 조카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올케와 함께 도둑질로 식량을 마련한다는 점 역시중요하다. 이 같은 두 가지 설정은 박완서 소설 속 어머니와 딸이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행위를 따로 또 같이 수행한 측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데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딸이 주고받는 행위의 의미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분히논의되지 않았다. 한국 여성사의 자료는 박완서 소설이 제시하는 바 어머니와 딸 사이에 공유된 경험이야말로 운명적 결속을 체감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셋째, 한국 전쟁기와 산업화 이후 발현되거나 발생하였던 다양한 여성 문제 중 특히 모녀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문제를 소설로 가져온 작가의 뜻을 헤아려 보겠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끼리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 중 박완서의 관심이 유독 모녀 관계로 집중되었던 연유를 문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박완서가 모녀 관계에 주목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기보다그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고려할 때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구체화될 것이다.

한편 어머니에 대한 딸의 돌봄 수행이 박완서 소설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은 1970~80년대를 배경으로 한 박완서 소설 세계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다. 그런데 선행 연구는 소설 속 중산층 가정의 모녀 관계의 의미를 중산층 여성으로서의 어머니 정체성에 대결을 시도하는 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만 제한적으로 다루어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포착한 이 연구는 어머니를 돌보는 딸의 수행이 갖는 의미를 논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돌봄 이론을 가져온다.

좁은 의미에서 돌봄80)이란 주로 자녀 양육에 관련한 보호 활동(caring ac tivities)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자녀 양육 활동으로서 돌봄의 일차적인 책임은 성별분업체계에 따라 여성에게 배당되는데,81) 이때 돌봄 수행의일차적인 주체로 호출되는 여성은 어머니이다. 돌봄과 모성(성)의 긴밀한 관계를 느슨하게 만드는 데 주안점이 있는 돌봄 이론은 인간과 비인간을 망라한 모든 생명체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을 인지해야 한다는 입장뿐만아니라 돌봄 수행의 책임이 가정을 넘어 친족, 공동체, 국가, 지구 차원의모든 영역에서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입장을 포함한다.82)

한편 넓은 의미에서 돌봄은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 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보는 행위인 부양이 포함된다.⁸³⁾ 부양이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일방향적 행위라면, 돌봄은 돌 보는 행위를 통한 상호적인 보살핌이 가능한 양방향적 행위이다.

박완서 소설 속 어머니를 돌보는 딸들은 어머니에 대한 독점적 소유욕을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어머니를 자기 손으로 돌봄으로써 그것을 충족한다. 즉 자신만의 어머니를 돌보는 행위를 통해 어머니의 보호자가 된다. 다만 박 완서 소설 세계에서 딸에 의한 어머니 돌봄이 어머니가 나이들거나 병들었을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박완서 소설에서 어머니의 나이듦과 병듦은

⁸⁰⁾ 돌봄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돌봄(caretaking), 양육하는 일(nursing), 마더링(mothering) 등이 있다.

⁸¹⁾ 이연정, 앞의 글, 27면.

⁸²⁾ 더 케어 컬렉티브, 앞의 책.

^{83) &#}x27;돌봄', '부양'의 사전적 정의는 우리말샘, 표준국어국어사전을 각각 참조.

딸이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부양이라는 관점에서는 박완서 소설 속 인물들이 주고받는 미묘한 감정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반면 돌봄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딸의 어머니 돌봄의 다층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2009~2020년 시기에 부양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박완서 노년 소설에 관한 연구가 2018~2022년 시기에 돌봄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이 연구는 의미 있는 지점으로 포착하였다.

종합하자면 이 연구는 그동안 모녀 관계에 관한 탐구에서 기대어 온 정신 분석학의 이론적 한계를 노출하는 자리를 마련한 정신분석 페미니즘을 비판 적으로 검토하고, 박완서 소설 속 어머니와 딸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결속하는 양상을 한국 여성사의 관점에 근거하여 조명한다. 나아가 박 완서 소설 속 딸이 수행하는 어머니 돌봄이 지니는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돌봄 이론의 관점을 취한다. 이러한 연구의 시각은 가족 및 사회 구성원으로 서 여성이 기여해 온 바를 확인하도록 하며, 박완서가 소설을 통해 모녀 관 계를 역사화한 방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앞의 절에서 확인한 세 번째 문제의 대안, 즉 피억압 자의 고통을 매개로 한 여성 연대가 아닌 실질적인 생존 행위를 통한 여성 연대를 상상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84)

끝으로 이 연구는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의 의미를 검토할 때 작가가 어머니, 딸과 맺었던 관계를 소설 속 모녀 관계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실마리로서 채택하는 태도를 지양할 것이다. 물론 박완서 소설은 작가의 실제 경험이라고 유추할 만한 주요 사건들을 반복·변주하여 그린다는 점에서 자전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김윤식85)은 타인이 받아쓰도록 할 수 없는 기억으로부터 창작된 소설이라는 점을 들어 박완서야말로 "소설의 순종 혈통"86)의 명맥을 잇는 "거인"87)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소설을

⁸⁴⁾ 이 연구는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의 경험이 여성들의 환원 불가능한 경험이라는 점에 서 성차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성) 연구가 필연적으로 당도하게 되는 성차의 문제를 돌파하거나 설명 가능한 우회로를 찾는 유의미한 과정이 이 연구에 포함될 것이다.

⁸⁵⁾ 김윤식, 『내가 읽은 박완서』, 문학동네, 2013.

⁸⁶⁾ 위의 책, 111면.

출간하며 덧붙인 작가의 말들이 박완서 소설의 증언적 성격을 돋을새김하는데 기여해 온 맥락도 간과할 수 없다. 예컨대 "한 예술가의 삶의 모습을 증언하고 싶은 생각을 단념할 수는 없었다"88》, "곳곳에 경험이 너무 생경하게 노출돼 있는 게 싫게 느껴졌다"89》, 쓰고 나서 "한낱 비통한 가족사를 폭로한 것 같은 수치심"90》을 느낀 작품이다, "순전히 기억력에만 의지해서 써보았다"91》, "내가 살아낸 세월은 물론 개인사에 속할 터이나 펼쳐보면 무지막지하게 직조되어 들어온 시대의 씨줄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무늬를 짤 수가 있었다"92》와 같은 박완서의 언급들이다. 이에 박완서 소설이 지닌 증언으로서의 문학적 기능 및 효과에 관심을 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박완서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는 그 자전적 특성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충분하지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셈이다.

그런데 작가의 실제적 삶과 소설 속 화자의 삶을 직접적으로 관련 짓거나, 작가가 맺었던 사회적 관계를 소설 속 인물들이 상호 간에 맺고 있는 관계로 대치할 때 작가가 소설 내적 세계에 마련하고 있는 미묘하고 복잡한 긴장 요소들을 일상적인 문제로 환원할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를 작가가 어머니, 딸과 맺었던 실제 관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바라보려는 시도는, 소설이란 작가의 의도를 반영할 것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작가가 쓰기 시작한 출발점으로부터 무한히 나아간다고 보는 이 연구의 기본 입장 위에 세워진다. 이 연구는 예술이란 작가의 의도 너머로 떠돌아다닐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로 남는다는 관점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어머니와 딸의 역사를 증언하는 일이란 박완서 소설의 단일한 목적이 아니라 작품 활동을 통해 얻어진 여러 유의미한 성과 중 하나로 이해하고자 한다. 박완서 소설의 의의는 당대적 현실(역사)을 반영하고 재현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무한히 창조적으로 존재하게 한다는 데서 찾아진다.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의 미학적 의미 혹은 동시대의 다른 작

⁸⁷⁾ 위의 책, 121면.

^{88) 『}나목』 재출간 초판의 작가 후기, 열화당, 1976.

^{89) 『}목마른 계절』 초판 작가 후기, 수문서관, 1978.

^{90) 「}엄마의 말뚝 2」 제5회 이상문학상 수상 소감, 《문학사상》, 1981.11.

^{91)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초판 작가 서문, 웅진출판, 1992.

^{92)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초판 작가 서문, 웅진출판, 1995.

가 소설과 비교 분석하는 일이 유의미함을 알고 있음에도 여성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생존의 문제를 묘사함으로써 소설 세계의 지평을 넓힌 박완서의 작가 의식을 탐구하는 것으로 이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2장 1절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전쟁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 나타난 가족 인식의 협소화와 모녀 결속의 양상을 조망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전쟁 이전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엄마의 말뚝 1」에서부터 어머니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형태가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전쟁이 초래한 남자 구성원의 죽음과 관련하여 박완서 주목한 문제란 단순히 아버지 가장 없는 모자녀 가족 형태를 서사화하는 데 있기보다 남자 구성원의 죽음 이후 어머니와 딸이 삶을 살아간 방식에 있었음을 화두로 올리겠다. 이러한 관점으로 나머지 소설들을 분석한다면 박완서 소설에서 아들의 신체·정신적 상해와 죽음이 가족 구성원으로 하여금 생존에 대한 불안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사건으로서 가족 밖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을 추동하는 요인이 됨을확인하리라 기대하는 바이다. 그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사결정 역할이 모녀를 포함한 여자 가족 구성원에게 압도적으로 부과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2장 2절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에 대한 기갈로부터 멀어지는 동시에 자기 존재의 '가치 있음'을 확인하고자 분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딸의 서사가 『나목』,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목마른 계절』,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 걸쳐 마련되고 있음을 분석하겠다. 이는 아들의 죽음을 목도한 어머니가 극심한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딸이 보이는 정서적 반응을 추적하고자 한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이기도 하다. 이 절에서는 『나목』에서 '옥희도'에 대한 이경의 사랑이 자기 긍정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다는 점 또한 조명하고자 한다.

3장 1절에서는 초기 단편소설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집을 떠났던 딸들이 후기 단편소설에서는 어머니 곁에 머물며 수행하는 돌봄의 상징적 의미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박완서 소설 속 성장기 아들의 자립이 '방 문 닫기'라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그려지는 데 비해 딸의 자립은 '집 떠나기'로 서사

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딸의 자립이 집을 떠나는 것일 뿐 아니라 어머니를 떠나는 문제로 복잡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단편소설로 「무중 (霧中)」, 「무서운 아이들」을 살피겠다. 또한 딸의 자립 문제는 나이들고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주체로서 딸이 등장하게 되는 토대가 되며 딸들의 돌아옴이 어머니 돌봄으로 귀착됨을 분석하겠다. 특히 어머니를 돌보는 일차적 주체가될 때 딸들이 느끼는 감정이 「엄마의 말뚝 2」와, 「환각의 나비」, 「길고 재미 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에서 상호 대비됨에 주목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절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하여 딸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구축된 박완서 모녀 서사가 '딸의 어머니'라는 이름과 '어머니의 딸'이라는 이름을 길어올리고 있음을 밝히는 데 목표를 둔다.

3장 2절에서는 딸의 돌봄의 의미가 왜곡되는 양상에 착목한 박완서의 시선을 따라감으로써 모녀 간 돌봄의 굴레를 탐색하고자 한다. 후기 단편소설에서 돌봄 수행자(딸)와 돌봄 대상자(어머니)가 관계 맺는 방식은 아내가 남편을 돌보거나 며느리가 시부모를 돌보는 단편소설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하게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제시하겠다. 그 다름이란 여성에게 돌봄의 책무를 승계하면서도 그 주체가 딸인 경우 돌봄의 자격은 부여하지 않는 사회적통념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리라 기대한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주도할 권한이 딸보다 장손에게 무겁게 실리는 장면을 통하여 가족 내에서 딸이 주변화되는 문제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엄마의 말뚝 3」을 읽는다. 「환각의 나비」,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에서는 딸 자신이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장남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빼앗는 일이라고 여기며 죄책감을 느끼는 양상이 두드러짐을 살핀다. 즉 어머니를 돌보는 딸에게 주어지는 내적 보상(보람)과,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겪게 되는 갈등 및 심리적 어려움(면구스러움)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사적 돌봄의 굴레를 독해하는 주요한 심리적 역동으로서 의미화하고자 한다.

2. 정서적 유대의 필연성과 불안정성

2.1. 가족 인식의 협소화와 모녀 결속의 계기

한국 소설에서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 즉 가족 이야기가 많이 제출되는 경향은 한국 사회에 특유한 가족 중심 공동체 인식과 관련 있다. 한국문학의 가족 중심성을 가족주의(Familism)와 연결하여 분석하는 논의에서 주목하는 바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변동이 정상적인 혹은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는 점이다.93) "근대 이후 수많은 사회적 굴곡이 기존의 가족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도록 방해했고, 때문에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가족(사적) 서사들이 출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94) 그런데 근대 이후 가족 이야기가 다원화된 경위를 밝힐 때 전통적 가족 공동체의 안정성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족 공동체의 전통적 규범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는 논의가 가족 이야기의 다원화를 가족 '붕괴'의 양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한국 소설에 나타난 다채로운 가족 형태는 시간·지리적으로 특정한 사회문화 풍토와 그 변화를 짐작케 하는 요소로서 분석할 만하다. 특히 가족의중심축이 부계 혈통에서 모계 혈통으로 이동하고, 가족 단위에 대한 개인의인식뿐 아니라 문화·사회적 인식이 축소되어 온 양상은 특정한 역사적 국면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박완서 소설 전반에서 어머니와 자녀만으로 구성된가족 형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박완서의 모자녀 가족의 상징적 의미는대체로 한국 전쟁이 초래한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부재와 관련하여 분석되곤한다.

한국 전쟁기가 배경인 박완서 소설에서 어머니 중심으로 가족이 구성되는

⁹³⁾ 안남연,「가족 서사의 복원 혹은 해체」,『한국문예비평연구』No.4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5, 114면.

⁹⁴⁾ 위의 글, 같은 면.

요인이 아버지 부재에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이지만 박완서는 한국 전쟁기보다 앞선 시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도 아버지가 부재한 모자 녀 중심의 가족 형태를 그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1980년 《문학사상》 9월호에 발표한 「엄마의 말뚝 1」이 여기에 해당한다. 「엄마의 말뚝 1」95)은 아들이 학교 교육을 받아 성공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딸 역시 대처의 학교교육을 받아 신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엄마 '기숙'과, 그런 어머니로부터 "행동반경과 교우 범위" 96)에 관한 집요한 간섭과 통제를 경험하며 자라는 딸의 이야기를 다룬다.

「엄마의 말뚝 1」을 장편화하여 1992년 출판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먹었을까』에서 '나'와 오빠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설명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으나「엄마의 말뚝 1」만 두고 보면 어린 화자인 '나'가 엄마의 "영원한문밖 의식"97)을 공유하고 내면화해 가는 과정에 작가의 관심이 쏠려 있다. 따라서 「엄마의 말뚝 1」이 중요해지는 지점은, 박완서 소설세계에 나타난 모녀관계의 의미를 분석할 때 한국 전쟁과의 관련성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에 제동을 걸고 박완서 모녀관계 계보의 시작을 전쟁 이전 시기로 소급한다는 점이다. 딸인 '나'를 신여성으로 키우려는 기숙의 욕망에서부터 뻗어가는이야기는 한국 전쟁기 모녀관계를 예비하며 한국 전쟁 전과 후에 모녀의 관계성이 변화하는 역사적 동인을 추적하는 데 유용한 지표를 마련한다.

「엄마의 말뚝 1」에서 아버지가 "대처의 양의사에게만 보일 수 있었으면 생손앓이처럼 쉽게 째고 도려내고 꿰맬 수 있는 병"(82면)으로 죽는 사건은 엄마 기숙이 송도98) 혹은 서울로 표상되는 "대처로의 출분"(21면)을 꿈꾸는 계기가 된다. 기숙은 아들이 박적골의 소학교를 졸업하자 우선 아들만 데리고 서울로 갔다가 곧 딸도 대처의 학교 교육을 통해 신여성으로 키우겠다는

⁹⁵⁾ 박완서, 「엄마의 말뚝 1」, 『엄마의 말뚝』(박완서 소설전집 결정판 11), 세계사, 2012. 이 하 같은 소설을 인용할 때는 제목과 면수를 밝히되 소설 속 표현을 서술에 직접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면수를 밝힌다. 소설 인용문에 대한 강조 표시는 모두 인용자가 첨가한 것이다.

^{96) 「}엄마의 말뚝 1」, 47면.

^{97) 「}엄마의 말뚝 1」, 82면.

^{98) &#}x27;송도(松都)'는 '송경(松京)'의 다른 말이다. 송경이라는 명칭은 조선 시대 이후에 사용된 것으로, 고려 시대의 도읍지인 개성(開城)을 '송악산(松嶽山) 밑에 있던 서울'이란 뜻으로 일컫는 말이다.

소망을 품고 돌아와 '나'를 데리고 개풍 박적골을 완전히 떠난다. 기숙에게 있어서 딸이 신여성이 되는 일에 거는 기대는 아들의 경제·사회적 성공에 거는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1-[a]

"좀 좋으냐, 가뜬하고, 보기 좋고, 빗기 좋고, 감기 좋고……. 머리 꼬랑이 땋은 채 서울 가봐라. 서울 아이들이 시골뜨기라고 놀려. 학교 도 아마 못 갈걸. 서울 아이들은 다 이렇게 단발머리하고 가방 메고학교 다닌단다. 너도 서울 가서 학교 가야 돼. 학교 나와서 신여성이 돼야 해. 알았지?"99)

1-[b]

엄마는 내 귓가에 또 소근소근 내가 서울 가서 앞으로 되어야 하는 신여성에 대해 얘기해주기도 했다.

"신여성이 뭔데?"

"신여성은 서울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란다. 신여성이 되면 머리도 엄마처럼 이렇게 쪽을 찌는 대신 히사 시까미로 빗어야 하고, 옷도 종아리가 나오는 까만 통치마를 입고 뾰 족구두 신고 한도바꾸 들고 다닌단다."

내가 히사시까미, 한도바꾸에 전혀 무지하다는 걸 아는 엄마는 기차간을 한 번 골고루 휘둘러보고 나서 저기 저 여자의 머리가 히사시까미, 조기 조 여자가 무릎 위에 놓고 있는 게 한도바꾸 하는 식으로 실물을 견학까지 시켜가며 열성스럽게 신여성이 뭔가를 나에게 주입시키려고 했다. (중략)

"신여성은 뭐하는 건데?"

나는 내가 고운 물색으로 차려입고 꼭 하고 싶은 게 널이나 그네 뛰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다. 엄마는 얼른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의 얼굴을 몹시 난처해 보였다. (중략) 나는 엄마가 모르면서도 알은체 하려 하고 있다고 짐작하고 생글거리면서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는 더 듬거리면서 말했다.

"신여성이란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 모르는 게

^{99) 「}엄마의 말뚝 1」, 25면.

없고 마음먹은 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란다."100)

1-[c]

"글공부를 잘해야지 바느질 같은 거 행여 잘할 생각 마라. 손재주 좋으면 손재주로 먹고살고 노래 잘하면 노래로 먹고살고 인물을 반반하게 가꾸면 인물로 먹고살고 무재주면 무재주로 먹고살게 마련이야. 엄만 무재주도 싫지만 손재간이나 노래나 인물로 먹고사는 것도 싫어. 넌 공부를 많이 해서 신여성이 돼야 해. 알았지?"101)

소설의 전개에 따라 시간순으로 나열한 세 장면에 나타나듯 기숙은 '나'의 "머리를 빗기는 척하면서 쌍동 잘라버"(25면)린 박적골 집에서(1-[al), 개성역에서 경성역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1-[bl), '나'가 삯바느질거리에서 떨어져 나온 헝겊으로 조각보를 만들며 장난하던 현저동 방 안에서(1-[cl) 줄곧 '나'에게 '신여성'이란 어떤 여자인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런데 신여성 되기라는 숙제는 어린 '나'에게 어머니와 관련한 모종의 안타까움을 유발한다. 엄마에게 있어서 "뒤통수의 맨살이 허옇게 드러"(같은 면)난 단발머리는 딸이 "시골뜨기"(같은 면)의 태를 벗고 서울 아이들과 닮아졌음을 환기시키는 뿌듯한 변화(1-[al)이지만 '나'에게 그것은 엄마가 머리카락을 빗어줄 때면 "엄마의 야무진 손끝을 통해 전달되는 애정 있는 성깔"(24면)을 잃어버리는 대가로 얻은 상실의 표식이다. 엄마가 단발머리를 서울 아이들, 학교, 신여성과 관련짓고 앞으로 지니고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당부하면 할수록 '나'는 "깊이 좋아하"(같은 면)던 엄마의 애정어린 손끝의 감각과의 영원한 이별을 예감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마치 방목된 것처럼 자유로운 박적골집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지 만 엄마가 '나'의 머리카락을 빗어줄 때면 대처로 떠나는 일도 "두렵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다."(같은 면) 따라서 "체경에 비친 나의

^{100) 「}엄마의 말뚝 1」, 33~34면. '히사시까미'는 댕기로 묶거나 비녀를 꽂던 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뒤를 둥글게 말아 올려 핀으로 고정하는 머리 모양을 일컬으며, '한도바꾸'는 '핸드백'의 일본식 발음이다. 박완서, 민충환 엮음, 『박완서 소설어 사전』, 아로파, 2021 참조.

^{101) 「}엄마의 말뚝 1」, 48~49면.

단발머리"(25면)가 불러일으키는 이별에의 예감은 엄마로부터 "배반"(같은 면) 당하는 "치욕"(같은 면)에 가까운 상실감을 동반한다.¹⁰²⁾

경성역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엄마가 '저기 저 여자'와 '조기 저 여자'를 가리키며 신여성의 실물을 주입(1-[b])할 때 '나'는 "한 몸에 그 여러 가지 신여성의 구색을 갖춘 여자가 없"(33면)음을 발견함으로써 "엄마가 나에게 바라는 것에 실망"(같은 면)한다. 또한 신여성이 되면 무엇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엄마도 잘 모른다고 짐작하기 시작하면서 신여성 되기의 의미를 엄마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된다. 널이나 그네를 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마음먹은걸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신여성이 '나'에게는 시시하게만 느껴질뿐이다. 엄마에게는 '나'를 통해 이루려는 대처의 꿈인 신여성 되기가 '나'에게는 "어른들과 대처가 공모를 해서"(22면) 오빠에게 씌웠던 성공이라는 이름의 "고약할 올가미"(같은 면)와 다르지 않음을 '나'가 직접 확인하게 되는 장소가 경성역으로 가는 기차 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장소에서 신여성 되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모녀가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이 노출된다는 점도 중요한데, 기차를 타고 개성역에서 경성역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녀의 인식 차이가 '나'가 속한 가족 구성원의 관계적 속성의 변화와 맞물려 박완서 모녀관계의 기본 원리를 마련하기때문이다. 박적골집에서 '나'가 속한 가족의 실질적인 구성원이 할머니, 할아버지였다면 현저동집에서 '나'가 속하게 될 가족은 엄마와 오빠라는 1·2촌관계의 인물들로 구성된다. 그런데 박적골집의 가족에는 실질적인 구성원뿐아니라 심한 복통으로 죽은 아버지, 대처로 떠난 엄마와 오빠가 심리적 구성원으로 포함되는 데 비해 현저동집의 가족에서 실질적 구성원 외에 할머니, 할아버지, 죽은 아버지가 심리적 가족으로 차지하게 되는 비중은 현저하게적게 나타난다.103) '가족'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범위가 다소 축소되는 경향

^{102) &}quot;짐멜은 자신을 바라보는 제3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느꼈을 때 수치심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그는 수치심을 자아가 겪는 분열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만약 자아의 이상에 도달해 완벽하다고 느낀다면 자만 혹은 으쓱거림, 나르시시즘, 노출욕, 자긍심 등으로 이어지는 반면, 위축된 자기 모습을 보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혹은 당혹감은 수치심으로 나타난다. 간단히 말해 수치심을 일으키는 기제는 남들의 이목, 제3자의 눈, 타자의 존재다." 김왕배, 앞의 글, 72~73면.

¹⁰³⁾ 박적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엄마의 긍지로서 존재한다. 가족 구성원이라는 인식보다는 독립된 인생을 살아가되 존재의 근원으로서 막연하게 잡고 있는 믿을 구석의 의미가 강하

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견인하는 '나'의 반응은 떨어져 살던 엄마, 오빠와 같이 살게 된 데서 느끼는 생물학적 가족애라든가 현저동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유일한 보호자인 엄마와의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라는 등의 소위 아이다움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나'는 기차 안에서 엄마가 들려주는 서울과 신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두 가지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엄마의 생각과 다르게 뻗어나감을 느낀다. "서울까지 몇 정거장 남았나를"(33면) 꼽는 손가락이 하나씩 적어짐에 따라서 '나'는 신여성이 하는 일의 "시시"(34면)함을 깨닫는 한편 "그걸 안 하겠다고 할 용기"(같은 면)를 잃어간다.

따라서 기차에서 내려 현저동 꼭대기 집까지 가기 위해 지게꾼과 흥정하는 "도시의 집단 속"(35면)의 엄마가"작고 초라해 보였"(같은 면)을 때, "이유가 분명치 않은 슬픔이 복받치는 걸 느끼"(같은 면)는 '나'의 반응은 기차 안에서 서서히 깨달은 엄마와의 심리적 단절감의 실체를 확인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엄마와의 단절감은 '나'로 하여금 "악착같이 엄마의 다리에 휘감"(같은 면)기게 만드는 불안을 유발하며 서울 생활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모녀관계의 기본 원리가 된다.

마음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여성이 되기 위해 어린 '나'가 견뎌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놀잇감 박탈과 그로 인한 심심함이다. 104) 엄마와 오빠가 먼저 자리잡았던 서울 현저동집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나'에게는 허락되는 일보다 허락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다. 안집 아이와 노는 일, 엄마에게 용돈 1전을 타 구멍가게에 가 국화빵, 알사탕, 박하사

다. "엄마는 툭하면 상것들이란 말을 잘 썼다. (…) 지금의 엄마는 무얼 믿고 저렇게 도도할 수 있는 것일까. 그건 아마 엄마가 배신한 온갖 과수가 있는 후원과 토종국화 덤불이 있는 사랑과, 정결하고 간살 넓은 초가집과 선산과 전답과 그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비록 동풍은 했으되 구학문이 높으신 시아버지가 뒤에 있다고 밎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게 엄마의 긍지라면, 먼저 것은 엄마의 허영이었다."(43~44면), "그날 밤 엄마는 이불 속에서 울면서 시골에다 편지를 썼다."(56면)

^{104) &#}x27;나'가 이 심심함의 와중에 낭떠러지 아래에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어떤 키 큰 아이와 서로의 얼굴 그리기, 성기 그리기를 하는 장면(51~54면)은 흥미로운 데가 있다. 작품 안에서이에 대한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편적인 에피소드로 넘어가는 면이 있지만 여자아이가 동성의 친구와 성기를 그려 보는 몸의 경험에 대해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탕 등 군것질거리를 사 먹는 일, 골목 앞에 나가 동네 아이들과 노는 일들은 모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일들은 어린 아이에게 하루의 즐거움이 될 법한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자기가 머무는 공간의 인프라를 향유하 며 공간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해 본다면 가벼운 일들 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그런데 엄마의 금지령은 집 안에서의 손장난에까지 내려진다. 엄마의 삯 바느질거리에서 떨어진 헝겊을 이어 조각보를 만드는 바느질 장난에 재미가 붙어 "칭찬해줄 만하게 늘었을 때"(48면) 엄마는 '나'의 손재주 있음에 반색 (1-[c])하며 "칭찬은커녕 아예 실과 바늘과 헝겊 보따리를 몰수해"(같은 면)버린다. '나'를 사랑하지만 "자나깨나 집요하리만큼 열심스럽게 나의 행동반경과 교우 범위를 제한할 줄만"(47면) 아는 엄마로 인해 '나'에게 현저동 생활이란 "가혹한 형벌"(같은 면)로 여겨진다.

"학교 보낼 준비"(46면)라는 명분으로 주어지는 글공부 숙제 틈에서 심심함을 이기기 위해 찾아내는 나름의 방법들이 엄마에 의해 지속적으로 금지사항이 되면서 '나'는 심심함이 점차 "나의 생기를 잠식하고 있"(50면)음을 느끼는 것이다. 이때 심심함에 의해 생기를 잠식당한다는 '나'의 자기 진단은 "엄마도 오빠도 얼마나 깊숙이 나의 생기를 잠식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50~51면)는 '나'의 독백으로 인해 가족 모르게 '나' 혼자 앓는 속병처럼 그려진다. 대문 밖 널린 것이 놀잇감이었던 박적골집에서 상상꼭대기의 현저동집으로의 이사는 엄마가 '나'가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겪는 실질적인 계기가 된다.

이 같은 자리에서 박완서가 엄마와 딸 사이에 선험적으로 내재해 있을 것으로 짐작되고는 하는 육친애적 사랑을 부각하는 데 몰두하지 않는다는 점이 선명해진다. 딸인 '나'는 자기 세계를 구축해 가면서 엄마의 세계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동시에 반감과 애정을 느끼고, 엄마는 자식들의 교육 문제를 경유하여 서울의 문안에 생활권을 마련하려는 자기의 소망을 굳게 다지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 일방향적인 관계가 모녀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박완서는 아버지 가장이 없는 모자녀 가족 형태를 일제강점기라는 시간적 배경에서 형상화하는 「엄마의 말뚝 1」통해 어머니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형태가 한국 전쟁이 초래한 역사적 비극의 상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완서 소설 속 남성 가장 부재의 의미를 한국 전쟁이 초래한 역사적 비극성과 연계하는 일반적인 관점으로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 전쟁이 초래한 가족의 남자 구성원들의 죽음과 관련하여 박완서가 주목한 지점은 오히려 아들/오빠의 죽음을 목도하거나 만신창이가되어 돌아온 아들/오빠를 맞이한 어머니/여동생이 이후의 삶을 살아간 방식이다. 죽거나 상해를 입은 남자 가족 구성원은 전통적 가족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방식에서 나아가 이에 대한 여자 가족 구성원들의 생존 반응을 다룬다는 점으로부터 박완서 모녀관계가 독특하게 구성되기 때문이다.

먼저 아들/오빠의 죽음을 목도한 어머니/여동생의 생존을 문제삼은 가장 이른 시기 작품은 1970년 《여성동아》의 여류 장편소설 모집에 당선되고 같은 해 동아일보사에서 출간된 『나목』이다. 『나목』105)은 소설 내적으로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남편/아버지를 잃고 한국 전쟁 중 폭격으로 두 아들/오빠를 잃은 어머니와 딸 '이경'이 그들의 죽음 이후를 살아가는 방식을 그린 소설로, 미8군 PX의 초상화부에서 일하며 화가 '옥희도'와 교류하는 이경이 박완서의 자전적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조명되는 바 있다. 이경이 화가옥희도, 옥희도의 아내, 전기공 '황태수', 미국 병사 '조'와 교류하는 방식과 그 의미는 다음 절에서 면밀히 살필 것이며 여기서는 두 아들/오빠의 죽음이후 어머니와 딸 이경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름으로 인해서 모종의 긴장관계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목』에서 남편/아버지의 죽음과 두 아들/오빠의 죽음은 어머니와 이경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양상에 있어서 대비된다. 아버지의 죽음은 어머니를 슬픔에 잠기게 했지만 그 슬픔은 "어머니 뺨에 자기 뺨을"(283면) 대며 위로하는 아들의 어리광으로 어머니를 "활짝 웃"(같은 면)게 할 만큼의 깊이를 가진다. 이경에게도 "그의 죽음보다는 그 무렵에 겪은 대학 입시의 낙방이 한층 충격적인 것으로 회상"(281면)될 정도의 슬픔을 안겨준다. 예상하지도 대비하지도 못한 아버지의 죽음이지만 가족들과 "더불어 겪을 수 있"(같은 면)

¹⁰⁵⁾ 박완서, 『나목』,(박완서 소설전집 결정판 01), 세계사, 2012. 이하 같은 소설을 인용할 때는 제목과 면수를 밝히되 소설 속 표현을 서술에 직접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면수를 밝힌다. 소설 인용문에 대한 강조 표시는 모두 인용자가 첨가한 것이다.

다는 사실이 "한 가장의 죽음"(같은 면)을 극심한 비극으로 몰아갈 여지를 감쇄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두 아들/오빠의 죽음은 그들의 죽음 이후 어머니와 '나'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 사건으로서 다루어진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포성이 너무도 지척에 들리고 큰길에는 피난민이 넘친다"(284면)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와 큰아버지는 세 명의 "아들들만 피난을 보내"(같은 면) 징용을 면하고자 한다. 그런데 세 명의 아들/오빠들은 "전날 밤 너무 여러 친구집에 들러서 인사도 하고 같이 갈 친구와 합세도 하느라고 그만 한강을 못 건너" 새벽녘 집으로 돌아온다. "아무의 눈에도 안 띄게 살짝 돌아"온 오빠들 중 큰집의 '민이 오빠'는 큰아버지와 집으로 돌아가고, 이경의 두 오빠, 즉 '욱이 오빠'와 '혁이 오빠'는 어머니와 이경이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민청원입네 여맹원입네들의 눈에서 오빠들을 보호하기 위해 용의주도하게"(286면) 마련한 "찬마루 위 천장"(같은 면)를 은신처로 삼아 "은둔 생활"(285면)을 시작하게 된다. 얼마 뒤 큰아버지와민이 오빠도 다시 이경네로 와 몸을 숨기는 일은 한국 전쟁기 수시로 변경되던 가족 경계의 임의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경의 두 오빠의 죽음과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소설의 새로운 진행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2-[a]

우리는 물론 큰아버지와 민이를 감춰주는 것을 **당연한 일**로 알았다. 어머니는 그들의 참담한 몰골을 보고 진작 우리 집으로 오지 않은 것을 거듭거듭 섭섭해할 지경이었다. 여기까지의 내 회상에는 '나'가 없다. '우리'가 있을 뿐이다. 특별히 나라는 개체가 필요없는 가족이란 '우리'를 통해서 사고하고 우리의 애환이 곧 나의 애환이었다. 106)

2-[b]

나는 이리저리 또 하나의 은신처를 궁리하며, 교활하게도 좀 **더 안** 전한 곳을 욱이나 혁이 오빠의 거처로 삼으리라 마음먹었다.¹⁰⁷⁾

^{106) 『}나목』, 289면.

2-[c]

"오빠들을 그리로(행랑채의 벽장으로—인용자) 보내요."

"왜?"

"거기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원 애도……"

어머니는 좀 흠칫하며 민망해하더니 **묵인**하려는 눈치였다. 이 판에 좀 더 자기에게 가까운 육친을 한층 소중하게 꼽으려는 것은 아주 당연했다.¹⁰⁸⁾

위의 세 인용문은 큰아버지와 민이 오빠를 위한 '또 하나의 은신처'를 집안에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이경이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문제가무엇인지 보여준다. 먼저 "몰라보게 야위고, 행색은 영락없는 거지"(288면)가되어 돌아온 큰아버지와 민이 오빠를 '우리' 가족의 경계 내부로 받아들이는일을 '당연'하게 여길 때(2-[al) 어머니와 딸 이경은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친족 집단으로서 가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폭격이 한결 잦아지고 포성이밤낮없이 들리기 시작"(같은 면)들려오는 전시 상황에서 '누구를 더 안전한곳에 숨길 것인가'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당했을 때 그들이 인식하는 가족의 범위는 좁혀진다(2-[bl, [cl). 언제 폭격을 맞이하게 될 지 알 수없는 생존의 위기 상황에서 '더' 안전한곳에 숨겨야 할 사람은 좁은 의미의우리 가족 구성원, 즉 '좀 더' 가까운 육친이라는 판단이 그 정당성을 묻기 검연찍어 '묵인'해 온 한국 전쟁기 우리 민족의 가족사의 일면이라면 『나목』은 바로 그 문제를 돌출시키고 있는 셈이다.

한편 육친의 더 나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두 아들/오빠를 행랑채 벽장에 숨긴 일의 또 하나의 서사적 기능은 큰아버지와 민이 오빠의 방문과 더불어 두 아들/오빠의 죽음을 암시하는 장치로서 마련되었다는 데 있다. 어머니와 딸 이경이 잠자리에 누워 "평화가 오면이란 평범한 서두"(293면)로 시작해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했던 열여섯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려던 그 순간

^{107) 『}나목』, 291면.

^{108) 『}나목』, 292면.

집 어딘가에 "폭탄이나 포탄이 명중"(295면)한다. 이어 "어머니의 얼굴을 더듬"(같은 면)는 "내 손길을 뿌리치고 악을 쓰며 일어"(같은 면)난 어머니가 "마루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같은 면) 맨발로 딛으며 뛰어나가 목격해야 했던 것은 해체된 육체의 처참함이다.

2-[d]

방바닥에 쌓인 흙덩이와 아스러진 기왓장 위에 어머니가 길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고 나는 휑하니 뚫어진 지붕의 커다란 구멍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달빛으로 **처참한 광경**을 또렷이 보았다.

검붉게 물든 홑청, 군데군데 고여 있는 검붉은 선혈, 여기저기 흩어진 고깃덩이들. 어떤 부분은 아직도 삶에 집착하는지 꿈틀꿈틀 단말마의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싱싱한 젊음들이 어쩌면 저렇게 무참히 해체될 수 있을까?109)

2-[e]

나는 악을 쓰려 했으나 목이 콱 막혀 아무런 음향도 이루지 못하고 거듭거듭 몸을 떨며 몸서리를 치며 황급히 도망치려 했으나 발이 휘청거렸다.

휘청거리는 발에 붉은 홑청이 치근하고 감긴다 싶더니, 다시 내 시야 를 온통 붉은 홑청이 뒤덮었다.

나는 **붉은 홑청에 걸려 붉은 홑청으로 온몸을 감은 채 방바닥에 뒹굴 며** 차츰 정신을 잃었다.¹¹⁰⁾

고가 사람들 중 어머니가 최초로 목격한 '처참한 광경'은 이경의 시선으로 묘사(2-[e])되는데 이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묘사 자체에 두 오빠가 부재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그곳에는 홑청에 스며들다 못해 곳곳에 고여 있는 검붉은 선혈(鮮血), 원래는 한 몸을 이루었을 살점들, 그 살점들의 목적 없는 꿈틀거림이 있으며 그것들의 원형이 두 오빠의 육체였다는 사실은 언명되지 않는다. '싱싱한 젊음들이 무참히 해체된 광경'에 대한 이 같은 묘사는 파손된

^{109) 『}나목』, 296면.

^{110) 『}나목』, 같은 면.

육체의 생경함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폭격 당한 이들을 징집 대상이 되었던 청년들로 확대함으로써 어머니와 이경의 혼절에 한국 전쟁기라는 역사적 맥 락을 부여한다.

또한 발에 '치근하고 감'기는 '검붉은 홑청'에 쓰러진 이경이 벗어나려 몸부림칠수록 홑청은 더욱 엉겨들며 전쟁이 초래한 죽음의 기억을 이경의 '온몸'에 새긴다. 이제 전쟁으로 인해 해체된 육체는 그 일이 벌어진 공간의 시간성이 소거된 채 포성(砲聲)과 파열음(破裂音), 검붉은 선혈과 살점이 낭자한광경, 죽은 이의 선혈이 온몸에 감기는 눅진한 감각으로, 영원히 현재인 기억으로 남는다.111) 기억의 주인은 어머니와 딸 이경이며, 기억을 공유한 이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함께 살아간 방식을 조명하는 자리로 『나목』이 나아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이경이 두 아들/오빠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유의미할 정도의 차이가 있어 온정적으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것과, 그럼에도 두 인물이 고가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점이다.112)

이를테면 어머니는 두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 "부연 혼미 상태"(300 면), "아무것도 생각 않는 상태, 완전한 허虛"(218면)의 상태에서 조금도 벗어나려 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어머니의 부연 시선"(127면)은 "삶의 기쁨에의 끈질긴 집념"(182면)이 자기 내면에 있음을 알고 있는 이경에게 "죽지 못해 사는 시늉을 해야 하는 형벌 속에 있다는"(182~183면)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즉 어머니를 감싸고 있는 부연회색빛이 호출하는 죽음의 기억은 "변화"(같은 면)와 "생기"(같은 면)에 굶주려누군가를 "절실히 사랑하고픔을 주체 못하"(221면)는 이경으로 하여금 "어머

¹¹¹⁾ 글을 쓴다는 것은 시간의 부재의 매혹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 고독의 본질에 다가서고 있다. 시간의 부재란 순전히 부정적인 양상이 아니다. (…) 시간의 부재의 시간은 현재(présent)도 없고 현전(présence)도 없다. 이러한 '현재의 없음'은 그렇다고 과거를 가리키지도 않는다. 지난 날은 위엄과 지금의 활력을 지니고 있었다. 기억은 이러한 활력을 여전히 증언하고 있다. 기억은 유난히 나를 떠올리게도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나에게 그것을 자유로이 불러와 현재의 의향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킨다. 이것은 과거로부터의 자유다. 그러나 현재가 없는 것은 더 이상 기억의 현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억은 사건을 두고 말한다. 모리스 블랑쇼(Maurice Blanchot), 『문학의 공간』(L'espace litteraire), 이달승 역, 그린비, 2010. 28면.

¹¹²⁾ 두 아들/오빠의 죽음 이후 어머니와 딸 이경의 정서 및 태도가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복잡한 감정 구조는 다음 절(2.2.)에서 분석하는 주요 내용이다.

니를 미워하면서도 두려워하"(218면)게 만든다.

2-[f]

이 드넓은 고가에 단둘만이 살면서 우리는 애정이라든가 의무로 묶여 있지는 않았다. 차라리 우리는 다 같이 고가의 망령에 들려 있음이 분명했다. 나도 결국 누구 때문도 아닌 채 이곳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113)

2-[g]

누가 뭐래도 **결코 나는 놓여날 수 없는 것이다**. 전전긍긍 전쟁을 기다리며 하루 한 번 한쪽이 달아난 검은 지붕을 경건하게 우리르며, 어머니를 미워하고 김칫국을 마셔야 하는 일에서 **결코 나는 놓여날 수 없는 것이다**. 114)

이경이 부산으로 오면 대학 공부까지 마치게 해주겠다는 큰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이경이 자기와 함께 가 줄 수 있는지 어머니에게 묻지만 어머니는 그럴 수는 없다고 답한다. 어머니의 대답에서 이경은 어머니와 자신이 '고가의 망령'에 묶여 고가를 '떠날 수 없다'고 느낀다(2-[f]). 고가의 망령에 대한 이경의 인식은 소설 곳곳에서 재술되면서 고가에서 '놓여날 수 없는' 모녀의 처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한다(2-[g]). 결국 '고가의 망령'이란 이경과 어머니를 결속하게 하는 고리이자 이경이 고가를 떠나 자기만의 삶을 살아볼 기대를 언제나 미리 좌절시키는 "층층이 얽맨 사슬"(178면)이다. "그 사슬의 시초"(같은 면)란 어머니와 이경이 두 아들/오빠를 더 안전하리라 기대되는 행랑채 벽장에 숨기기로 합의한 일이며, 그 결과로서 해체된 젊음을 목격해야 했던 기억은 모녀 사이가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못하도록 강제하는 긴장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나목』으로부터 3년 후 1973년 7월 《현대문학》 지면에 발표한 「부처님 근처」에서는 모녀를 묶어두는 사슬이 『나목』과 『목마른 계절』에서보다 더욱 실질적인 행위에 의해 마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처님 근처」115)의 '나'

^{113) 『}나목』, 88면.

^{114) 『}나목』, 178~179면.

는 아버지의 22주기 기일을 맞아서야 처음으로 아버지와 오빠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절을 찾는다. '나'는 "한 번 한 번을 오래"(104면) 절하는 "어머니의 조용하지만 절실한 몸짓"(같은 면)을 물러선 채 바라보며한국 전쟁기 모녀가 겪어야 했던 오빠와 아버지의 '떳떳치 못한 욕된 죽음'을 회상한다.

3-[a]

어느 날 늘 찾아 오던 오빠의 '동무'가 총잡이를 앞세우고 찾아왔다. 마당에 마주 선 채 웅얼웅얼 대화가 오고갔다. (중략) 별안간 오빠가 "못 해"하고 악을 썼다. 상대방이 "못 해? 죽인대도?", "죽어도 싫다니까." 목숨은 어처구니없이 조급하게 흥정된 모양이다. 총잡이가 정말 총을 쐈다. 한 방도 아닌 여러 방을, 가슴과 목과 얼굴과 이마에.116)

3-[b]

우리 식구는, 나는 얼마나 소름 끼치게 참혹하고 추악한 죽음을 목도하고 처리해야 했던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산산이 망가진 상체의 살점과 뇌수와 응고된 선혈을 주워모으며 우리 식구는 모질게도 약 한마디안 썼다. 그런 죽음, 반동으로서의 죽음을 당시의 상황으론 극히 떳떳치 못한 욕된 죽음이었으니 곡을 하고 아우성을 칠 계제가 못 됐다. 믿을 만한 인부를 사 쉬쉬 감쪽같이 뒤처리를 했다.

우리는 마치 **새끼를 낳고는 탯덩이를 집어삼키고 구정물까지 싹싹 핥 아먹는 짐승처럼** 앙큼하고 태연하게 **한 죽음을 꼴깍 삼킨 것이었다.**¹¹⁷⁾

3-[c]

세상이 바뀌고 아버지는 원한을 산 사람들의 고발로 잡혀갔다. 1·4 후퇴를 며칠 안 남기고 용케도 풀려나온 아버지는 (중략) 끔찍한 몰골

¹¹⁵⁾ 박완서, 「부처님 근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1), 문학동네. 2013. 이하 같은 소설을 인용할 때는 제목과 면수를 밝히되 소설 속 표현을 서술에 직접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면수를 밝힌다. 소설 인용문에 대한 강조 표시는 모두 인용자가 첨가한 것이다.

^{116) 「}부처님 근처」, 105~106면.

^{117) 「}부처님 근처」, 106면.

로 목숨은 붙어 있어 우리를 피난도 못 가게 서울에 묶어놓았다가, 1·4 후퇴 후의 텅 빈 서울에서 돌아가셨다. 그것은 오빠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차마 눈 뜨곤 볼 수 없는 죽음의 모습이었다.118)

3-[d]

우리는 아버지의 죽음도 감쪽같이 처리했다. 아아, 우리는 이미 그런 일에 능숙해져 있었다. (중략) 서울이 수복되고 나자 빨갱이로서 매 맞아 죽은 아버지의 죽음은 욕되고 수치스런 것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에게까지 그 일을 속이자고 어머니와 나는 공모했다. 공모를 더욱 빈틈없이 하기 위해 우리는 이사까지 갔다.119)

좌익운동에 가담했던 오빠의 '떳떳치 못한 욕된 죽음'(3-[al)과, 그런 오빠의 죽음 이후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주위 사람들의 원한을 산 아버지의 '욕되고 수치스런' 죽음(3-[cl))은 『나목』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바로 살아남은 가족 구성원이 죽음을 처리하는 문제(3-[bl, [dl))이다. 『나목』에서 어머니와 딸 이경은 폭격 당한 두 아들/오빠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 자리에서 혼절한다. 육신의 형체를 잃고 흩어진 잔해들을 누가, 어떻게 수습하였는지 소설은 보여주지 않는다. 「부처님 근처」에서 '상체의살점'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산산이 망가'졌음과 '뇌수'와 '선혈'이 낭자하였음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바는 『나목』에서와 다르지 않다.

다만 「부처님 근처」의 살아남은 자들은 『나목』에서의 비명과 혼절 없이 '악 한마디 안' 쓰고 그 파손된 육체를 '주워모'아 아무도 모르게 죽음을 수습한다. 아버지와 더불어 오빠의 죽음을 함께 수습했던 '나'와 어머니는 얼마후 아버지의 죽음 또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나목』의 모녀가 고가의 망령에 붙잡혀 고가를 떠나지 못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부처님 근처」의 모녀는 죽음을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해 '이사'까지 감행한다. 두 번씩이나, 제가 낳은 새끼를 '집어삼키고 구정물까지 싹싹 핥아먹는 짐승'이 되었던 모녀는 좀처럼 "희미해지지 않"(110면)는 '공모'의 기억을 명치에 체증처럼 간직한 채

^{118) 「}부처님 근처」, 106~107면.

^{119) 「}부처님 근처」, 107면.

망령의 지속적인 "괴롭"(114면)힘과 "간섭"(115면)을 면하지 못한다. "그 뭉클하기도 하고, 뭔가가 철썩 무너져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속이 뒤틀리게 메슥거리기도 하던 그 고약한 느낌"(110면)은 그러므로 "두 죽음을, 두 무서운사상을 (…) 꼴깍 삼켜버렸던"(107면) 모녀가 공유한 공모의 기억의 침전물이다. 한국 전쟁이 남긴 무거운 침전물을 명치께에 간직하고 살아 온 모녀에게가족의 테우리란 욕된 죽음을 함께 수습하였으며 타인에게는 발설할 수 없는비밀을 공유한 서로에게로 좁혀진다.

한편 1971년 7월부터 11월까지《여성동아》지면에「한발기」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목마른 계절』120)은 "'적치赤治 3개월'"121), 즉 "1950년 6월 28일에서 9월 28일까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견뎌야 했던 인민군 통치하 3개월"122)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1951년 5월까지를 소설의 시간적 배경으로 삼는다. 두 달의 이야기를 엮은「11·12월」을 제외하면 각 장이 한 달 단위로 나뉘어 모두 열한 장으로 구성된다. 『목마른 계절』에서 박완서는 아들 '열'이 의용군에 징집된 소식을 전해 듣는 어머니(「8월」), 다리에 총상을 입고돌아온 아들과 재회하는 어머니(「11·12월」), 아들이 인민군 황 소좌에 의해죽는 장면을 가까이서 목도한 충격으로 실성하는 어머니(「5월」)를 그린다.

4-[a]

"역시, 역시 내 예감이 맞았구나. 넌 넌 국방군의 부상한 낙오병이 지? 그렇지?"

까만 총구가 바로 열의 가슴팍을 겨눴다. 서 여사가 매달리고 열이 아니라고 그랬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모자가 악을 썼다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기에는 총구가 너무 가까워 아니라는 악이 고작이었다.

"넌 국방군이야. 넌 내 손에 죽어야 돼. 내 식구도 너희 국방군 놈의 총에 죽었어."

총은 난사됐고 열은 나동그라졌다. 처참한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¹²⁰⁾ 박완서, 『목마른 계절』,(박완서 소설전집 결정판 02), 세계사, 2012. 이하 같은 소설을 인용할 때는 제목과 면수를 밝히되 소설 속 표현을 서술에 직접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면수를 밝힌다. 소설 인용문에 대한 강조 표시는 모두 인용자가 첨가한 것이다.

¹²¹⁾ 정호웅, 「타자의 시선과 맞겨루는 주체」, 박완서, 위의 책, 436면.

¹²²⁾ 위의 글, 같은 면.

서 여사에게 황 소좌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원수를 갚은 것뿐이오."123)

4-[b]

갑희가 밥을 퍼, 제법 깔끔하게 차린 상에 얹어 방에 들여놓을 즈음 서 여사는 그림처럼 돌아왔다. 봉두난발에 옷이고 신발이 흙투성이였다.

"어머니!"

진이와 혜순의 목메인 외침을 서 여사는 전연 듣지 못하는 것 같다. 보지도 못하는 것 같다.

그녀의 감각기관은 꼭꼭 닫혀 있는 것 같다.

갑희는 이런 서 여사를 따뜻한 물로 씻기고 옷을 갑아입혀 밥상 앞에 앉히고 밥까지 퍼먹인다.¹²⁴⁾

4-[c]

집에서는 서 여사가 골방에 갖힌 채 오늘부터 반 평의 땅 대신 며 느리가 그녀에게 안겨준 베개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 다.125)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장면을 목도하고 실성하기에 이르는 어머니의 처지에 대한 묘사는 위 인용문(4-[a]~[c])과 같이 나타난다. 그런데 아들이 징집된 소식을 들은 어머니의 심리적 반응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슬피 울었"(153면) 다는 서술, "며칠이고 계속해 넋이 빠진 듯이 망연히만 있으려 드는 어머니"(284면)라는 서술 정도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신체적 상해를 입고돌아온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서술과 묘사는 딸 '진이'와 며느리 '혜순'의 반응에 비해 표면화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따라서 앞서살핀 『나목』과 비교했을 때 『목마른 계절』에 나타난 어머니 '서 여사'의 고통스럽고 불안한 심리적 반응 및 여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묘사가 양적으로 치밀하지 않고 소략한 수준에 그친다고 할 만하다.

^{123) 『}목마른 계절』, 425면.

^{124) 『}목마른 계절』, 420면.

^{125) 『}목마른 계절』, 434면.

다만 『나목』이 아들의 훼손/파손된 신체 이미지를 죽음과 곧바로 연결한 측면이 있다면, 『목마른 계절』은 "다리의 붕대를 끄르고 관통된 구멍에서 심을 빼내고 새로운 헝겊에 연고를 묻혀 구멍에 집어 넣고 빨아놓은 새 붕대로 다시 다리를 감"(284면)아줘야 하는 불편한 몸으로서 훼손된 신체 이미지를 함께 가져온다. 의용군에 징집되었다가 상해를 입고 돌아온 환자가 있는집이라는 설정은 외부에 대한 가족의 경계(境界, boundary/警戒, guard)를 강화하는 주된 계기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한 가족'이라는 인식이 울타리 안구성원끼리 공유하는 비밀을 중심으로 협소화됨으로써 울타리 밖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심화되는 양상은 한국 전쟁기 모녀관계에 내재한 공모의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즉 모녀관계에 대해 문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박완서가 건져올린 최초의 진실을 그린 것이 『나목』이라면 『목마른 계절』은 모녀를 결속하게 만드는 역사적 계기를 한층 부각하는 자리가 된다.

아들/오빠의 훼손된 신체 이미지는 『목마른 계절』이후 박완서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변주되어 나타난다. 1982년 제5회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엄마의 말뚝 2」에서는 혼란한 정세 속에 의용군으로 자원해 참전했다가 도망쳐 돌아온 아들/오빠가 입은 상해가 정신적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이 눈에 띄게 변주된 지점이다. 「엄마의 말뚝 2」126)에서 장손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는 어느 날 눈을 치우는 장손 '석이 애비'를 도우려 마당으로 나서다가 낙상하여 다리 골절 수술을 받게 된다. 어머니는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한국 전쟁기 아들의 전향 사실을 캐기 위해 수시로 집으로들이닥치던 인민군 군관의 환영(幻影)을 보는 것을 시작으로 시공을 초월한당시의 공포에 다시 한번 사로잡힌다. 수술 후 붕대로 감아 둔 자기 다리를 아들로 여겨 숨기려고 몸부림을 치던 중 링거 줄이 주사 바늘에서 빠지면서 피가 역류한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128면)한다. 마침내 간호원이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사지를 꽁꽁 묶"(129면)은 간호원이 병실을 나간 후 어머니는 "불가사의한 괴력"(같은 면)

¹²⁶⁾ 박완서, 「엄마의 말뚝 2」, 『엄마의 말뚝』(박완서 소설전집 결정판 11), 세계사, 2012. 이하 같은 소설을 인용할 때는 제목과 면수를 밝히되 소설 속 표현을 서술에 직접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면수를 밝힌다. 소설 인용문에 대한 강조 표시는 모두 인용자가 첨가한 것이다.

으로 "다시 길길이 뛰기 시작"(같은 면)하고 '나'는 온몸으로 어머니를 누르며 어머니를 진정시킨다.

한국 전쟁기에 "당한 남다른 참척의 원한을 거의 극복한 것처럼 보였"(130~131면)던 어머니의 내면 깊은 속에 "원한과 저주와 미움이"(131면)이처럼 "격정"(같은 면)의 형태로 "숨겨져 있었"(같은 면)음을 확인한 '나'는 "소리 내어 통곡"(131면)하며 모녀가 함께 간직하고 있는 전쟁의 상흔을 떠올린다. 그것은 한국 전쟁기 오빠의 귀환 및 죽음과 얽힌 "악몽"(129면)이다.

5-[a]

어느날, 기적처럼 아니 흉몽처럼 오빠가 돌아왔다. 그렇게 믿고 기다리던 어머니까지도 감히 오빠를 반기지 못했다. 헐벗고 굶주려 몰골이 흉한 것까지는 예상한 대로였지만 그때 오빠는 이미 속속들이 망가져 있었다. 눈은 잠시도 한군데 머무르지 못하고 희번덕댔고, 심한 불면증으로 몸은 수척했고 피해망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깜짝깜짝 놀라고 사람을 두려워했다. 가족들한테도 전혀 친밀감을 나타낼 줄 몰랐고집에 없는 처자식을 궁금해하거나 보고 싶어 할 줄도 몰랐다. 그동안무슨 일이 그를 그토록 망가뜨렸는지 알아낼 방법은 없었다. 그는 문을 꼭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떠는 심약한 집 보는 어린이처럼 자기를 단단이 폐쇄하고 외부의 모든 것을 배척하려 하고 있었다. 127)

5-[b]

총성이 울렸다. 다리였다. 오빠는 으, 으, 으, 으, 같은 소리밖에 못냈다.

"좋다. 이래도 바른 말을 안 할 테냐? 이래도."

또 총성이 울렸다. 같은 말과 총성이 서너 번이나 되풀이됐다. 잔혹하게도 그 당장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체만 겨냥하고 쏴댔다.

오빠는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기절해 꼬꾸라지고 어머니도 그가 뿌리쳐 나동그라진 자리에서 처절한 외마디 소리만 지르다가 까무라쳤다. 128)

^{127) 「}엄마의 말뚝 2」, 135~136면.

^{128) 「}엄마의 말뚝 2」, 143면.

5-[c]

오빠의 총상은 다 치명상이 아니었는데도 며칠 만에 운명했다. 출혈이 심한 데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며칠 동안에도 오빠의 실어증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며칠 동안의 낭자한 유혈과 하늘에 맺힌 원한을 어찌 잊으랴. 129)

1945년 8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조선이 독립한 이후 좌익운동에 가담했다가 전향한 이력 때문에 인민군 통치하의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을 "극도로불안해"(132면)하던 '나'의 오빠는 이웃의 고발로 끌려가 서게 된 인민 총궐기대회에서 "제일 먼저 의용군을 지원"(133면)했다. 이후 국군의 전세가 기울어 후퇴가 시작되자 얼마 지나 '흉몽'처럼 돌아온 오빠는 "오로지 빨갱이를 피해야겠다는 생각"(136면)으로 피난가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한다. 그러나 '불면증'과 '피해망상'를 겪는 등 극심한 공황 상태 빠진 채인 오빠(5-[a])가, 의용군에서 도망쳐 온 오빠가 경찰서로 찾아가 시민증을 발급받을 가능성은 요원하기만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난 대신 현저동으로 가서 국군이 서울을 수복할 때를 기다리자는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은 것은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생각해 낸 묘안에 '나'의 가족은 "크고 너그러운 품으로의 귀의처럼 조용한 희열"(139면)에 차 현저동으로 간다.

그러나 현저동이라고 해서 피난 가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내사상을 검증하려고 벼르는 인민군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의 가족은 결국 서대문 형무소에 주둔하면서 "매일 아침저녁 굴뚝으로 연기가 오르는 집"(140~141면)을 찾아 방문하는 인민군에게 발각된다. 거듭되는 인민군의 방문을 받으며 "공포와 비굴"(141면)의 시간을 보내던 끝에마지막으로 찾아온 인민군이 오빠의 하체에 여러 번 총격을 가한다(5-[b]). 그 일이 오빠의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어머니와 '나'에게 사무치는 '원한'으로 남는다(5-[c]).

인용문과 더불어 살폈듯이 증언 혹은 회상의 방식으로 한국 전쟁기의 상 흔을 수면 위로 길어 올리는 박완서 소설 중에서도 「엄마의 말뚝 2」가 한국

^{129) 「}엄마의 말뚝 2」, 144면.

전쟁기 가족의 수난사를 그리는 방식은 유달리 담백한 면이 있다. 의용군에서 도망 쳐 돌아온 아들/오빠의 심리적 불안 반응과, 그가 여러 차례 총상을입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바로 곁에서 목도해야 했던 어머니와 '나'의 기억을 주된 사건 중심으로 나열할 뿐 인물들의 참담한 심경 혹은 실질적인 생존 반응을 세밀하게 묘사하지는 않는다. '실어증'에 오빠의 해명 혹은비명이 삼키어졌듯 '나'의 몫의 고통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으로서, 어머니 몫의 고통은 손자를 보고 불도에 귀의하는 것으로서 "덮어 둘 순 있었"(144면)던 악몽 같은 상흔로서 비교적 조용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엄마의 말뚝 2」에서 한국 전쟁기의 상흔은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엄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하고 있다가, 수술 후 마취에서 풀려나는 반각성의 상태에서 걷잡을 수 없는 원한과 저주와 미움의 불길로 표출되는 "모녀만의"(130면) 공감대로서 조명하기 위해 선택된 측면이 있다.

한편 한국 전쟁에 관한 기억을 재소환하여 창작한 「엄마의 말뚝 1」의 내용을 확장하여 1992년 웅진출판에서 펴낸 『그 많던 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엄마의 말뚝 1」의 시간적 배경인 일제강점기 말기를 포함하여 1951년 1월 4일 최후의 후퇴령이 내리던 때까지의 이야기다. 『그 많던 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30)에서 아들/오빠의 상해는 정신·신체적 상해로 중층화되어 나타난다. 이 점에서 「엄마의 말뚝 2」의 화소가 어느 정도 되풀이되는 듯보이지만 위기에 처한 인물들이 주어진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구체적인 반응양상이 앞선 소설보다 치밀하게 나타나기에 중요한 소설이다. 무엇보다 엄마, '나', 올케 즉, 가족의 여자 구성원 사이에 형성되는 결속감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도 『그 많던 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만의 유의미한 가치가 도드라진다. 소설에서 1950년 8월 의용군에 징집되었던 '나'의 오빠는 "첫추위가 몰아치는 가운데 서울 인구가 반 이상 줄"(275면)어들었을 때 비로소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너무도 달라진 오빠의 태도"(276면)에 오빠의 귀향은 "설상가상"(같은 면)이 된다.

¹³⁰⁾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박완서 소설전집 결정판 19), 세계사, 2012. 이하 같은 소설을 인용할 때는 제목과 면수를 밝히되 소설 속 표현을 서술에 직접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면수를 밝힌다. 소설 인용문에 대한 강조 표시는 모두 인용자가 첨가한 것이다.

6-[a]

어떻게 그 몸으로 전선을 돌파하고 먼 길을 걸어 집까지 돌아올 수 있었을까 믿기지 않을 만큼 몸이 못 쓰게 된 건 약과였다. 집에 돌아왔는데도 조금도 기쁜 기색이 없었다. 자기가 없는 동안에 태어난 아들을 보고도 안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그렇다고 무표정한 것하고도 달랐다. 시선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하게 흔들리고, 작은 소리에도 유난스럽게 놀랐다.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은 무슨 소리를 해도 바뀌지 않았다.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도 그를 안정시키진 못했다. 밤에는 바람소리, 쥐 부스럭대는 소리에도 놀라 한잠을 못 잤다. 어디를 어떻게 무슨 꼴을 당하며 왔기에 그 꼴이 되었을까. 죽기를 무릅쓰고 사선을 넘은 무용담도 있으련만 말하지 않았다. 그런 흔적도 안 보였다. 오빠는 심한 피해망상을 앓고 있었다.

기가 막힌 엄마는 울부짖다시피 그동안에 숙부네서 일어난 얘기와 우리가 겪은 고초를 쏟아 놓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소연했다. 엄마로서는 오빠의 닫힌 마음을 두드리려는 충격요법이었겠지만 오히려 피해 망상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어서 피난을 가자고 서둘기 시작했다. 제풀에 놀라 머리 먼저 아무 데나 쑤셔 박고 덜덜떠는 증세까지새로 생겨났다. "어서 가자. 인민군 들어오면 난 죽어. 응 어서 가자."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급박한 분위기만은 정상인보다 더 예민하게 느끼는 듯했다. 안절부절못했다. 온 집안 식구가 더불어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131)

6-[b]

그러나 오빠가 한강다리 건너는 데는 문제가 많았다. 또 그놈의 시민증이 문제였다. 피난민 중에 간첩이 섞여 있을까 봐 도처에서 검문이 심했다. (중략) 의용군 갔다 도망쳐 온 사람을 비록 빨갱이로 몰지는 않는다 해도 시민증을 발급받으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했다. 오빠가 그걸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본인도 그건 싫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시민증은 빨리 내달라고 졸랐다.

^{131)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276~277면.

"어쩌면 나 시민증 하나 그냥 좀 내다줄 빽도 없냐? 우린." 이런 소리까지 부끄러움 없이 했다. 어쩜 우리 오빠가 저렇게까지 비굴해질 수가 있을까. 피해망상의 결과겠지만 비굴은 피해망상보다 더 꼴 보기 싫었다. 안 보고 싶었다.132)

딸인 '나'는 가족과 "운명을 분리시"(275면)켜 혼자만의 피난을 떠나게 하더라도 남은 가족인 "엄마와 올케와 조카들은 오빠와 운명을 같이"(같은 면)하겠다는 엄마의 "중대한 결심"(같은 면)은 아들이 떠나기 전과 같이 가족의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전제한 것이었다. 그런데 돌아온 아들/오빠의 '몸'은 어떻게 전선을 뚫고 도망쳐 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고 정신마저 피폐해져 '피해망상' 증상을 보인다(3-[al). 또한 전에 없이 '비굴'해져 있었다(3-[bl))133).

다같이 피난을 떠나기 위해 시민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라든지, 연년 생 어린 두 아이를 어떻게 건사할 것이며 어떤 식량을 얼마나 챙겨야 할 것인지와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짐"(278면)이 오빠를 제외한 여자 가족구성원들에게 부과된다. 이에 올케가 묘안을 내 오빠가 교사로 근무했던 시골 학교 동료들과 동네 사람들의 협조로 오빠가 도민증을 얻는다. 이제 피난 일만 남은 줄 알았던 '나'의 가족에게 들려온 "최악의 소식"(279면)은 다시 한 번 박완서 소설 속 오빠와 훼손된 몸 이미지를 연결시킨다.

6-[c]

그 무렵 국도 주변의 들판은 밤이면 후퇴하는 UN군과 국군들의 야영장으로 변하곤 했는데 큰 건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중에는 국민방위군과 합쳐졌지만 당시에는 청년방위군이라는 게 있었는데 국군과는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아무튼 무장도 하고 전투도 하고 후퇴도 하는 중이었다. 그 청년방위군이 마친 그 학교에 주둔하게 되었고, 숙직식에 머물던 오빠는 따뜻한 구들목을 찾는 장교와 같이 자게 된모양이었다. 아침나절 총기를 분해해 점검하던 사병이 잘못해서 총알

^{132)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277~278면.

^{133) 「}엄마의 말뚝 2」에서 더 적나라하게 묘사된다. "야아, 너 빽 있는 놈 하나 물어서 이 오빠 좀 살려주면 안 되니? 누이 좋다는 게 뭐냐?"(137~138면)

앞서 보았던 『목마른 계절』에서 진이의 오빠는 의용군으로 징집되었다가 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로 돌아오는 데 비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 을까』에서 '나'의 오빠는 도민증을 발급받고 가족과 함께 피난을 떠나기 위 해 준비하던 과정에서 사고로 다리에 총상을 입는다(6-[c]). 『목마른 계절』에 서 아들의 훼손된 몸에 대한 어머니 서 여사의 심리적 반응이 단적으로 드 러나지 않은 것처럼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도 "다량의 출혈 로 창백해진"(279면) 모습을 마주한 당시 엄마의 심리적 반응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가족 구성원의 안위와 관련한 중요한 결단을 내리 는 인물이 바로 '나'의 엄마로 그려진다. 엄마는 의사가 '나'의 가족에게 치 료법을 알려주고 피난을 떠난 후 병원에 남겨진 지 사나흘 만에 1.4후퇴령 이 내려졌을 때 가족을 대표해 피난을 강행하기로 결심한다. 또한 '나'가 오 빠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엄마와 올케가 아이 하나씩을 업고 보따리 짐을 이고 들고 떠난 피난길에서 가족들이 지쳤을 때 "'조금만 더 가자, 으응 조 금만 더.""하며 "무자비하게 다그"치기도 하고, 이 피난을 '가짜 피난'으로 삼아 현저동으로 가자는 계략을 "차분하고 조리 있"게 제안 것 역시 엄마 다.(281면)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소설의 말미에 이르면 '나'의 가족은 엄마의 결단력 있는 지휘에 따라 예전에 신세를 진 적 있는 현저동의 어느 집에서 가짜 피난살이를 한다. 사람들이 떠나고 모든 집이 텅 빈 채 자물쇠로 잠겨 있는 도시에 '나'의 가족만 남게 되는 고립된 한 가족의 이미지는 신체·정신적 상해를 입은 아들의 부자유함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엄마의 말뚝 2」에서 소설화된 바 있는 화소들이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는 한편 한국 전쟁기 피난사에서의 어머니-여성의 역할이 부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지점은 텅 빈 현저동에 고립되어 있는 '나'가 가족을 지칭하는 '우리'라는 단어의 쓰임이

^{134)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279면.

다. 박완서는 소설을 마무리하는 네 페이지 남짓한 지면(281~283면)에서 '우리'에 포함되는 가족 구성원을 탄력적으로 변경한다.

6-[d]

우리가 가짜 피난지로 정한 동네는 현저동이었다. (중략) 층층다리를 통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좀 돌게 돼 있었지만 손수레 때문에 그 길을 택했다. 마지막 피난민이 드문드문 맹수에 놀란 토끼처럼 화들짝 뛰어내리는 길을 거슬러 우리는 숨 가쁘게 새로운 피난처에 도착했다.135)

6-[e]

엄마가 점찍어 놓은 집은 숙부네 옥바라지할 때도 신세진 일이 있는 바로 그 집이었다. 그 집도 피난을 떠나고 집이 잠겨 있었다. 그러나 허술한 집일수록 자물쇠도 허술한 법이어서 ③우리는 힘을 합해 아예 문고리째 낚아챘다. (중략) ⑥우리는 먼저 양식이 있을 만한 데를 뒤졌다.

©우리가 가진 양식은 너무 적었고 어느 세상에서나 목구멍은 포도 청이었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짓에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중략) 군불도 뜨끈뜨끈하게 지폈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건덕지가 없을 지경까지 몰렸을 때의 평화로움 안에서 @우리는 깊은 숙면에 빠졌다.136)

'나'의 가족이 가짜 피난지인 현저동으로 이동하고 도착하는 순간의 장면 (6-[d])에서 '우리'는 함께 피난길에 오른 전체 가족 즉, 엄마, '나', 오빠, 올 케, 두 아이를 지칭한다. 이때 '나'의 오빠는 '나'가 끄는 손수레에 실린 채이고, 두 아이는 엄마와 올케에게 하나씩 업혀 있다. 이들은 "한 운명의 줄"(278면)로 묶여 삶과 죽음,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가족을 의미한다.

한편 현저동에 있는 동안 머물기로 한 집에 도착한 이후를 그린 장면

^{135)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281면.

^{136)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281~282면. 원문자(⑦~⑩)는 서술의 혼란을 줄이 고자 인용자가 첨가하였다.

(6-[e])에서 '우리'의 쓰임은 크게 두 가지다. '우리'(⑤, ⑥, ⑧, ⑩)는 엄마, '나', 올케를 지칭하고 '우리'(⑥, ⑪)는 엄마, '나', 오빠, 올케, 두 아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해당 장면에서 각각의 '우리'가 행하는 행위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우리'(①, ②, ⑩)의 행위는 힘을 합해 문고리를 낚아챈 것과, 양식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뒤진 것이다. '나'의 가족은 오빠가 총상을 입은 지 "사나흘 만에"(280면) 내린 1·4후퇴령으로 피난길을 떠났으므로 오빠가 입은 상처는 문고리를 낚아채거나 집안을 뒤질 만큼 아물지 않았다고 봄이 적절하다. 또한 오빠가 의용군에 징집되었던 8월로부터 한 달여 만에 올케가 둘째를 출산하였음을 고려하면 둘째는 생후 4개월 남짓의 신생아다. 두 아이가 연년생이므로 힘껏 대문을 열고 양식을 찾아 집을 샅샅이 뒤진 '우리'에서 아이들이 제외된다. 빈 집에 무력으로 침입해 음식을 찾아 집안을 헤집는 행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느끼지 않을 주체는 이 같은 행위를 한 당사자이므로 '우리'(②)는 '우리'(①, ②, ⑩)와 같다.

이에 비해 '우리'(ⓒ,⑭)에는 오빠와 아이들이 다시 포함된다. 가진 양식이 너무나 적어 생존이 급박한 처지는 함께 피난길에 오른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상황이다. 또한 남겨진 찬밥이나마 배불리 먹고 불을 때운 방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지는 데 누군가 제외될 까닭이 없다. 정리하자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에 대하여는 엄마, '나', 오빠, 올케, 두 아이가 같은 운명을 공유한 한 가족으로 인식되는 한편 현실적인 문제에 닥쳐 거처를 마련하고 식량을 구하는 활동에 있어서는 엄마, '나', 올케 즉, 가족의 여자 구성원 사이에 결속감이 형성된다.137)

지금까지 『나목』, 「부처님 근처」, 『목마른 계절』, 「엄마의 말뚝 2」,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통해 살펴 보았듯이 박완서 소설에서 아들

¹³⁷⁾ 박완서의 전쟁 의식이 잘 드러나는 소설 『목마른 계절』역시 한국 전쟁기 가족 경계가 변경/축소된 양상을 잘 보여준다. 『목마른 계절』에서는 엄마, 진이, 오빠 열, 올케 혜순으로 구성되었던 한 가족이 엄마와 오빠 열, 진이와 올케 혜순으로 나누어져 더욱 축소된 가족 형태가 나타난다. 특히 진이와 혜순이 피난 중에 느끼는 텅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울타리 바깥 사람들에 대한 본능적 그리움과 두려움을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심리적 반응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아주 사람 없는 빈 동네는 적적해서 두려웠고 사람이 남아 있는 동네는 사람의 눈이 두려웠다." 『목마른 계절』, 380면.)

의 신체·정신적 상해와 죽음은 가족 구성원으로 하여금 생존에 대한 불안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사건으로서 가족 밖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을 추동하는 요인이 된다. 그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사결정 역할이 모녀를 포함한 여자 가족 구성원에게 압도적으로 부과되는 계기가된다. 따라서 한국 전쟁기의 모녀관계를 다룬 박완서의 첫 소설『나목』에서어머니는 전통적 가부장제의 수호자이며「엄마의 말뚝 2」과『그 산이 정말거기 있었을까』라는 두 번의 전쟁 체험 다시쓰기를 거쳐 극복되는 대상으로보는 관점138)은 박완서 모녀 서사가 이룬 문학적 성취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무엇보다 죽어가는/죽어서 파손된 자식의 육체의 생경함을 목도해야 했던 어머니의 충격과 그로 인한 심리적 공황에 공감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죽음 이후 부연 회색빛 속에 살아가는 어머니를 가부장제를 수호하는 인물상이라고 비판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박완서 소설에서 한 가족이라고 인식되는 경계는 실질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는 점이 박완서 모녀의 결속 관계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박완서 소설 속 모녀 유대감의 근원은 동성의 혈연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연적으로 수행하리라 기대되는 동일시에 의해서가 아니다. 모녀의 결속은 한국전쟁기 살아남은 자로서의 죄책감을 공유하는 한편 생존의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분투하였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위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박완서의 모녀 서사가 돌출시킨다. 물론 이렇게 발생한 모녀의 결속감이 부동의 확고함을 특성으로 하지는 않는다. 아들/오빠의 상해와 죽음을 화두로 결속했던 모녀는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맞이한다. 이제 생계 유지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박완서가 그린 한국 전쟁기 모녀 서사에서 딸에게 지워지는 생계 유지의 책임은 딸로 하여금 자기가 부양해야 하는 어머니를 향한 복잡한 감정을 자각하도록 추동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뻗어나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은 딸로 하여금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도록 부추긴다. 이에 대해 다음 절에서 살핀다.

¹³⁸⁾ 이선옥, 「전쟁기 모성체험의 다시쓰기 - 박완서론」, 『한국 소설과 페미니즘』, 예림기획, 2002, 193~210면.

2.2. 자기애 발견으로 선회하는 딸의 서사

박완서가 한국 전쟁기를 그린 첫 소설이라는 점에서 『나목』의 모녀 관계는 박완서 모녀 서사의 맹아로서 분석되고는 한다. 즉 딸 이경은 어머니로 표상되는 부연 회색빛과 대비되는 다채로운 빛깔의 생활을 추구하면서 어머니와 끊임없는 정서적 경합을 벌인다는 설명이다. 139) 이 같은 관점으로 보면 어머니의 법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딸이 자각하는 죄책감이란 어머니-여성의 타자성과의 동일시를 통해 어머니를 이해하도록 이끄는 요인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국 전쟁기를 통과하면서 표출하게 되는 무기력함, 즉 생존 혹은 죽음에 대한 욕구가 말소되는 양상을 여성의 타자성이라고 보는 근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은 미진하다. 설령 그 근거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딸이 어머니와 자기를 동일시함으로써 자아를 성찰한다는 여성의 성장 모델이 모녀가 성별에 따른 사회·생물학적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 그러니까 '같은' 여성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기대어 있다는 데서 논의의 한계점이 여전히 노출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박완서 소설 속 딸이 자각하는 정서적 반응으로서의 죄책감이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기보다 어머니를 의식한 죄책감이기도 하다.

1-[a]

나는 두려운 것이 오기를 두려워하며 기다렸다. 그의 숨결이 주저하며, 그러나 어김없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고개를 젖히고 그의숨결을 받아들이기 전에 높이 솟은 성당의 첨탑을 보았다. 그러자 언젠가 이 앞에서 잊었던 시의 한 구절이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느 틈에 나는 한숨을 뱉듯이 그것들을 띄엄띄엄 읊조리고 있었다.

-마리아, 당신만은 우리게에 자비로우셔야 해요. 당신의 핏줄로

¹³⁹⁾ 우현주, 「어머니의 법과 로고스(logos)의 세계 -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엄마의 말뚝 1」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No.49,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177~203면이 대표적이다.

태어난 우리올시다. 동경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가를 당신이 아니고 서야 누가 알기나 하오리까—140)

1-[b]

"너의 어머닌 이미 이 고가의 일부야. 그것이 그분의 가장 편한 처신이라면 우린들 어쩌겠니? 그렇지만 너까지 이 고가의 일부이기에는 너는 너무도 젋고 발랄하다. 그러니 어머니에 대한 의무에 너를 얽매지 말란 말이다."

"그럼 엄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머닌 아직은 신체상으로 정정하시구……."

그는 느닷없이 정정한 걸 신체상으로 국한시키고, 난 그게 듣기에 심히 못마땅했다.

" (전략) 아무튼 그곳에선 좀 더 **화안한 생활**을 찾을 수 있을 거 야."

그는 '화안한'을 어쩌면 그렇게 풍부한 감정을 곁들여, 고혹적으로 발음을 하는지 나는 단박에 가슴이 울렁거려왔다. **빛과 기쁨이 있는 생활에의 갈망**이 세차게 고개를 들었다. ¹⁴¹⁾

1-[c]

누가 뭐래도 **결코 나는 놓여날 수가 없는 것이다**. 전전긍긍 전쟁을 기다리며 하루 한 번 한쪽이 달아난 검은 지붕을 경건하게 우러르며, 어머니를 미워하고 김칫국을 마셔야 하는 일에서 **결코 나는 놓여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새삼 나를 충충이 얽맨 사슬을 느꼈다. 그 사슬의 시초가 궁금했다. (중략) 그러나 난 두려웠다. 그 시초를 보기가. 난 그 시초를 결코 망각한 게 아니라 교묘하게 피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142)

위의 세 인용문은 두 오빠의 죽음 이후 삶을 살아가는 이경이 겪는 정서 적 혼란의 양상과 원인을 잘 보여준다. 먼저 미8군 PX의 초상화부 화가 옥

^{140) 『}나목』, 168~169면.

^{141) 『}나목』, 177면.

^{142) 『}나목』, 178~179면.

희도와의 관계가 인간적 친밀함에서 애정으로 전이되는 장면(1-[a])에서 이경은 자신의 심장이 "별개의 생동하는 생물이 되어 자신을 가두고 있는 늑골을 박차고 튀어나올 듯한"(168면) 신체의 격앙 상태를 "위기"(같은 면)로, 그 결과로 자신에게 도래할 감정을 '두려운 것'으로 해석한다. 타인과의 애정어린신체 접촉에 대한 기대감에서 시작된 심장의 격렬한 운동은 살아 있다는 사실을 물리적으로 자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경에게는 대비해야 할 위기이자경계해야 할 두려움이다.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일에는 죽은 두 오빠와, 그들의 죽음을 그림자처럼 드리우고 살아가는 고가의 어머니에 대한 "배신의가능성이 배어 있"143)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경은 '높이 솟은 성당의 첨탑'을 바라보며 온몸으로 느껴지는 생명의 기운을 회개한다.144)

그런데 그날 밤 집으로 찾아온 큰집의 진이 오빠로 인해 '빛과 기쁨이 있는 생활'에의 갈망은 또 한번 실감된다(1-[b]). 이경을 데리고 오라는 큰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온 진이 오빠는 이경이 고가를 떠나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란 "가장을 잃은 작은댁 돌보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173면)는 큰아버지의 위선에 동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경이 "어머니로부터, 그 다음은이 음산한 고가로부터 자유로워져야"(176면)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어머니의 부유하는 듯한 공황 상태를 병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그의 태도에 심기가불편해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진이 오빠가 발음하는 '화안한 생활'이라는 말은 활력 있는 생활에 대한 이경의 동경을 자극할 만큼 매혹적이다.

그러나 "새롭고 환한 생활에의 동경과 지금 이대로에서 조금도 비켜설 수 없으리라는 숙명 사이"(178면)의 갈등을 자신이 결코 통과해낼 수 없음을 생각하는 이경은 고가의 일부가 된 어머니와 운명을 분리하기를 단념한다 (1-[c]). 이경이 직면하기를 피하려고 하지만 어머니와 자신을 '층층이 얽맨사슬'의 정체란 두 오빠/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경 자신도 알고 있다. 따

¹⁴³⁾ 캐럴라인 냅(Caroline Knapp), 『욕구들 - 여자들은 왜 원하는가』(*Why Women Want*), 정지인 옮김, 북하우스, 2021, 143면.

¹⁴⁴⁾ 다른 날 옥희도와 다시 성당 아래 섰을 때 이경이 회개하기를 포기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나는 고개를 젖혀서 성당의 첨탑을 보려 했으나 아주 못생긴 모난 집들이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 그 네모난 지붕이 도저히 나에게 잊어버린 시의 구절, 그의 열기를 식힐 수있는 시의 구절을 상기시키지는 못할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열기 앞에 전혀 무방비 상태인채 그의 광포한, 그리고 못 견디게 슬픈 몸집에 유순하게 나를 맡겼다."『나목』, 212면.

라서 이경이 진이 오빠에게 망설임 없이 건넨 "'안 가겠어요""(179면)라는 대답은 기실 사슬로 얽혀 있는 어머니와의 공동의 운명을 의식한 죄책감의 발로인 셈이다. 젊음에 어울리는 '화안한 생활'을 상기시키는 제3자의 개입으로 모녀의 사슬이 무의미해질 위협을 느낄 때 이경은 "그의 오만을 모멸로써 뭉개고 싶"(180면)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1-[d]

저도 6·25 땐 도망을 쳤겠지. 우리를 그 몸서리치는 살벌과 잔혹의 지배하에 동댕이쳐놓고 비실비실 도망친 주제에 **남아서 온갖 것을 인내하고 감수한 끝에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앓는 우리**를 아주 불쌍한 듯이 보다니, 아니꼽게. 별꼴이야 별꼴이야. 저까짓 게 뭐라구. 여자와 망령밖에 없는 집이라구 업신여기구. (중략) 비겁한 새끼. 도망병. 누가 모를 줄 알구.145)

이경의 완강한 거절에 진이 오빠는 "'너마저 미치고 싶니?""(181면)라는 마지막 한마디로 '남아서 온갖 것을 인내하고 감수한 끝에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앓는' 모녀의 곤란을 폄훼한다. 그런 진이 오빠를 '도망병'으로 치부하는 이경에 의해 두 아들/오빠의 죽음과 관련한 온갖 기억은 다시 한번 모녀만의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운명의 사슬에 대한 딸 이경의 양가적인 감정이야말로 박완서 모녀 서사의 원형이라고 할 만하다. 여기서 고가와고가 밖 세상의 대비가 중요해진다. 고가는 "죽지 못해 사는 시늉을 해야 하는 형벌"(182~183면)을 치르는 공간이라면 고가의 바깥은 두려움의 형태로라도 "삶의 기쁨에의 끈질긴 집념"(182면)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한 고가 밖 세상에서 불현듯 운명의 사슬을 실감하게 될 때면 이경은모멸을 느끼고 "어떡하면 가끔 가끔 엄마의 딸이 되기를 그만둘 수 있을까"(217면)를 고민한다.

서로의 집으로 가는 갈림길에 선 옥희도가 이경에게 어머니가 기다릴 테니 어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와락 모멸을 느끼고 쏜살같이"(217면) 집으로 돌아온 이경이 어머니에게 의치(틀니)를 다시 사용할 것을 권하는 장면에서는

^{145) 『}나목』, 182면.

두 오빠의 죽음 이후 삶에 대한 이경의 혼란이 나타난다. 어머니가 죽음의 그림자를 휘장처럼 두르고 어떠한 생명의 표식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이 전 쟁 체험으로 인한 후유증 때문임을 알고 있지만 그러한 "완전한 허虛"(218면) 의 상태를 이경은 "미워하면서도 두려워"(같은 면)한다.

1-[e]

나는 어머니의 식사하는 모습, 특히 저작(咀嚼)하는 추한 입 모양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손질 안 한 회색빛 머리가 이마며 귓바퀴에 함부로 늘어져 있으나 얼굴에는 별로 주름이 없는 대신 잘다란 주름이의치를 빼놓은 입술 둘레에 모여 입술을 보기 싫게, 마치 잘못 꿰맨 상처 자국처럼 닫아놓고 있었다. 146)

1-[f]

어머니는 아직도 느리게 간간이 양은그릇 부딪치는 소리를 내가며 설음질하고, 나는 어머니가 설음질을 하며 띠고 있을 엷은 비웃음을 보 는 것 같아 내 머리를 마구 쥐어뜯다가 내 방으로 가서 뒹굴었다.

아무리 뒹굴어도 나는 내가 이 드넓은 고가, 한쪽 날개를 잃은 **흉** 가에서 **완전히 혼자 살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덜 수는 없었다. ¹⁴⁷⁾

딸 이경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머니의 텅 빈 상태이다. 이 점은 식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하여, 의치 없이 음식을 씹는 어머니의 움직이는 입을 클로즈업하는 장면(1-[e])에서 시각적으로 형상화된다. 어머니의 식사 장면에는 수저와 그릇이 부딪치는 경쾌한 소리나 허기를 채우는 포만감에 대한 묘사는 소거되어 있다. 의치 없이 저작하는 어머니의 입이 '잘못 꿰맨상처 자국처럼' 닫힌 채로 조용히 움직일 뿐이다. 이경에게 어머니의 의치는 두 오빠의 죽음 전과 후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하나의 경계물이며 의치를 끼지 않은 어머니의 입은 두 오빠의 죽음을 매순간 새롭게 상기시킨다. 따라서 이경이 어머니에게 예전처럼 의치를 낄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그때하고 지금하고"(219면)의 차이를 무화함으로써 어머니가 "생활의 냄새"(220면)를 회

^{146) 『}나목』, 218면.

^{147) 『}나목』, 221면.

복하기를 바라는 딸의 소망을 내포한다. "의치는 어머니가 미련없이 내다버린 쓸모없는 쓰레기의 일부였음"(221면)을 깨닫고 서랍 뒤지는 일을 "아주단념"(220면)하고서 어머니의 '비웃음'을 상상할 때(1-[f]) 이경이 빠져드는 감정은 죽음의 그림자에 잠식당하면서도 벗어나려 발버둥치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다. 고가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던 이경은 자신이 '완전히혼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품게 되고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흉가'가된다.

이처럼 어머니를 딸이 극복해야 할 대상인 가부장제의 수호신이라고 보는 관점¹⁴⁸⁾으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없는 중요한 지점들이 박완서 소설 속 모녀 관계에 있다. 『나목』에서 드러나듯 어머니에 대한 딸의 이해와 반목은 어머니에게 이양된 가부장제의 상징적 권력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보다, 중요한 타인인 어머니로부터 자기의 가치 있음을 확인하려는 심리·인지적 분투의 소산이다. 박완서는 여러 소설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행위를 중심으로 어머니에 대한 딸의 정서적 반응을 다층화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피난 시기 딸-여성에게 부과되는 가족 생계유지의 책무와 관련한 문제다.

박완서 소설 속 피난이 대체로 이웃과 인민군의 눈을 속이는 가짜 피난이라는 점에서 피난기 가족 구성원의 생계 유지의 문제는 그 자체로 조심스럽고 비밀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거동과 사유가 부자유한 오빠와, 그런 아들을 아이 보듯 돌보는 어머니가 가족의 생계 유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않는 상황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은 딸과 며느리에게 부과된다. 가족이 먹을 음식을 구하는 일은 '빈집털이'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수행하는 딸의 심리적 반응이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으로 연결되는 자리에서 박완서 모녀 관계가한층 복잡해진다. 여자 구성원 중심으로 축소된 가족의 가짜 피난 생활이 딸과 며느리의 빈집털이로 유지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가장 이른 시기 소설은 『목마른 계절』이지만 가족 부양의 책무를 온전히 떠안을 것을 예감하는 딸의부담감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최초로 다루어진다. 『그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최초로 다루어진다. 『그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최초로 다루어진다. 『그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최초로 다루어진다. 『그

¹⁴⁸⁾ 우현주, 앞의 글.

징집된 오빠가 돌아오지 않아 차마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다가 "첫추위가 몰아치는 가운데 서울 인구가 반 이상 줄자 엄마는 중대한 결심을"(275면) 한다. 딸인 '나' 혼자라도 피난 짐을 싸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오빠와 운명을 같이"(같은 면)하겠다는 암묵적인 결심의 선언이자 마침내 '나'의 운명을 "가족의운명과 분리"(277면)해도 좋다는 독립에의 허락이었다. 한편으로는 영이별을 뜻하기도 하는 엄마의 결단에 "설움"(275면)이 북받치는 것과 별개로, '나'가떠나기 전 돌아온 오빠로 인해 혼자만의 피난이 취소되자 피난에 대한 '나'의 갈망은 더욱 커진다. 돌아온 오빠를 포함한 '나'의 가족이 다같이 피난을 떠나기 위하여는 오빠의 신분을 보증할 시민증이 필요했지만 "심한 피해망상"(276면)과 불안 증세를 보이는 오빠가 "까다로운 심사"(277면)를 견뎌내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올케는 오빠가 의용군에 징집되기 전 근무했던 시골 학교 동료 "교사들의 소박한 사람됨과 시골에서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278면)에 호소하여 오빠의 도민증을 마련한다.

2-[a]

피난을 하도 벼르고 부러워했기 때문에 도무지 고생길이란 생각이 안 들었다. 강 건너, 산 넘고, 들 지나 우리도 마침내 피난을 가게 됐다는 게 꿈같이 그저 즐겁기만 했다. 연년생 두 아이를 어떻게 건사해야 얼어 죽이지 않을것이며, 무엇을 어느만큼 어떻게 가지고 가야 우리 식구가 굶어 죽지 않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은 문제가 조금도 걱정이 안 됐다. 사실 그런 현실적인 짐은 몽땅 내 몫인데도 한강다리만 건너면 모든 문제를 떠맡고 안식을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덮어놓고 부풀었다. 149)

2-[b]

병원 뒤뜰에 부실하지만 손수레가 하나 남아 있는 걸 봐두고 있었다. 차를 얻어 탈 수 있는 건 소수의 혜택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다 진즉 떴고, 나중판에는 널빤지에다 바퀴만 달아 손수레를 만들어서 아이나 긴요한 짐을 싣는 게 유행처럼 돼 있었다. 십중팔구는

^{149)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278면.

부실해서 버리고 떠났을 손수레에다 오빠를 실었다. 엄마하고 올케는 아이를 하나씩 업고 보따리를 이고 들었으니 **손수레는 내 몫이었다. 내 짐은 천근이었다.**¹⁵⁰⁾

2-[c]

새날이 밝았다. 오빠가 오래간만에 잘 잤노라고 기지개를 폈다. 나는 앞으로 후퇴한 정부가 수복됐을 때 생각만 하고, 당장 당면한 또 바뀐 세상엔 어떻게 대처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대책이 없는 식구들이 답답하고 짐스러웠다. 오빠를 손수레에서 내려놨다고 해서 내 짐이 가벼워진 건 아니었다. 151)

2-[d]

다닥다닥 붙은 빈집들이 식량으로 보였다. 집집마다 설마 밀가루 몇 줌, 보리쌀 한두 됫박쯤 없을라구. 나는 벌써 빈집을 털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도 겁나지 않았다. 152)

피난을 떠나기 전(1-[al), 피난길(1-[bl), 가짜 피난처(현저동)에 도착한 다음날(1-[cl, [dl)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나'의 심경이 위의 네 장면에서 잘 나타난다. 이때 '나'가 문밖으로 나가 동네를 내려다보며 빈집털이를 구상하는 것으로 맺어지는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결말은 의미심장하다. '목구멍이 포도청'은 "지하운동"(225면)을 청산하고 중학교 국어교사로 취직한 오빠가 월급과 함께 타온 한 달치의 쌀을 받아 저장할 때면오빠의 전향에 미련을 두는 엄마가 어두운 얼굴로 내뱉던 말이다(228면). 그러나 '나'가 빈집털이를 계획하는 장면에서 먹고사는 문제는 더이상 사상에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생존에 관련한 문제로 전환된다.

박완서 소설 속 딸들의 야무진 생활력은 『목마른 계절』의 진이가 오빠 열이 의용군으로 징집된 사실을 알게 된 장면에서 일찍이 강조된 바 있다. 올케 혜순은 이 사실을 어머니 서 여사에게 알리지 말자고 제안하지만 진이는

^{150)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280면.

^{151)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282면.

^{152)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283면.

"차분히 그러나 냉담하고 간결하게"(153면) 오빠의 소식을 전한다. 아들의 징 집 사실을 듣고 비탄에 빠져 "며칠이고 계속해 넋이 빠진 듯이 망연히만 있 으려 드는"(153면) 어머니 서 여사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이 비탄이나 비 탄에의 위무가 아닌 '생활'이라는 걸"(같은 면) 깨닫고 먹을 것을 구하는 일에 몰두하는 진이의 "냉엄한 생활의 자세"(같은 면)가 대비되는 장면으로부터 피 난기 여성 가장으로서 딸의 역할을 서사화하는 박완서의 작업이 출발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 전쟁기를 다룬 박완서 소설 속 딸은 "집안 식구를 굶기지 않아야지 하는 강박관념"(154면)으로 "먹는 걸 마련"(153면)하 는 여성 가장의 모습으로서 등장한다. 이러한 여성 가장으로서 딸의 책무는 징집되었던 오빠가 돌아온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는다. 몸과 정신이 피폐해진 채 돌아온 오빠는 생활에의 책무를 나눠 질 수 있는 인물이기보다 먹이고 보살펴야 하는 또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가짜 피난지에서 딸들은 달밤에 도둑질을 나간다. 즉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나'가 계획한 빈집털이를 『목마른 계절』에서 진이와 올케 혜순이,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서 '나'와 올케가 실행한다. 두 소설 모두 정식으로 피 난을 가지 못한 채 임시로 마련한 거처에서 생활하는 어머니, 딸, 며느리, 아들, 조카들이 딸과 며느리에게 생계를 의탁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상황을 그리지만 빈집털이를 통해 드러나는 인물의 정서적 반응 양상에는 차이가 있 다.

먼저 『목마른 계절』은 가짜 피난지에서의 빈집털이가 나타난 가장 이른 소설이자 빈집털이의 의미가 변주되는 양상을 흥미롭게 제시한다. 총상을 입은 오빠 열을 바퀴가 성하지 않은 손수레에 싣고 어머니, 올케와 피난길에 오른 진이는 드디어 자신도 피난 대열에 합류했다는, "타인과의 일치감이 주는 순수한 기쁨"(278면)에 도취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사람의 물결에서 뒤지기 시작"(같은 면)한다. 결국 손수레 끌기를 멈추고 쓰러져 있던 진이와 가족들은 열의 동료 교사였던 '정 선생'의 도움으로 당분간 지낼 피난처를 구하고, 진이는 그곳에서 "가짜 피난"(282면)을 지내다가 서울이 수복되면 돈암동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운다. 당장 닥쳐 있는 문제는 사람들이 떠난 동네에 숨어 지내는 와중에 먹을 거리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에 진이와 올케

혜순은 빈집털이를 꾀한다.

3-[a]

"도둑질을 나갑시다. 오늘밤에라도."

"도둑질 늦었어요. 저 아래 웬만한 집들은 인민군들이 벌써 다 해먹은 걸요. (중략) 뭐 먹을 것이 남아있을 게 뭐예요. 녀석들 지껄이는 소리 못 들었어요? (중략) 보급공작 나갑시다 하고 떼로 몰려다니며 도둑질을 해댄 끝에 웬 우리 먹을 게 남았을라구요."

"보급공작? 근사한데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름이라도 그 럴듯하게 붙이고 볼 거예요. 도둑질보다 훨씬 듣기에 편하군요. 그럼 우리도 떳떳이 보급공작 나갑시다. (중략) 이 산 위에도 집이 있습니 다. 형편없는 판잣집들이 꽤 많이 다닥다닥 붙었던데. 올라가기가 망 한 게 힘이지만."

"그까짓 하꼬방에 무슨 먹을 게 남아 있겠다고."

"모르는 소리예요. 웬만큼 사는 집들은 미리 서둘어 계획을 세워 피난을 갔으니까 양식은 남겨 놨을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루 벌어하루 먹는 이들이야 어떡허든 피난을 안 가고 버텨볼까 하다가 후퇴령이 내리고 나서 엉겁결에 떠났을 게 아녜요? 하다못해 잡곡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럴 것 같군요. 그렇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들 이 뭘 얼마나 남겨 놨겠어요?"

"그건 가봐야 알죠. 앉아서 어떻게 알아요?"153)

3-[b]

열은 자는 듯이 드러누워 있었으나 숨결이 고르지 못하고 미간이 어둡게 찌푸려지더니 길게 한숨을 내뿜고 돌아눕는다. 아내와 누이의 도둑질 모의를 못 들은 척 넘길 수밖에 없는 난처함을 그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중략) 진이는 초조하게 어떤 일을 눈으로 재촉해오고, 혜순은 진이의 이런 눈이 두려워 자꾸만 열의 자리 밑으로 파고들며 구원이라도 청하듯이 열의 아프지 않는 쪽 다리의 발목을 은근히 잡아당긴다. 이런 혜순의 커다란 눈은 한층 퀭하니 깊게 들어가고 이

^{153) 『}목마른 계절』, 296~297면.

마에 진땀이 솟는다. 그래도 열은 눈도 안 뜨고 잠잠히 누워 있다. 154)

여동생 진이와 아내 혜순이 사람이 떠난 빈집에 남아 있는 식량을 '도둑질' 해올 것을 모의하는 동안(3-[al) 오빠/남편인 열은 '못 들은 척 넘길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3-[bl)). 식량을 구하는 문제는 "불을 안 켜도 방 안 사람들의 표정까지 눈에 잡"(297면)할 만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당도해 있는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진이와 혜순을 첫 번째 도둑질에 나선다. 그런데 『목마른 계절』에서는 도둑질의 의미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변주된다는 점이 독특하다.

3-[c]

다음날 밤에도 진이는 도둑질을 나섰다. (중략) 혜순은 따라나서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진이에겐 마음 편했다. 장도리와 초와 성냥을 가지고 그녀는 매일 밤 집을 나섰다. 하룻밤에 한 집, 어떤 날은 두서너 집까지도 뒤졌다. 엿장수 집도, 미장이 집도, 목수 집도 있었다. 물론 무엇을 해 먹고 살았는지 분명치 않은 집이 더 많았고, 애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은 집도 그렇지 않은 집도 있었다. 그러나 한결같이사람 없는 빈집이면서도 이상하리만큼 생생한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 있었다.

(중략) 진이는 매일 밤 도깨비에 홀린 듯이 이런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에 이끌려 집을 나섰다.

그녀는 훨씬 덜 외로워지고 명랑해졌다. 많은 친구를 가까운 곳에 가지고 있는 듯한 착각은 착각이라기엔 너무도 흐뭇했다. 밀가루도, 밀도, 보리쌀도, 쌀까지도 생겼다. 이제 더 이상 도둑질을 나설 아무런 명분도 없었다. 그래도 여전히 밤 그맘때가 되면 진이는 설레고, 흘금 흘금 눈치를 보다가 집을 빠져나오고 마는 것이었다.

곧 어떤 순박한 서민의 숨소리가 들릴 듯한 방이나, 부엌, 살던 그 대로의 모습에 조그만치의 위장도 가하지 않은 생생한 생활의 모습들을 보고픈 갈망으로 먹을 것을 구하려는 당초의 목적은 점점 잊어버려 가고 있었다. 당초의 그녀가 핑계 삼던 보름달도 점점 기울어 거의 칠흑의

^{154) 『}목마른 계절』, 297면.

밤이 돼도 그녀는 그 일을 끊지 못했고, 산으로 올라가는 비탈엔 완전 히 길이 생겼다.155)

식량을 구하려는 도둑질의 '당초의 목적'은 진이가 도둑질을 거듭할수록 '생생한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을 보려는 갈망으로 변주된다(3-[c]). 이처럼 『목마른 계절』에서 빈집털이는 그 의미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시작했던 것에서 점차 진이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취미로 변주됨으로써 활기찬 생활에의 갈망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한편 가짜 피난지에서 어머니와 오빠가 딸과 며느리의 빈집털이로 끼니를 챙기면서도 그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양상은 『목마른 계절』뿐 아니라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서도 나타난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156)에서 빈집털이는 가족의 생계 유지의 책무를 떠안은 '나'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어머니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표면화하는 계기가 된다. 즉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서 오로지 거동과 사유가 부자유한 아들을 "세 살 먹은 어린애"(43면)처럼 보살피는 데 전념하는 어머니에 대해 딸인'나'가 "섭섭하고 야속"(41면)함을 느끼는 정서적 반응이 나타나는 지점이 중요하다.

4-[a]

올케와 나는 거의 매일 밤 그 짓을 하러 나갔다. 엄마는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지 갑자기 풍성하고 다채로워진 식탁에 대해 일언반구도 아는 척을 안 했다. 그저 오빠가 밥 한 그릇이건 수제비 한 대접이건 거뜬히 비우는 것만 대견해했다. 157)

4-[b]

그러나 나는 엄마가 며느리와 딸이 밤마다 저지르는 차마 못할 짓

^{155) 『}목마른 계절』, 303면.

¹⁵⁶⁾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박완서 소설전집 결정판 20), 세계사, 2012. 이 하 같은 소설을 인용할 때는 제목과 면수를 밝히되 소설 속 표현을 서술에 직접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면수를 밝힌다. 소설 인용문에 대한 강조 표시는 모두 인용자가 첨가한 것이다.

^{157)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40면.

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는 것이 섭섭하고 야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심지어는 한마디 위로의 말조차 아낌으로써 당신만 그 치욕스럽고 께적지근한 것으로부터 결백하려는 것처럼 여겨질 적도 있었다.158)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인물, 다시 말해 식량을 구하고자 빈집털이에 나서는 여성 가장으로 딸을 세우는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서 딸이 어머니에게 느끼는 섭섭함과 야속함(4-[a], [b])은 박완서의 모녀 관계의 특징을 함축하는 정서적 반응이다. 위 인용문에서 '나'는 어머니의 관심이 오로지 오빠가 밥그릇을 비우는 데에만 쏠린다는 사실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빠가 비운 밥그릇이 다채로운 음식으로 채워질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하여 어머니가 고집스러워 보일 만큼 무관심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서운함을 느낀다. 나는 어머니가 매일 밤 '못할 짓'을 저지르는 딸에게 위로를 건넴으로써 딸과 더불어 결백하지 못하기를 바란다. '나'는 「부처님 근처」에서 '나'가 오빠의 죽음을 아무도 모르게 처리했을 때처럼 어머니와 공모(共謀)하기를 바란다. 박완서의 모녀 서사에서 공모는 결속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연구가 일관되게 조명하는 바, 박완서 소설 속 어머니와 딸의 결속은 언제나 일시적이라는 사실로부터 새로운 문제적 상황이 설정된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어머니의 세계가 오빠/아들의 세계로 끌려들어가는 한편 자신의 세계와는 일정하고도 좁혀지지 않는 거리를 확보한다고 여겨질 때 딸이 느끼는 상실감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소설 속 모녀 관계의 의미를 재구성한다면, 딸들이 오빠의 죽음을 경유하지 않고서도 어머니와 결속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어머니의 애정을 갈구하는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는 한국 전쟁기를 배경으로 하는 박완서 소설 속 딸들이 빈번하게 보이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머니의 애정을 갈구할 때 그녀들이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살아있는 느낌'이다. 삶을 활력 있게 꾸리고자 하는 욕망과, 어머니의 애정을 자기에게 돌리려는 욕망을 동일시할 수 있는 까닭은 두 대상에

^{158)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41면.

대한 여성 인물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데 박완서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인 '기갈(飢渴)'의 의미에서 찾아진다.

5-[a]

본디는 무슨 빛깔이었는지 짐작도 할 수 없이 더럽게 변색된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누런 흙이 부슬부슬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또 수없이 덧붙인 곳도 많건만 이상하게도 문자가 씌어진 종이는 없다. 그래도 진이는 혹시나 하고 기갈 들린 듯이 문자를 찾는다. (중략) 도대체이 집에 살던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바라며 살았을까? 젊은이였을까? 늙은이였을까? 부지런했을까? 게을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려 해도 그것을 풀 최초의 실마리가 없다. (중략) 할 일이 전연 없는 봄날의 하루란 얼마나 징그러운가?[159]

5-[b]

생활에의 대기상태는 한없이 지리하고 때로는 둔한 멀미조차 느끼게 했다. 다시 하루하루가 징그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렇게도 신기하던 넓은 들과 희게 반짝이던 강줄기도 너무 변덕스러울 만큼 곧 시시해지고 말았다.

평범한 동네에 흐릿한 중립상태, 따분하게 길어지는 봄낮, 쉽사리 무엇이 일어날 성싶지 않은 시간의 흐름조차 고여 있는 건지 멎어 있 는 건지 분간 못할 **권태**로운 나날이 갔다.¹⁶⁰⁾

5-[c]

몸에서 서서히 **생기가 증발해가고 있다**는 걸 현저하게 느꼈다. (중략) 아니, 그건 느낌이 아니라 실제였다. **황폐의 극치**였다. (중략) 나는 그 와중에도 **재미있고 신나고 싶었다**. (161)

우선 전쟁 중 피난지에서 해야 할 일이 전혀 없는 '권태'에 노출되어 있는 말 진이(『목마른 계절』)는 자신과 가족들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한다(5-[al, [bl), 이때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란 피난을 떠나기 전까

^{159) 『}목마른 계절』, 385면.

^{160) 『}목마른 계절』, 393면.

^{161)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260~262면.

지 그들이 꾸렸을 '생활'을 추측하게 할 정보를 가리킨다. 한편 '나'(『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전쟁 중 월경이 멎은 신체 변화를 몸의 '생기가 증발'했기 때문으로 여기며 전쟁이 가져 온 '황폐화'를 절감한다(5-[c]). 박완서가 딸들의 심리 묘사를 통해 보여주는 바는 전쟁의 광포한 특성 자체이기보다 그로 인해 정지되어버린 삶의 역동성이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 생활의흔적을 찾아내려 하거나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벌어지기를 소망하며 자기안의 역동을 발산하고 싶어 하는 젊고 어린 딸들의 갈급함이다.

다시 모녀 관계로 논의를 가져와 보아도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에 처해 있는 여성 인물은 언제나 딸이다. 어머니의 애정을 갈구하는 딸은 일찍이 『나목』에서부터 등장하였다. 『나목』에서 이경은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을 근거로 삼아 자신이 오빠들처럼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하기를 소망한다. 만일어머니가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봐 주기만 한다면 이경은 자신(살아남은 딸)과의 생활을 활기차게 꾸려나갈 의지가 어머니에게 있음을 발견해내었을 테다. 그러나 삶의 의지를 조금도 담고 있지 않은 어머니의 부연 눈은 오빠들의 죽음만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이미 살핀 바 있듯 이경은 '완전한 허虛'의 상태에 빠진 어머니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미움과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 같은 반응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일에 대한 증오 및 공포와 일맥상통한다. 어머니를 둘러싼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증오는 기실 중요한 타인으로서 어머니의 애정을 갈구하는 의존적 욕구¹⁶²⁾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어머니에게서 삶에 대한 의지를 찾는 일은, 두 아들은 죽었지만 살아남은 딸과의 생활을 활기차게 살아갈 의지를 보는 일이며 어머니가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일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일과 무관할 수 없다.

6-[a]

"널 부산으로 내려보내라구……. (중략) 마치 내가 너를 이 집에 붙들어두고 놓지 않는 것처럼 나를 못마땅해하시는 투더라."

어머니는 참 오래간만에 꽤 긴 말을 떠듬거리지 않고 조리 있게

¹⁶²⁾ 의존적 욕구란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누군가가 나를 가장 소중한 대상으로 대해 주길바라는 마음을 가리킨다.

한 편이었다.

"어머니는 어떡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너 좋을 대로 하렴."

"그럼 엄마도 같이 가겠수?"

"갈 걸 왜 기를 쓰고 왔겠니?"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할 말은 다한 셈이다. 그래도 어머니는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멍하니 않아 있었다. 나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일부러 크게 하품을 했다.

"아이 졸려. 내일 일찍 깨워주세요."

"저…… 저…… 말이다. 이 에미 때문에 못 간다면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봐라."

"그렇다면? 만일 그렇다면 같이 가주시겠수?"

나는 어머니를 싫어하면서도 **어머니가 살아가는 데 내가 어느 만큼의** 보람이나 힘이 되고 있나 쯤은 문득문득 궁금해하는 터였으므로 짓궂게 어머니에게 따지고 들었다.

"아아니. 그래도 난 못 가. 난 여기가 편타."

그리고 내가 더 무엇을 물을까 봐 꺼리는 듯 일어나서 소리 없이 나갔다.163)

6-[b]

"엄마, 우린 아직은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 건 변화하게 마련 아 네요. 우리도 최소한 살아 있다는 증거로라도 무슨 변화가 좀 있어얄 게 아녜요?"

"왜? 이대로도 우린 살아 있는데."

"변화는 생기를 줘요. 엄마, 난 생기에 굶주리고 있어요. 엄마가 밥을 만두로 바꿔만 줬더라도……. 그건 엄마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일이잖아요. 그런 쉽고 작은 일이 딸에게 싱싱한 생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걸 엄만 왜 몰라요?"

어머니의 부연 시선이 아무런 뜻도 지니지 않은 채 나를 보는지 내 어깨 너머로 윗목의 장롱을 보는지 초첨 없이 한 군데 머물러 있었 다.

나는 이내 어머니가 다만 나에게 잡힌 치맛자락을 놔주기를 기다리

^{163) 『}나목』, 87~88면.

고 있을 뿐이란 걸 알아차렸다. 그리고 또한 **내 바람이 완강하게 거부당** 하고 있음도, 그 거부 앞에 내가 얼마나 무력한가도 알아차렸다. 164)

위의 첫 번째 인용문은 박완서 소설을 통틀어 가장 애틋하고 조심스러우며 진지하게 이어지는 모녀 간 대화라고 할 만하다. 어머니는 고가를 떠날수 없다는 확고함뿐 아니라 당신 때문에 덩달아 고가를 떠나지 못하는 딸에 대한 염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경은 언뜻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머니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예민하게 집중하고 있다(6-[a]). 이경이 끈질기게 좇고 있는 물음은 '어머니의 삶에 자신이 유의미하게 개입하는 가'라는 문제를 포함한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어머니의 '완강한 거부'는 이경으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6-[b]). 자신은 죽은 오빠들처럼 어머니의 삶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경은 깊은 상실감에 빠진다. 이때 상실감은 소중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데 따르는 심리적 반응이다. 『나목』의 묘미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참담한 예감을 계기 삼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분투하는 딸 이경을 그리는 자리에서 도드라진다. 어머니의 애정에 대한 기갈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경은 "나는 결코 나를 가엾게 내버려둘 수는 없"(185면)다는 자기애의 발견으로 선회한다.

그런데 이 절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탐색하고 자기를 수용하게 되는 딸이경의 특성을 분석하는 자리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외부의 성 대상을 향하는 '대상 리비도'와 구분하여 '자기애적 리비도'라고 일컬으며 사용한 '자기애'의 의미를 환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자 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중 '3. 사춘기의 변화들'에서, 유아기에 자기 몸의 성감대를 탐색하는 데 집중되는 자기애적 리비도가 사춘기에 "성 대상을 점령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보고 이 때의 리비도를 대상 리비도라고 하였다. 165) 이때 자기애적 리비도는 사춘기/성인기에도 "리비도의 배출을 통해가려질 뿐 본질적으로는 그 이면에 계속 존재"166)한다. 다시 말해 사춘기 이

^{164) 『}나목』, 127면.

¹⁶⁵⁾ 지그문트 프로이트,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앞의 책, 109면.

¹⁶⁶⁾ 위의 글, 110면.

후 리비도(Libido)는 자기애적 리비도와 대상 리비도 사이의 "넘을 수 없는 경계"를 오고가며 "자기애적 리비도 또는 자아 리비도는 대상에 집중하는 리비도를 밖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대한 저장고처럼 보인다."167) 이처럼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유아기에 자기 몸을 만지거나 입으로 빨면서 성적 긴장을 완화하고 그것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행위와, 사춘기/성인기에 대상 리비도가 일시적으로 소멸할 때 리비도가 이끌리는 저장소를 설명하기 위히여 자기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앞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후자 역시 "아주 이른 시기에 형성된 원초적 상태"168)로 존재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자기애라는 용어가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의해 쓰일 때에는 유년기/사춘기/성인기 중 어느 시기에 관하여서든 필시 유아기적 특성을 가리키게 된다.

이 절에서 『나목』의 이경이 스스로를 불쌍하게 만들 수 없다고 자각하게 된다는 점과, 자기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고 되뇌는 점을 두고 사용하는 자기애라는 용어는 위의 경우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쓰인다. 이 연 구는 이경의 자기애적 욕구란 유아기적 퇴행의 증거라기보다 자신이 '가엾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특성이라고 보기 때문이 다. 이경은 자기 가치를 긍정하기 위하여 또 다른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는 데, 이때 "필요"(90면)한 인물이 바로 화가 옥희도이다.

6-[c]

나는 할 수 없이 옥희도 씨를 생각했다. 그리고 **주문**처럼 '그는 딴 사람과 다르다. 그는 딴 사람과 다르다'고 외었다.

나는 그런 되풀이를 통해 어쩌면 **새로운 생활에의 노크**를 시도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¹⁶⁹⁾

6-[d]

나는 이제 옥희도 씨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런 생각은 때론 아프고, 때론 감미롭고 어쩌면 두렵고 하여 어떤 뚜렷한 감정을 추려낼 수는 없어도, 그 생각에서 조금도 헤어나지를 못했다.¹⁷⁰⁾

¹⁶⁷⁾ 위의 글, 같은 면.

¹⁶⁸⁾ 위의 글, 같은 면.

^{169) 『}나목』, 65면.

6-[e]

그래서 나는 **사랑을 시작**하게 된 것일 게다. 그러고 보니 옥희도 씨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구원일까. 그를 못 만났다면 지금쯤 어쩌면 나는 정말 지쳐서 허물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진이 오빠가 가엾어하기에 알맞은 꼴로 말이다.¹⁷¹⁾

위의 세 인용문은 옥희도가 초상화부에 근무하기 시작한 후 그를 사랑하게 되기까지 이경의 심리 상태를 시간상의 순서에 따라 짐작하게 한다. 처음에 이경은 "흉가를 흔드는 바람소리"(64면)를 떨쳐내고자 옥희도를 떠올린다. 이경이 옥희도를 떠올리는 행위는 '새로운 생활'이 펼쳐지기를 기원하는 '주문'과도 같다는 점에서 의식(意識/儀式)적인 면이 있다(6-[c]). 또한 이경 자신이 옥희도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대신 그러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도 이경은 의식(意識)적으로 옥희도를 사랑하고자 함이 드러난다(6-[d]). 즉 옥희도에 대한 이경의 사랑은 그 '시작'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철저히 의도된 감정이라고 봄이 마땅하다(6-[e]). 이때 옥희도를 사랑함으로써 이경이 이루고자하는 목적은 퍽 구체적이다. 이경은 "죽지 못해 사는 시늉을 해야 하는 형벨"(182~183면)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욕망한다. 이경은 "삶의 기쁨에의 끈질긴 집념"(182면)이 자기 안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경은 옥희도에게 자신을 사랑해 달라고 말하는 대신 "다시는, 다시는 절 가엾게 하지 마세요."(167면)라고 말한다. 달리 말해 이경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옥희도를 사랑한다.

이경이 남성 인물과의 교류를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점은 옥희도와의 관계뿐 아니라 미국 병사 조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이경은 "그를통해 영혼의 남루를 벗기를"(272면), 즉 "탈피"(275면)하여 "훨훨"(같은 면)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갖기 위하여 조와 성적 관계를 갖고자 한다(경서호텔 객실의 진홍빛 전구가 침대 시트를 핏빛으로 물들이고, 이는 이경으로 하여금 오빠들의 피로 물든 붉은 홑청을 연상하도록 한다. 이에 '탈피'에 대한 기대'는 '육신이 조각날 것 같은 공포'로 전환된다. 조와의 성적 관계에 대한 이경의 계획은 결과적으

^{170) 『}나목』, 67면.

^{171) 『}나목』, 183면.

로 실패한다.). 결국 『나목』에서 이경이 남성 인물들과 정서적·육체적 관계를 맺으려 애쓰는 순간들은 '새로운 생활에의 노크'를 시도하는 순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경 자신의 일상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화 안한 생활'로 변모시켜주리라 기대를 거는 첫 번째 대상이 어머니였다면 두 번째 대상은 옥희도와 조인 셈이다. 물론 황태수까지 포함하여 남성 인물들이 이경과 맺는 관계의 양상과 그 밀도는 서로 무척 다르다.

그런데 고전적 정신분석학의 입장에 따라 성인이 된 딸이 성적 대상에게 갖는 욕망을 소아기의 "근친상간적 판타지"172)의 영향 아래 두는 설명에서는 옥희도에 대한 사랑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대체물로 해석하기를 요청한다. 이때 이경과 옥희도의 나이가 상당히 차이난다는 점과, 옥희도의 부인에 대한 이경의 사랑이 결핍된 모성에 대한 추구를 닮아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출된다. 그 결과 옥희도는 이경의 아버지를, 옥희도의 부인은 이경의 이상화된 어머니를, 이경은 그들의 딸을 상징하게 된다. 그런데 미8군 PX의 초상화부에 근무하는 가난한 화가 옥희도를 이경에게 있어 "사회적 권위가 있는나이 든 남자"로서 "아버지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인물로 보기에 적절하지않을 뿐 아니라,173) 결정적으로 이경이 어린시절 아버지에 대한 성적 충동을느꼈음을 추론할 만한 소설 내적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 더욱이 옥희도에 대한 이경의 사랑을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반영으로 해석한다면 이경이 어머니의 애정을 몹시 갈구하던 연유에 대하여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그러한 방식의 해석에서 어머니에 대한 딸의 정서적 반응은 아버지를 사이에 둔 질투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옥희도에 대한 사랑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전환임을 본다. 다만 이때 빠르게 덧붙여야 하는 두 가지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와 옥희도에 대한 사랑 모두는 성애적 충동보다는 자기 정체감 확인의 문제

^{172) &}quot;모든 인간의 (…) 판타지 속에는 소아기적 경향이 다시 등장한다. 그것도 신체적인 변화를 통해 더욱 강화된 형태로. 이 경향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성적 끌림을 통해 아이의 성 충동이 부모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아들은 어머니에게로, 딸은 아버지에게로. 이 뚜렷한 근친상간적 판타지를 극복하고 퇴치하는 것과 동시에 아주 의미심장하고도 고통스러운 사춘기의 심리적 성취가 완성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성욕에관한 세 편의 에세이」, 앞의 책, 119면.

¹⁷³⁾ 위의 글, 121면.

와 밀착되어 있다. 둘째,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옥희도에 대한 사랑은 배타적이지 않다. 즉 어머니의 애정을 통해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어머니와의 영원한 결별할 자리가 마련되지는 않는다. 오히려그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이경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어머니에 대한 이경의 원망이 정확히 어머니의 무엇에 대한 원망인지 가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연구가 조명하는 바 어머니에 대한 이경의 원망은 죽은 두 아들과 달리 살아남은 딸을 무심히 대하는 어머니 존재 자체를 향하지 않는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살아남은 딸을 예전과 똑같이 온정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기대는 자식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전제로 하는 모성(성)의 신화에 터한다. 이는 어머니의 충격을 신화화된 '어머니'의 충격으로만 보도록 시야를 제한한다. 중요한 사실은 박완서 소설 속 어머니는 죽음(죽어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할 뿐 아니라 딸과 더불어 감쪽같이 처리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절대적 모성(성)에 기대 해석함으로써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의 복잡한 양상을 가볍게 휘발시키기를 목표로 하지않았다. 『나목』을 포함하여 이 절에서 살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어머니에 대한 딸의 섭섭함/원망은 두 오빠의 죽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어머니의 부유하는 듯한 상태에 대한 섭섭함/원망이다. 박완서 소설 속 딸들은 "감자꽃처럼 웃던 엄마"174)를 다시 마주하기를 소원하며 어머니와 공생한다. 어머니의 삶에 자신이 잔잔하나마 파문을 일으킬 수 있기를, 그리하여 자신이 가엾지 않으며 자기 삶이 여전히 가치 있음을 확인하기를 욕망한다.

물론 어머니의 애정을 통해 자기 삶을 긍정하는 일이 어려우리라 예감한 후 새로운 생활로 진입하기 위하여 타인의 애정을 필요로 한다거나 통과 의례로서 이성애적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 이경의 선택이남기는 의문점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보다 흥미로운 문제는 이경이 (어머니를 제외한) 여성 인물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는 '화안한 생활'로의전환을 기대하거나 탈피하여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등의 목적이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경은 PX 유기부에 근무하는 여성 인물 '미숙이' 혹은 옥

^{174)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263면.

희도의 부인과 교류하면서 '살아 있음'을 몸의 감각 그 자체를 통해 실감한다.

6-[f]

너 하품 좀 해볼래?"

"언니, 하품도 마음대로 하우? 오늘 매상이 없어서 하품을 많이 하 긴했지만."

"그럼 입이라도 벌려봐. 아 하고."

그녀는 순순히 입을 크게 벌렸다. 선명하게 **붉은 입속**과 목 천장에 매달린 목젖.175)

6-[g]

그녀가 바싹 내 옆에 다가앉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한층 내 옆으로 당기고 수그린 그녀의 목고개에 내 얼굴을 포갰다. 목 뒤에 머리카락 몇 오라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며, 화장품 냄새로 흐려지지 않은 순수한 사람의 냄새가 싱그럽게 풍겼다. 그녀는 독특한 체취를 갖고 있었다.

들꽃과 갓난 짐승의 냄새를 합친 것 같은 배릿하고 향긋한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사람 그리움이, 슬프도록 절실한 사람 그리움이 자욱이 서려온다. 나는 그녀의 냄새를 맡으며 땋아 늘인 윤기 있는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애무했다.

(중략) 나는 그냥 편안하게 들꽃 냄새 같은, 강아지 냄새 같은 그녀의 체취를 숨쉬며 따뜻한 목덜미에서 오후의 피곤을 달래고 싶었다. 176)

6-[h]

"우리 집 말이에요. 꼭 시궁창이야. 언니는 상상도 못 할걸."

나는 응당 물어야 할 시궁창 같다는 그녀의 집안 사정은 묻지 않은 채 그녀 등 뒤에서 나직이 오래오래 웃었다. 그녀가 **향기롭다**는 게, 시궁창 속에서도 향기롭다는 게, 그녀가 시궁창 냄새만 알았지 자기의 훈향을 모른다는 게 유쾌해서 견딜 수 없었다.

^{175) 『}나목』, 44면.

^{176) 『}나목』, 153면.

"웃긴, 언니두 참. 나 우스갯소리를 하려는 게 아녜요. 좀 심각한 이야길 하고 싶은데……."177)

6-[i]

어느 틈에 내 옆자리로 옮겨 앉은 **그녀는 내등을 정답게 감싸며 바**로 귓전에 따뜻한 입김으로 속삭였다.

들꽃과 갓난 야생동물을 합친 것 같은 그녀의 독특한 체취가 풍겨 왔다. 그녀가 자신이 시궁창에서도 이처럼 향기롭다는 걸 모르다니 참 답답하다.178)

6-[i]

점퍼의 목둘레가 헐렁한 때문일까. 목이 좀 길어 보이고 그 사이로 드러난 내복이 정결하게 휘 것에 호감이 갔다.

나는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는 내가 너무 마음이 좋은 것 같아 좀 화가 났다.

그러나 그녀의 **희고 긴 목**은 남의 미움 같은 걸 도저히 감당할 것 같지가 않았다. (중략)

궁상맞고 헐렁한 방한 점퍼 속의 정결한 내의.

게다가 희고 긴 목과 섬세한 얼굴은 하필이면 내가 좋아하는 모딜 리아니가 그린 여인들을 닮았을 게 뭐람.

나는 좌절감과 초조로 아랫입술을 자근대며 앉음새를 이리저리 고 쳤다. 그녀를 내 감정상으로 도저히 선명하게 처리할 수 없어서였 다.179)

이경과 미숙이 혹은 옥희도의 부인이 마주하는 소설 속 장면에는 '입속' 점막의 붉음(6-[f]), '배릿하고 향긋한' 체취(6-[g], [h]), 귓전에 닿는 '따뜻한 입김'과 속삭임(6-[i]), 희고 긴 목과 내의의 정결한 이미지(6-[j])가 있다. 달리 말해 여성 인물들은 이경의 시각·후각·촉각·청각적 감각을 자극하며 이경은 여성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신체 감각을 탐색한다. 이는 남성 인물인황태수, 조는 물론이거니와 옥희도와의 관계에서도 건들여지지 않은 '살아

^{177) 『}나목』, 154면.

^{178) 『}나목』, 161면.

^{179) 『}나목』, 110면.

있는' 몸의 감각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지점이다.

이처럼 박완서는 여성 인물들의 친밀한 신체 접촉에 대한 묘사를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반복적으로 묘사하고는 한다. 그럼에도 박완서 소설에 나타 난 여성 인물의 섹슈얼리티는 이성애 중심주의적 관점으로만 해석되는 경향 이 있다. 바로 그러하기에 『나목』의 이경과 미숙이의 관계는 비가시화되었 고, 이경과 옥희도의 부인과의 관계는 근친상간적 판타지의 비유로서만 해석 되어 왔다. "자신을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하든 아니든 우리는 모두 레즈비언 연속체 안팎을 오가고 있음"180)에 동의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여성의 욕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의 관계를 새롭게 읽을 수 있다. 181) 이때 레즈비언 연속체란 "단지 한 여성이 다른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거나 의식적으로 욕망했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풍부한 내적 삶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들 사이에 맺는 다양한 형태의 일 차적이고 강렬한 관계까지 모두 포괄"한다. 182) 이러한 관점으로 전환하는 일 은, 여성에 대한 여성의 욕망이란 "욕망이 아니라 질투를 느끼는 것이"며 "그 여성**처럼** 되기를 바라"는 대신 "절대로 그저 그녀를 **원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요하는 강제적 이성애 제도의 메커니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다.183)

¹⁸⁰⁾ 에이드리언 리치(Adrienne Rich), 「강제적 이성애와 레즈비언 존재」,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Essential Essays: Culture, Politics, and the Art of Poetry), 이주혜옮김, 바다출판사, 2020, 264면.

¹⁸¹⁾ 한경희는 『나목』의 이경이 "근대 가족에서 '자연적' 요소로 말해지는 섹스와 출산, 세대 재생산에 대"하여 "혐오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인구(人口)'에 대한 혐오감으로도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때 '인구(人口)'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 부의 원천인 노동력으로서" 관리되는 대상으로서 인간을 가리킨다. 요컨대 한경희는 이경이 남성 인물(황태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혐오감이란 먹고 배출하며, 성교를 통해 번식하는 인간의 자연화된 속성에 대한 혐오라고 본다. 반면 여성 인물(어머니, 옥희도의 부인)에 대한 이경의 사랑은 강제된 이성애를 거부하려는 욕망의 발로이자 "여성과 맺는 공생 상태에 대한 욕망", 즉 "레즈비언 연속체에 대한 희구"라고 분석한다. 한경희, 「박완서 작가 연구 — 대중·민중·여성문학장에서 '주부'의 발화 위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2, 53~64면 참고.

¹⁸²⁾ 에이드리언 리치, 앞의 글, 262면.

¹⁸³⁾ 아미아 스리니바산(Amia Srinivasan), 『섹스할 권리』(*The Right of Sex*), 김수민 옮김, 창비, 2022, 231면. 강조 표시는 원문을 따랐다. 아미아 스리니바산은 여성들의 관계가 이성에 중심의 가부장제에 부합하도록 규제되어 왔다고 밝힌 에이드리엔 리치의 "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se" (1980)를 인용한다.

『나목』에서 "죽고싶다"(304면)는 자기 파괴적 암시를 반복하며 "전쟁이나다시 휩쓸었으면"(같은 면) 하고 바라던 이경이 다른 여성의 몸과 접촉함으로써 '살아 있는' 몸의 감각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즉, 여기서 서로에게 "확산하는 에너지"184)가 유의미하게 포착된다. 이는 타인을 만짐으로써 동시에느껴지는 자기 몸의 실질적인 감각을 깨우며 '살아 있음'을 확인하려는 욕망의 표현이다. 어머니의 부연 눈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자신에게는 영영 허락되지 않을 것만 같은 '살아 있다'는 느낌을 이경은 여성 인물들과의 접촉을 통해 확인한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박완서 소설 속 여성 인물(딸)이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갈구하는 것이나, 그것을 포기한 후 남성 인물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충족하려는 것을 모두 자기 존재의 '가치 있음'을 확인하려는 욕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경의 욕망이실패로 귀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이성애적 관계를 중심으로만 인물 간관계를 해석하려는 접근 방식의 한계 때문이다. 시선을 옮겨 다른 면을 본다면 이경은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여성 인물들과의 친밀한 접촉을 통해 이루었을 뿐이다.

지금까지 『나목』, 『그 많던 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목마른 계절』,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마주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모녀 관계를 보았다. 박완서 소설은 어머니와 밀접하게 결속하였던 딸이 어머니에 대하여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계기와, 그러한 시간을 통과하며 점차 어머니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어머니 애정에 대한 갈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보듯이 어머니와 심리적으로 미분화된 상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며, 옥희도에 대한 사랑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단순한 대체물로서 설정되지 않음을 알수 있다. 이경은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갈구하는 동시에 옥희도를 사랑하며 그와 동시에 여성 인물들과 관계 맺음으로써 '살아 있음'의 감각을 회복한다.이 절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전쟁 시기를 다룬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란 '감자꽃처럼 웃던 엄마'를 다시 보고 싶어하는 딸의 바람, 즉 어머니의 웃음을 거울 삼아 자신의 가치 있음을 확인하려는 딸의 욕망을

¹⁸⁴⁾ 에이드리언 리치, 앞의 글, 264면.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3. 승계되는 돌봄 수행의 책무

3.1. 돌아온 딸의 어머니 돌보기

박완서 소설 속 딸들의 집 나서기는 생활 반경이 집 밖의 세계로 점차 넓어지는 계기로 그려지는 성장에의 은유로 기능하는 경우와, 어머니로부터 자립하는 경우로 나뉜다.185) 이 절에서는 박완서의 초기 단편소설에서 은유로서가 아닌 현실적인 문제로서 집을 나섰던 딸들이 후기 단편소설에서는 어머니 곁에 머물며 어머니를 돌보는 양상을 분석한다. 가장 먼저, 딸들이 집으로부터 도망쳐 달아나려는 출분(出奔)의 욕망을 품고 실행에 옮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을 살핀다. 그런 다음, 떠났던 딸들이 어머니에게로 돌아오도록 설정되는 소설 속 상황을 톺아본다. 이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바는 박완서 소설에서 형상화되는 딸의 자립 문제는 아프고 나이든 어머니를 돌보는 주체로서 딸이 등장하게 되는 토대가 되며 딸들의 돌아옴이 어머니 돌봄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이다.

여러 단편소설에서 박완서는 어머니로부터 자립하는 딸들을 그린다. 이는 2장에서 분석한 소설 속 딸들이 한국 전쟁기 어머니의 운명에 강하게 결속되는 양상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예컨대『나목』의 '이경'은 어머니를 남겨두고 홀로 고가를 떠날 수 없다고 여기면서 독립된 개체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욕망을 때때로 회피하고 어머니와 공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비해 지금부터 논의할 소설 속 딸들은 어머니로부터 자립할 상황을 직면하고 돌파한다는 점에서 박완서가 '어머니의 딸'을 형상화하는 새로운 지점

^{185) 「}엄마의 말뚝 1」에서 집 나서기는 어린 딸의 생활 반경이 집 밖의 세계로 점차 넓어지는 계기로서 그려진다는 점에서 성장에의 은유로 기능한다.

[&]quot;나는 내가 처음 사귄 그 아이한테 깊이 매혹당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집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기 시작했다. 생전 그 켯속을 익힐 수 있을 것 같지 않던 소삽한 골목과 층층 다리와 비탈이 깨친 글자처럼 하나하나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켯속을 익힌 것만큼은 영락없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신나는 경험이었다. 나는 하루하루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다." 「엄마의 말뚝 1」, 『엄마의 말뚝』(박완서 소설전집 결정판 11), 문학동네, 2013, 57면.

을 노출한다. 무엇보다 박완서 소설 속 성장기 아들의 자립이 '방 문 닫기' 라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딸의 자립을 '집 떠나기'로 서사화함으로써 어머니를 떠나는 딸의 감정을 복잡화하는 까닭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박완서는 딸의 자립이 집을 떠나는 것일 뿐 아니라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라는 문제를 주로 단편소설에서 조명한다. 딸이 물리적일 뿐 아니라 심리·정서적으로도 현격하게 어머니를 떠나고자 하는 문제를 여성 인물의 전사로 설정하는 단편소설로 1982년《세계의문학》여름호에 발표한「무중(霧中)」이 있다. 「무중(霧中)」186)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짜여 있다. 첫째는 청소년 시절 '나'가 아무런 준비 없이 집을 떠나게 된 사건과 관련한 과거 이야기이고, 둘째는 현재 '나'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연인 관계 맺고 있는 유부남('나'는 그를 '아빠'라고 부른다.)과의 이야기이며, 셋째는 '나'가 아파트 옆집에 사는 남자와 맺는 기묘한 관계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 중에서도 중심이되는 이야기는 '나'와 '아빠'의 이야기와, '나'와 옆집 남자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박완서는 어린 시절 '나'가 어머니로부터 '바람난 계집애'로 명명되었던첫 번째 사건을 회상의 방식으로 소설 서두에 배치한다.

1-[a]

나는 베란다의 쇠난간 사이로 다리를 하나씩 넣고 걸터앉았다. 난간 사이는 내 넓적다리가 꼭 낄 만했다. 나의 희고 늘씬한 다리를 안개에 담가보고 싶었다. 안개는 여울물처럼 차고 새벽의 풀섶처럼 눅눅했다. 나도 바람난 계집애였다. 새벽의 풀섶을 헤치고 돌아와 간밤에 빗장 따논 대문을 가만가만 열고 들어서려는데 대문 뒤에 지키고 섰던 어머니의 무서운 눈과 마주친 날 나는 고향을 떠났다. 187)

소설 서두를 인용한 위 장면에서 '나'는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아

¹⁸⁶⁾ 박완서, 「무중」,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3), 문학동네, 2013. 이하 같은 소설을 인용할 때는 제목과 면수를 밝히되 소설 속 표현을 서술에 직접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면수를 밝힌다. 소설 인용문에 대한 강조 표시는 모두 인용자가 첨가한 것이다.

^{187) 「}무중(霧中)」, 298면.

자욱한 안개를 바라보다가 집을 떠나오던 날 있었던 일을 파편적으로 떠올린 다. 어린 시절 방 안까지 눅눅하게 만들던 안개를 떠올리는 일과 더불어 이 슬 맞은 눅눅한 풀섶을 헤치며 집에 돌아왔던 일을 산발적으로 회상하는 '나'를 통해 박완서는 현재 '나'의 삶이 어머니로부터의 불완전한 자립 위에 꾸려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첫 번째 사건의 전말이 조금 더 상세히 밝혀지는 것은 소설 후반부에 이르러서이다. 그 날은 학생이던 '나'가 국어선생님 숙직 실에서 자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날이었다. '나'는 학교의 젊고 잘생긴 국어선생님에게 선물 받은 『데미안』을 읽고 "처음으로 책다운 책을 읽고 나서의 감동이랄까 충격이랄까 너무 벅차 혼자서는 파열해버릴 것 같"(318면)은 마음으로 선생님에게 달려간다. 한밤중에 선생님을 찾아간 '나' 는 선생님을 데미안으로 혼동하면서 정신없이 데미안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든다. '나'가 잠든 사이 밖으로 나가 안개 속을 헤매다가 돌아온 선생님이 '나'를 깨웠을 때 비로소 '나'는 "십 리나 되는 새벽길을 달음질쳐 집으로 돌 아왔다."(319면) 빗장 열린 대문 뒤에서 딸이 돌아오기를 지키고 있던 어머니 가 누구와 밤을 보냈는지 물으며 "미친 듯이 날뛰"(같은 면)는 모습을 보며 '나'는 어머니와 영영 소통할 수 없으리라고 예감한다. 그와 같은 예감, 그러 니까 지난 밤에 국어선생님의 숙직실에서 잠을 잤으며 선생님과는 소설 이야 기를 했을 뿐 어머니가 말하듯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년이 바람부터 나서 암내를 피우고 다닌"(318면) 일은 없었음을 어머니에게 이해시킬 수 없을 것 이라는 "담벼락 같은 절망감"(319면)을 느낀 '나'는 집으로부터 도망쳐 도시 에 정착한다.

어머니로부터의 준비되지 않은 자립 이후 '나'가 도시 생활에 어떻게 적 응했는가는 소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어머니에 얽힌 과거 이 야기와 현재 '나'의 일상 사이에 놓인 서술의 공백에 의해 오히려 강조되는 것은 '나'에게 있어 집/어머니를 떠난 일은 '떠남' 자체로 완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린 시절 '나'가 내적인 갈등 없이 집과 어머니를 떠나기로 결심 한 듯 보이지만 그 일은 현재 '나'가 영위하는 일상에서 불시에 떠오르면서 지속적으로 관여한다.

한편 1983년 《한국문학》 7월호에 발표한 「무서운 아이들」에서도 딸의 자

립은 집뿐 아니라 어머니로부터의 '탈출'로 그려진다. 「무서운 아이들」188)은 중학교 교사인 '그 여자'가 약혼자 '형석'과 파혼 후 앞으로는 "결코 손해보지도 배반당하지도 않으"(394면)려 방어적으로 살아가다가 태도를 전환하는계기를 맞게 되는 소설이다. '그 여자'가 맞이하게 되는 삶의 전환적 계기란 담임반 학생 '을희'을 중심으로 학교 소풍날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어머니로부터 자립한 사실 자체가 '그 여자'의 현재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는 사건으로 다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그 여자'의 자립을 보편적인 생애주기에 따라 적절한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도 사실이다. 「무중(霧中)」의 '나'가십대라는 나이에 아무런 자립 기반 없이 어머니로부터 달아나듯 자립한 데비해 「무서운 아이들」의 '그 여자'는 "혼자 조촐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382면)을 만큼의 봉급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립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가 '그 여자'의 자립을 문제 삼는 까닭은 결혼하지 않은 채 부모로부터 자립하는 딸의 심리적 동인이 어머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2-[a]

딸의 고집에 못 이겨 따로 사는 걸 허락한 그 여자의 어머니가 이 것저것 갖춰준 살림살이 중 제일 먼저 준 게 그 가계부였다. 어머니가 미혼의 딸이 집 떠나 혼자 사는 걸 꺼린 가장 큰 이유는 여자고 남자고 혼자 살면 방종해진다는 거였는데 어머니의 방종은 행실보다는 계획성 없는 씀씀이를 뜻했다. 그러나 그 여자가 꿈꾼 탈출은 집으로부터라기보다는 바로 그 계획성이라는 것으로부터였다. 189)

위 장면에서 보듯 '그 여자'는 어머니의 철저한 계획성으로부터 벗어나기

¹⁸⁸⁾ 박완서, 「무서운 아이들」,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3), 문학동네, 2013. 이하 같은 소설을 인용할 때는 제목과 면수를 밝히되 소설 속 표현을 서술에 직접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면수를 밝힌다. 소설 인용문에 대한 강조 표시는 모두 인용자가 첨가한 것이다.

^{189) 「}무서운 아이들」, 382면.

위해 어머니를 떠난다. 이때 딸이 떠나는 것은 공간으로서의 집이라기보다 어머니가 가족 내 여성으로서 수행하는 생활력의 다른 말인 '계획성'이라는 추상적 가치이다. 두 소설에서 박완서가 집을 떠나는 딸들의 복잡한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사화한 바는 없지만 떠나던 당시를 회상하는 딸들을 그림으로 써 자립의 동인을 밝히는 점은 독특하다. 이러한 사실은 딸들의 자립을 보편적인 생애주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읽으려는 시도를 무력하게 한다. 요컨대「무중(霧中)」의 딸인 '나'와「무서운 아이들」의 딸인 '그 여자'는 각각어머니와의 소통 불가능성으로부터, 어머니의 계획성으로부터 탈출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자립한다.

그런데 박완서 소설에서 부모로부터 자립하려는 자녀의 심리는 딸의 경우 뿐 아니라 아들의 경우에도 자주 그려진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다만 아들의 경우 집 혹은 부모님을 물리적으로 떠나기보다 방 문을 닫음으로써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무중(霧中)」,「무서운 아이들」과 비교할 만한 소설로 1971년《월간문학》9월호에 발표한「어떤 나들이」가 있다.「어떤 나들이」190)의 '나'는 남편, 그리고 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이자 어머니이다. 다른 가족들이 걸어 나가는 "댓돌에서 대문까지의 이 미터"(42면)를 쉽게 넘지 못한 채 "열한 평의 파수꾼"(51면)으로 지내는 일상에 갑갑함을 느낀다. 해야 할 일이 문 밖에 있는다른 가족들과 달리 '나'가 할 일은 열한 평의 집 안에 있으며 그것도 아주조금밖에 없다. "너무 적"(38면)은 빨랫거리와 청소를 마치면 '나'는 찬장 맨뒤에 숨겨 둔 소주 한 병을 마시며 비소로 자유로워짐을 느낀다. '나'를 무료하게 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어느덧 자신의 "보살핌을 아주 조금밖에 필요로 하지 않"(39면)을 만큼 커버린 아이들이다.

이 연구에서 살필 장면은 고등학교 3학년인 큰아들이 어머니인 '나'로부터 분리되어 혼자만의 공간을 확보하려 하는 장면이다.

¹⁹⁰⁾ 박완서, 「어떤 나들이」,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1), 문학동네, 2013. 이하 같은 소설을 인용할 때는 제목과 면수를 밝히되 소설 속 표현을 서술에 직접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면수를 밝힌다. 소설 인용문에 대한 강조 표시는 모두 인용자가 첨가한 것이다.

3-[a]

더욱 분한 것은 내가 만든 옷을 거부할 임시부터, 그러니까 여남은 살부터 자식들은 내 보살핌까지 멀리하려 들더니 어느 틈에 패류(貝類) 처럼 단단하고 철저하게 자기 처소를 마련하고 아무도 들이려 들지 않 는 것이다.

나에겐 패류의 문을 열 불가사리의 촉수 같은 악착같고 지혜로운 촉수가 없다. 나에겐 또한 남편이나 자식들의 것 같은 스스로를 위한 패각(貝殼)도 없다. 도저히 그들이 나에게 후하게 베푼 무위와 나태로 부터 나를 지킬 도리가 없다. ¹⁹¹⁾

3-[b]

드디어 아들의 왁살스런 손이 내 상반신을 거칠게 떠밀어 **문밖으로** 내쫓으며

"나가줘요. 제발 나 좀 혼자 있게 내버려둬줘요. 시험이란 말예요, 시험."

미닫이가 짝 하고 금속성인 소리를 내며 닫히고, 불의에 떠밀린 나는 몸을 가누지 못해 툇마루 밑으로 동그라진다. (중략)

거부—**완강한 거부**, 딱해하는 것조차 거부당한 것이다. (중략)

- -나가줘요, 제발-
- 그 소리는 귀에 싱그러울뿐더러 퍽 암시적이다.192)

십대가 된 세 아들은 마치 외부로부터 자신을 차단할 껍데기를 가진 패류처럼 '나'에게 더이상 곁을 내어주지 않는다(3-[a]).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듯한 세 아들의 변화에 '나'는 어찌할 도리를 모르고 망연히 나태해져 간다. 큰아들이 방에 들어 온 어머니 '나'를 '문밖으로 내쫓으며' 나가달라고 외치는 장면(3-[b])은 박완서 소설 속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자립하고자 할 때보이는 '완강한 거부' 반응을 잘 보여준다.193) 이는 위에서 살핀 「무중(霧中

^{191) 「}어떤 나들이」, 39~40면.

^{192) 「}어떤 나들이」, 48면.

¹⁹³⁾ 박완서 소설에서 '닫히기 위해 있는 문'은 아들, 남편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차용되는 소재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 『서 있는 여자』가 있다. 『서 있는 여자』에서 아버지의 닫힌 서재 문 앞에 서서 떨고 있는 어머니를 딸이 발견하는 설정은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무서운 아이들」의 딸들이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집을 떠나 자립하기로 결심하는 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방 문을 닫음으로써 집 안에 혼자만의 공간을 확보하여 부모로부터 독립된 자기만의 세계를 꾸리기 시작하는 「어떤 나들이」의 큰아들과 달리「무중(霧中)」,「무서운 아이들」의 딸들은 집을 떠나며, 그리하여 어머니를 떠난다. 이처럼 박완서의 초기 단편소설에서 딸의 자립이 어머니를 떠나는 일로 설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학적 효과는 후기 단편소설에서 딸에게 승계되는 책무가 어머니를 돌보는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따져볼 때 선명해진다. 나고 자란 고장을 떠났던 박완서의 딸들은 '어머니의 딸'로서 복귀한다.

그런데 박완서 소설 속 '어머니의 딸'들이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대해 일관된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먼저 1981년 《문학사상》 8월호에 발표한 「엄마의 말뚝 2」는 결혼을 통해 '출가외인'이 된 딸이 어머니가 낙상한 소식을 듣는 순간뿐 아니라 어머니를 간병하는 도중에 느끼는 양가적 감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단편소설이다. 「엄마의 말뚝 2」194)의 '나'는 폭설이내리던 날 친구 농장을 방문하여 오랜만에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다.집 앞에 다 와서야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집 생각을 안"(94면) 하였음을 깨달은 '나'는 "여지껏 경험한 섬뜩한 중에서도 최악의"(같은 면) 느낌을 맛본다. '나'가 "집 걱정은 조금도 안 하고 바깥 재미에 흠뻑 빠졌다가 돌아왔을때 영락없이 집에선 어떤 사고가 기다리고 있었"(83면)기 때문이다. 가족 중누군가 "재난"(94면)을 당하고 있으리라는 섬뜩함을 안고 있던 '나'가 듣게된 소식은 어머니 사고 소식이었다.

4-[a]

놀라지 말라는 말처럼 사람을 놀라게 하는 데 효과적인 말이 또 있을까. 그러나 나 역시 후들대는 가슴을 진정하기 위해 생각나는 말도 그 말밖엔 없었다. 놀라지 마. **내 식구**는 내 눈앞에 저렇게 건재하지 않니? 사람이 성한 그 나머지 재난 같은 건 나는 하나도 안 무서

¹⁹⁴⁾ 박완서, 「엄마의 말뚝 2」, 『엄마의 말뚝』(박완서 소설전집 결정판 11), 세계사, 2012. 이하 같은 소설을 인용할 때는 제목과 면수를 밝히되 소설 속 표현을 서술에 직접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면수를 밝힌다. 소설 인용문에 대한 강조 표시는 모두 인용자가 첨가한 것이다.

4-ГЫ

"외할머니가 다치셨대. 엄마."

"눈에서 넘어지셨는데……."

"중상인가 봐."

"정신을 잃으셨는데 아직 못 깨어나셨대."

"엄마 오시길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기다리다 못해 우리끼리 먼저 지금 병원을 가는 길이오. 당신도 같이 가겠소?"

식구들이 모두 한마디씩 했다. 나를 비난하는 투는 조금도 없었는데도 나는 부끄러워서 그들로부터 숨어버리고 싶었다.

"아, 아니에요. 얼른 먼저들 가세요. 곧 뒤미처 갈게요. 가슴이 떨려서요. 다리도 떨리고요."

나는 울먹이며 화끈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거봐. 엄마 쇼크받았잖아. 그렇게 한꺼번에 말해버리는 게 어디있 니?"¹⁹⁶⁾

4-[c]

나는 (중략) 내 방을 걸어 잠그고 방바닥에 쓰러졌다. 충격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졸음 때문이었다. 나 없는 동안에 일어난 재난의 당사자가 내 식구가 아니라 친정어머니라는 걸 알아들으면서 속으로 나는 얼마나 **안도하고 기뻐했던가**. 그 사실이 나를 심히 민망하고 부끄럽게 했지만 그런 죄책감조차 별로 절실하지도 못해 들입다 잠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197)

4-[d]

짧고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찬물을 끼얹듯이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내 아이들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육친이듯이 어머니 역시 가장 가까운 육친이라는 거였다. (중략) 더군다나 어머니에게 나는 단지 하나 남은 일촌이었다. (중략) 하나밖에 안 남은 손가락에 대한 집착과 애정

^{195) 「}엄마의 말뚝 2」, 95~96면.

^{196) 「}엄마의 말뚝 2」, 96면.

^{197) 「}엄마의 말뚝 2」, 97면.

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 생각이 나를 소스라치게 했다.

식구들로부터 어머니 사고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부터 그 의미를 체감하 기까지의 반응을 시간 순서에 따라 보여주는 위 인용문은 '나'가 어머니 딸 로서 자신을 정체화하는 방식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준다. '나'는 자신의 섬뜩 한 예감의 대상이 자기 '식구'가 아니라는 데 우선 안심한다(4-[a]). 뒤이어 어머니 사고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보이나(4-[b]) 이내 그 소식을 듣는 찰나의 순간 '안도하고 기뻐했'음을 몰래 고백한다(4-[c]). 그렇게 잠들었다가 깨어난 '나'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하나 남은 일촌'임을 불현듯 떠올린다 (4-[d]). '나'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지고 있음직한 집착과 애정에 대하여 책 임감을 느낀다. 어머니에게 일어나는 일을 "제일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98 면)이 바로 딸인 자신임을 회피하기를 멈추고 병원으로 향한 '나'가 응급실에 당도하여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당신의 "달갑잖은 존재"(99면)를 여실히 느 끼며 "단 하나 남은 자식"(98면)을 기다렸을 어머니의 "서러운 눈물"(같은 면) 이다. 그 서러움은 자식 부부도 아닌 "한 세대를 건너 뛰어"(99면) 장손 부부 에게 노후를 의탁한 어머니의 것이자, 하나 남은 일촌으로서 회피해서는 안 될 "책임"(98면)을 되새기게 한다는 점에서 '나'의 숙제이다. '나'가 어머니의 치료 과정에서 견디기 어려워 하는 한 가지는 어머니에 대한 모욕과 무례함 이다. '나'는 조카가 수술 동의서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어머니의 동의 없이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육신에 그런 모욕을 가하고 싶지 않"(104면)다고 느끼며, 수술실에서 나온 어머니의 "벌거벗은 어깨"(117면)가 드러난 것을 보고 "그런 무례함을 참을 수 없어 홑이불을 끌어올려 목만 내 놓고 꼭꼭 여"(같은 면)민다.

'나'는 쉬지 않고 말을 하는 어머니에 대한 "짜증"(12면)을 숨김 없이 드러내지만 수술 후 마취에서 풀려나는 반각성 상태에서 환각으로 군관을 보고, 당신 다리를 아들로 여겨 감추려는 어머니의 기괴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딸인 자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어머니와 함께 겪은 "곤경의 특수성"(131~132면)을 반추한다. 병상에서 딸의 간병을 받는 어머니가 과거 아들을 잃었던 충격을 떠올리며 공포에 가까운 광기에 휩싸이는 장면은 "아들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딸 사이에 존재하는 고통스러운 관계를 슬그

머니 내비친다"198)기보다 어머니의 악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 아들/오빠의 죽음을 함께 목격하고 처리한 딸뿐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어머니와 더불어 해쳐온 '곤경의 특수성'은 딸로 하여금 어머니를 '딸의어머니'로 호명할 자리를 마련하도록 독려한다. 즉 박완서는 어머니 돌봄을수행할 책무를 딸에게 승계함으로써 '딸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의 딸'이라는 이름을 딸에게로 거두어들인다.

한편 1995년 《문학동네》 봄호에 발표한 「환각의 나비」에서는 자녀 중 누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을 두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딸의 입장이 조명된다. 박완서의 후기 단편소설로 분류할 수 있는 「환각의 나비」는 "노년의 삶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예전보다 더 각별해졌음"199)을 보인다. 그렇다면 박완서가 '노년의 삶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어머니의 노년의 삶에 대한 딸의 관심으로 굴절함으로써 조명한 진실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이 연구는 「환각의 나비」200)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부양하고자 하는 딸의 욕망을 어머니의 행복과 자기 행복을 동일시하는 딸의 심리로부터 건져올린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5-[a]

소녀 적부터 영주는 장차 **화려한 성공**을 거두어 어머니 호강시킬 것을 꿈꿀 때가 가장 살맛이 나고 즐거웠다. 그렇게는 못 되었지만 그 렇게 되었다고 해도 어차피 **어머니의 행복**과는 상관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참담하게 했다.²⁰¹⁾

¹⁹⁸⁾ 김수진, 「정상성과 병리성의 경계에 선 모성 : 박완서의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엄마의 말뚝 2〉와 아니예츠카 홀랜드의 〈올리비에, 올리비에〉를 중심으로」, 심영희·정진 성·윤정로 공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 어머니의 성, 삶, 정체성』, 나남출판, 1999, 297 면.

¹⁹⁹⁾ 권명아, 「딸아, 괜찮다 괜찮아 이 계절의 작가 박완서」,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1996.8, 282면.

²⁰⁰⁾ 박완서, 「환각의 나비」, 『그 여자네 집』(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6), 문학동네, 2013. 이하 같은 소설을 인용할 때는 제목과 면수를 밝히되 소설 속 표현을 서술에 직접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면수를 밝힌다. 소설 인용문에 대한 강조 표시는 모두 인용자가 첨가한 것이다.

^{201) 「}환각의 나비」, 60~61면.

5-[b]

그러나 영주는 어머니의 눈빛이 그렇게 방어적인 걸 본 적이 없었다. (중략) 눈빛뿐만 아니었다. 그 조그만 몸이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당장 물어뜯으며 덤벼들 것처럼 긴장해서 털끝까지 곤두서 있다는 걸 자기 몸처럼 느낄 수가 있었다. 어머니 혼자서 대항하기에 이 세상은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었을까.202)

5-[c]

영주는 어머니를 안았다. 나쁘지 않은 비누 냄새가 났다. 방 안도 간소하지만 정결했다. 벽에는 풍경화까지 두어 점 걸려 있었다. 화장실까지 딸린 방이면 아파트에선 안방에 해당할 터였다. 처음부터 동생네가 어머니에게 그 방은 내준 걸 영주는 여간 고맙게 여기지 않았었다. 그 기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주는 품안에 들게 작은 어머니의 등을 토닥거리다가 살살 쓰다듬기 시작했다. 영주가 지금 쓰다듬고 있는 건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곤두서려는 분노일 수도 있었다. 203)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는 것을 자신의 '화려한 성공'의 목표로 삼았던 '영주'(5-[a])는 자물쇠가 채워진 방에 갇혀 몹시 예민해진 어 머니의 상태를 '자기 몸처럼' 느끼며 괴로워한다(5-[b]). 품에 안은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며 자기 안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장면(5-[c])에서 어머니의 처 지에 대한 영주의 심리적 동일시가 극대화되는데 그에 따라 아픈 어머니를 자기가 돌보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게 추동된다.

남편도 아들도 아닌 딸이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까닭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제시한 소설로 1997년 《라쁠륨》 봄호에 발표한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가 있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²⁰⁴⁾에서 처음 얼마 동

^{202) 「}환각의 나비」, 71~72면.

^{203) 「}환각의 나비」, 72면.

²⁰⁴⁾ 박완서,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그 여자네 집』(박완서 단편소설 전집6), 문학동네, 2013. 이하 같은 소설을 인용할 때는 제목과 면수를 밝히되 소설 속 표현을 서 술에 직접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면수를 밝힌다. 소설 인용문에 대한 강조 표시는 모두 인용자가 첨가한 것이다.

안 오빠의 의견에 따라 간병인을 고용하여 어머니를 돌보다가 곧 '나'가 어머니를 돌보게 된 경위는 다음 장면에서 드러난다.

6-[a]

수술 후 어떻게 된 게 항문의 괄약근이 고무줄 빠진 것처럼 열린 채 오므라드는 작용을 못 하니 아무리 깔끔한 어머니도 속수무책이었다.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려니 했다.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하셨다. (중략)

그때만 해도 간병인이 어머니를 돌보고 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 잡 술 것만 해 나를 적이었는데 경험 많은 간병인은 그런 나를 노골적으로 못마땅해했다. (중략) 이런 환자에게 가장 좋은 약은 덜 먹이는 것밖에 없으니 먹을 것 좀 작작 해 나르라는 거였다. 내가 안 볼 때 그 여자가 어머니에게 잡술 걸 제대로 드릴 리 만무했다. 그걸 안 이상 어머니를 그 여자에게 맡길 수가 없었다. 내가 설사 그 여자보다 어머니를 더 구박하게 될지라도. 205)

6-[b]

내가 떠맡고 싶은 건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똥구멍이었다. 생판 남이 어머니의 똥구멍을 진저리 치며 구박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그건 효도 따위보다 훨씬 **진실하고 씩씩한 분노**였다.

하필 항문의 고무줄이 빠질 건 뭐였을까,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그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을까. 나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대가로라도 **그 치욕을 다소나 마 가려주는 일**을 맡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206)

수술 후 어머니가 겪게 된 가장 큰 곤란은 항문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생긴 변실금이다. '경험 많은 간병인' 말처럼 환자와 간병인 모두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는 환자가 먹는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만큼 현실적인 대안도 없을 것이다(6-[a]). 그럼에도 '나'는 항문 괄약근을 의지대로 조절하지 못하

^{205)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129면.

^{206)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129~130면.

게 된 어머니가 느낄 '참을 수 없는 치욕'에 분노하며 '그 치욕을 다소나마 가려주는 일'을 직접 하고자 한다(6-[b]).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에서 '나'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체 활동 중 하나인 배변 활동을 혼자서 하지 못하게 된 어머니의 체면을 지킬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라고 느낀다. 따라서 '나'가 느끼는 '진실하고 씩씩한 분노'는 어머니의 체면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승화된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가 이룩한 문학적 성취는 돌봄의 의미를 의존인의 체면을 지켜주는 문제로부터 탐색한다는 점이다. 질병과 노화에 의해 어머니의 체면 유지가 어려워질 때 딸인 '나'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는 명분이 발동된다. 다시 말해 '나'는 어머니의 신체 기능이 취약해질수록 어머니의 사적인 생활 공간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한다.

6-[c]

난 방귀를 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싶다우.

(중략) 나는 느닷없이 끼어든 그 말이 마치 순조로운 차의 흐름 속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가슴이 철렁하면서 진저리가 쳐졌다. 우습기는커녕 여지껏의 즐거운 기분이 일시에 깨어나는 듯했다. (중략) 늙어갈수록 생리현상을 참는 기능이 헐거워지는 건 사실이나 어머니가 못 참아낼까봐 두려워하는 건 단지 그뿐이 아닐 것이다. 사람의 체면 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온갖 것들이 포함된 것처럼 느껴지는 건 어머니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믿는 딸의 감상 이상의 것,연민이었다.207)

6-[d]

방구를 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살고 싶다던 어머니가 하필 말년에 괄약근이 열린 채 다물 줄 모르게 될 건 또 뭘까. 나는 도저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난해한 아이러니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208)

^{207)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133~134면.

^{208)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138면.

6-[e]

어머니 옷갈피에는 어디서 난 건지 흔히 향(香)비누라고 일컫는 냄새 좋은 세숫비누가 구메구메 들어 있었다. (중략) 행여 늙은이 냄새가 날세라 그렇게 철저히 대비를 했던 것이다.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추레 해지는 걸 극도로 두려워했던 어머니다운 자기 관리였다.

그런 어머니가 지금 딸네 집에 악취를 풍기며 누워 있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무슨 권리로 어머니를 그렇게까지 희롱해도 된단 말인가.** 하 필이면 우리 어머니를.²⁰⁹⁾

위의 세 인용문은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속 모녀 관계에서 어머니 처지에 대한 딸의 연민과 분노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어머니의 임종 후 홀로 지내는 아버지를 '나'의 집와 가까운 곳으로 모시려고 하는 장면에 이르면 나이든 부모를 돌보는 일을 다소 낭만화하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위에서 살핀 바「환각의 나비」에서 박완서가 모녀의 유대 관계를 신비화하고 어머니를 돌보는 딸의 행위를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그림으로써 노정한 한계와 유사하다.

6-[f]

까딱하면 아버지의 임종을 책임지게 될지도 모를 이번 결정을 후회할지 안 할지는 더군다나 알 수 없는 일이다. 일생을 자기의 한숨 소리 한 번 제대로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잔뜩 오므리고만 사신 어머니가 자기 항문도 못 오므리게 된 치욕적인 마지막을 보냈으니까, 식구들한테 못 할 노릇만 시키면서 너절하게 산 아버지는 혹시 우아하게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요행수를 바란 건 아닐까? 그건 아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해드린 은혜 갚음을 하고 싶은가? 그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어머니 편에만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차라리 공식이 통하지 않는 그 난해함 때문에 그 일을 한 번 더 해보고싶다는 게 조금은 더 맞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다.

오빠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시종일관 길기만 하고 재미없는 영화가 마침내 끝났구나, 하는 얼굴로 상주 노릇을 했다. 길고 재미없는

^{209)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141면.

영화는 아무도 또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난해한 영화**를 보고 나면 혹시라도 이번엔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한두 번 더 보게 되는 수가 있다.²¹⁰⁾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딸들의 형상, 즉 어머니를 돌보는 일차적 주체가 됨으로써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는 딸들의 형상은 돌봄 (노동)을 여성의 모성(성)으로부터 발현되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보는 관점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그럼에도 나이든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질병(「환각의 나비」,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끝나갈 때」)및 사고(「엄마의 말뚝 2」)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그러한 어머니를 돌보는 딸의 심리적 반응을 복잡화한 데 박완서 소설의 의의가 있다. 특히 어머니 돌보며 어머니에게로 무한히 가까워지는 딸을 그림으로써 '딸의 어머니'라는 이름과 '어머니의 딸'이라는 이름을 재차 길어 올린다는 점에 주목함 직하다. 즉 박완서 소설 속 돌봄은 결속 양상과 더불어 어머니와 딸을 새로운 위치에 세우는 주된 장치이다.

^{210)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149면.

3.2. '딸의 어머니' 자리 찾기의 보람과 굴레

모든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나이들수록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해진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노인기 돌봄 문제가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부정하기란 어렵다. 노인 부양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부양을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공적 부양과 사적부양으로 구분하고 있다.211) 우리 사회의 노인 부양 구조가 사적 구조에서 공적 구조로 이양하고 있다는 분석은 1980년대에 이미 가능했으며 사회 정책의 측면에서 노인에 대한 공적 부양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었음이 보인다.212)213) 1990년대에 들어서까지 이어지는 논의의 흐름214)은 1990년 제3차 가족법 개정(1990년 1월 13일 개정 공포, 1991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호주의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가 법률상 약화되어가던 추세215)216), 실질적 돌

^{211) &}quot;노인을 부양하는 기능은 크게 나누어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사적부양기능 중에는 가족부양과 자기부양 등의 유형이 있다. 가족부양이라 함은 주로 자녀들에 의해서 부양받는 것을 말함이고, 자기부양은 청장년시기에 적금, 주식투자, 보험, 부동산투자 등으로 사전비축을 하거나 노년기의 생계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노후보장의 주된 수단은 가족부양이었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산업화함에 따라 그 기능은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21세기 초에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박재간,「21世紀 老人問題와 私的扶養機能」,『한국노년학』 Vol.5 No.1, 한국노년학회, 1985, 54면.

²¹²⁾ 박재간, 위의 글, 54~61면; 이의자, 「우리 나라 老人問題에 관한 序設的 研究」, 『논문 집』 Vol.5 No.2, 경성대학교, 1984, 341~358면; 이성구, 「老親을 위한 公的扶養의 法理」, 『한국노년학』 Vol.7 No.1, 한국노년학회, 1987, 93~105면.

²¹³⁾ 김명자·손서희는 '부양'의 개념을 정의한 1980~90년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정리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 부양은 노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주는 정서적 부양, 가정 내에서의 신체적 독립과 가사 운영 및 가정생활에 필요한 청소, 세탁, 심부름, 간병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적 부양, 그리고 금전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경제적 부양 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김명자·손서희, 「기혼자녀(아들,딸)와 부모 간의 정서적 결속도에 따른 부양행동」,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43 No.7, 대한가정학회, 2005, 38면.

²¹⁴⁾ 윤종주, 「우리나라 노인부양구조(老人扶養構造)의 변화(變化)」, 『보건사회연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91, 58~81면.

^{215) &}quot;1889년 일본은 대일본제국헌법의 공포와 함께 천황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천황제 국가 체제를 법적으로 확립했다. 일본 국민은 천황을 가부장으로 삼는, 일본국이라는 이에(家)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았다. (…) 천황의 이에는 곧 일본이며, 이를 구성하는 각각의 이에에는 가부장인 호주가 여타 가족 구성원을 지배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력을 지녔다. 가족은 호주의 권위에 복종했다. 이 관계를 법으로 정한 것이 민법과 호적법이

봄 수행 역할을 맡아 온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하던 사회적 분위기,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령 인구가 증가하던 추세와 관련이 깊으며 노인이 장남 부부와 동거하는 전통적인 가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노인 부부 가구 혹은 노인 단독 가구의 비율이 급증하였던 문화·사회적 변화를 반영한다.217) 다시 말해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90년대 초반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부양체계, 즉 "부모세대가 그들의 전생산활동가능시기 동안에 모든 정신적·물질적 노력을 자녀의 출산·양육·교육·혼사 등에 투입하는 대신 노후생활을 그들로부터 전적으로 보장받는 구조"가 "무너짐으로써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218)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강구되기 시작하던 때이다.

한편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1997년을 전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²¹⁹⁾ 요컨대 이 시기 연구는 "사적 부양의식이 퇴조"²²⁰⁾하였음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동시에 "노인의 공적 부양체제의 확충

었다."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 편찬위원회,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한울, 2005, 29면.

[&]quot;조선 시대에도 호적제도는 존재했다. 그러나 이는 일제강점기의 호적제도와는 달리 실제생활 공동체, 즉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 이러한 전통적인 호적제도는 1896년에 실시된 「호구조사규칙」에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 (…) 일본식 호주제도가 본격적으로 이식된 것은 1915년 일제 식민 정부의 민적법 개정 때부터였다. (…) 1915년 민적법(民籍法)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인구조사 방식을 폐지하고 실제 거주 상태와 무관한 추상적인 '가(家)'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 이는 식민지 조선인의 사회적 정체성이가족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위의 책, 32~33면.

^{216) &}quot;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의 한국가정법률삼담소를 중심으로 시작된 가족법 개정 투쟁은 1973년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가 결성되면서 여성운동의 핵심 투쟁이 되었다. 여성운동은 결혼과 가족, 친족관계에서의 여성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가족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촉구해 왔지만, 유림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은 미풍양속과 전통을 내세우며 가족법 개정에 반대했다. 19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의 분위기에서 탄생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합세하면서 가족법 개정 운동이 큰 힘을 얻어 1989년의 대폭적인 개정을 이끌어냈다. 가족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호주권은 거의 유명무실해졌지만 남성 중심적인 호주 승계 순위와 호적편제, 부가입적혼(婦家入籍婚) 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위의 책, 276~277면.

²¹⁷⁾ 안혜숙, 「한국노인의 공적 부양」, 『논문집』 Vol.18, 상지대학교, 1997, 327면.

²¹⁸⁾ 윤종주, 앞의 글, 59면.

²¹⁹⁾ 이희배,「한국(韓國)에 있어서의 노인(老人)의 공적부양(公的扶養) — 사적부양(私的扶養) 과 관련하여」, 『외법논집』 4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187~208면; 안혜숙, 앞의 글, 325~344면; 한경혜,「만성질환노인 부양체계로서의 가족의 역할」, 『한국노년학』 Vol.18 No.1, 한국노년학회, 1998, 46~58면; 서혜숙·노정옥·길성숙,「한국노인부양의 가족중심적 성격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Vol.16, 동아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 1999, 399~415면.

²²⁰⁾ 이희배, 위의 글, 188면.

을 절실히 요청"221)하였다. 특기할 만한 점은 "지역사회 내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222)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가 서비스' 개념이 고안되기 시작한 시기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라는 사실이다.223) 그런데 이러한 연구가 대체로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형태의 변화를 장남 부부와 함께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주안점을 두는 통계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등의 통계 자료)에 터해 있다는 점, '사회로 진출하는 여성'이라는 변인이 장남의 아내, 즉 며느리를 가리키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등에서 장남 부부에 의해 수행되는 돌봄 형태만을 가시화하는 측면이 있다. 달리 말해 해당시기 주류 연구는 노인 돌봄 형태의 변화를 장남이라는 남성 가족 구성원과 그의 아내의 역할 중심으로 추적할 뿐 딸과 동거하며 돌봄을 받는 형태에 관하여는 기록하지 않는다.224) 이 같은 연구 경향은 딸로 하여금 노부모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주변적 위치에 머물게 하고 단지 소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문화·사회적 구조를 반영하는 한편 그것을 공고화하는 데 기여하므로 한계가 있다.225)

이 연구는 노인에 대한 돌봄 제공자로서 딸의 기여를 언급하지 않는 연구

²²¹⁾ 위의 글, 같은 면.

²²²⁾ 위의 글, 199면.

^{223) &}quot;다) 노인 재가 의료·복지서비스의 주요 정책 과제 : a)지역 단위의 서비스 제공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소생활권 단위로 지원센터(예: 보건소 등)를 설립, 재가 노인의 보건· 의료의 서비스센터로 육성하여야 한다. b)통합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단기주간 보호사업소에 가정방문 간호사를 파견하고, 노인요양시설과 병원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등 복지와 의료가 연계된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글. 200면.

^{224) &}quot;(…) 노부부만이 또는 노인 단독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이 급격하게 늘어서 1996년에는 이미 노인 인구의 53.0%가 되었다. 장남부부와 동거 중인 노인들 20.1%와 앞의 53.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26.9%의 노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 안혜숙, 앞의 글, 340면.

²²⁵⁾ 전길양·김태현은 부모에 대한 딸의 부양참여도를 사소한 것으로 여겨 온 전통적 부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부양자 역할을 딸이 수행할 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조망함으로써 딸의 기여도의 가치를 상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연구사적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어머니와 딸이 같은 성별로서 쉽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논의의 주된 근거로 든다는 점과, 부양 제공자로서 딸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궁극적인목표를 노부모 부양에 대한 딸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둔다는 점 등에서는 한계를 노정한다. 전길양·김태현, 「노모와 성인딸간의 상호작용과 부양기대감 - 부양기대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Vol.13 No.1, 한국노년학회, 1993, 17~38면.

사적 공백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지점을 박완설 소설에 나타난 딸의 어머니 돌봄 서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박완서는 노인에 대한 사적 부양 기 능이 약화되던 시기에도 아내, 며느리, 딸이 수행하는 노인 돌봄을 서사화함 으로써 어머니와 딸 관계에 관한 의미 있는 사유를 가능케 한다. 226) 그런데 돌봄 수행의 주체에 따라 인물 관계가 달리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 돌봄 서사의 유의미한 점을 포착할 수 있다. 특 히 며느리에 의한 노인 돌봄과, 딸에 의한 어머니 돌봄의 사례가 대조적이 다. 요컨대 박완서는 사적 부양의 약화란 장남 부부에게 기대되는 돌봄 수행 의 기대가 약화되던 현상이었음을 보여주는 축과, 노인 돌봄이 공공화 혹은 외주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딸이 적극적인 돌봄 수행자로 개입하게 되는 양상 을 보여주는 축을 가로지른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어머니를 돌보며 보람을 느끼는 딸이 다른 한편으로는 장남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빼앗았다는 생각에 면구스러움을 느끼는 양가적 반응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주부양자로서 어머 니를 돌보는 딸이 그 행위에 기쁨을 느끼면서도 긍지를 가지지 못하고 심리 적 어려움을 겪는 까닭, 즉 딸이 친정 어머니를 돌보는 행위에 접근하는 일 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문화·사회적 관습 및 구조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 다. 박완서 소설이 드러내는 모녀 관계의 독특함은 어머니에 대한 딸의 접근 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어머니에게 다가가는 딸의 모습을 그리는 데 있다.

박완서는 작품 세계 초기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 중반부터 노인(부모와 시부모) 돌봄 문제를 소설에서 다루었으며 1990년대에는 그 비중이 크게 늘었다. 등장인물의 성격 및 인물끼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노인 돌봄의 문제가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설정되는 경향은 주로 단편소설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발표 시기를 막론하고 박완서 소설 속 노인 돌봄의형태가 주로 사적부양, 즉 가족부양으로 이루어지며 노인 돌봄의 일차적인책임이 가족 중에서도 아내, 며느리, 딸에게 위임된다는 사실이다. 이들 작품

²²⁶⁾ 전문 돌봄사가 등장하는 소설도 있다는 점에서 박완서가 노인에 대한 돌봄의 공공화 또한 일찍부터 의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침묵과 실어(失語)」(세계의 문학, 1980), 「오동(梧桐)의 숨은 소리여」(현대소설, 1992) 등이 있다. 발표 시기에 따른 분포를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해당 작품을 처음 발표한 지면과 연도를 괄호 속에 밝힌다.

을 돌봄 및 부양 대상인 노인의 처지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필수도 있다.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가 된 경우, 치매에 걸린 경우, 암 또는 뇌졸중(중풍)에 걸린 경우이다. 그런데 배우자와 사별한 뒤 점차 치매 증상을보인다거나(「포말(泡沫)의 집」), 암 수술 후 합병증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처지가 되는 경우(「환각의 나비」)도 있으므로 소설 속 노인 인물의 처지에 따라분류해서는 각 작품군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서술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돌봄 혹은 부양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인물이 누구인지에 따라 몇편의 단편소설을 분류해 보았다. 227)

먼저 아내가 남편을 돌보는 단편소설로는 「저녁의 해후」(현대문학, 1984),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여성동아문집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정민), 1991), 「친절한 복희씨」(창작과비평,2006) 등이 있다. 남편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주부로서 남편을 돌보는 관계가 드러난 작품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작품이 있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병에 걸린 남편을 돌보는 아내가 등장하는 소설만을 살펴보았다. 돌봄자가 아내인 경우에는 아내가 주된 돌봄을 수행하고 자녀들이 종종 방문하는 방식으로 인물 간 관계가 형성된다.

다음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 혹은 시아버지를 돌보거나 부양하는 단편소설로는 「포말(泡沫)의 집」(한국문학, 1976), 「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다」(세계의문학, 1978), 「황혼」(뿌리깊은나무, 1979), 「천변 풍경」(문예중앙, 1981),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창작과비평, 1984), 「해산바가지」(세계의문학, 1985), 「오동(梧桐)의 숨은 소리여」(현대소설, 1992),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것」(상상, 1993) 등이 있다. 그런데 돌봄자 혹은 부양자가 며느리인 경우에는인물 간 관계가 다소 특이하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 첫째, 노인에 대하여정서 및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이 아닌 의식주를 제공하는 수준의 한정된 돌봄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둘째, 며느리가 노인과 마주하거나 대화하는 장면이 드물다는 점에서 돌봄이라기보다 물질적 부양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난다는점이다. 이 경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남편, 아이들, 친구들과 나누는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는 방식 혹은 며느리가 아이나 가사 도우미를 통해할 말을 전하는 방식으로 소통한다. 이는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노인에 대한

²²⁷⁾ 오남매의 어머니가 치매 걸린 뒤 자녀가 아닌 친언니('나'에게 이모)에게 의탁하는 단편 소설로 「후남아 밥 먹어라」(창작과비평, 2003)가 있다.

사적부양의 한계와 공적부양의 필요성이 정책적 차원에서 제기되기 시작하고 점차 심화되던 당대의 문화,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하여 살필 문제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문제 삼는 경우인 딸이 나이든 어머니를 돌보는 양상이 나타나는 소설로는 연작소설인 「엄마의 말뚝 2.(문학사상, 1981). 「엄 마의 말뚝 3.(작가세계, 1991)과, 단편소설인 「환각의 나비」(문학동네, 1995),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라쁠륨, 1997) 등이 있다. 돌봄자로서 딸 이 세워지는 네 편의 단편소설에서 돌봄 수행자(딸)와 돌봄 대상자(어머니)가 관계를 맺는 방식은 아내가 남편을 돌보거나 며느리가 시부모를 돌보는 단편 소설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하게 다른 특징을 보인다. 첫째, 딸은 다른 사람 이 아닌 자신이 어머니를 돌보아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 둘째, 딸 은 어머니의 심리 및 신체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보살핀다. 셋째, 딸은 자 신이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장남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죄 책감을 느낀다(이 점으로 인해 실제로 인물 간 갈등이 발생한다.). 딸의 이러한 반응은 가구 형태 및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감지되고 대안 마련이 촉구 되던 당대의 흐름과 겹쳐 보았을 때 더욱 의미심장하다고 할 만하다. 나이들 고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딸에게 주어지는 내적 보상(보람)과,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겪게 되는 갈등 및 심리적 어려움(면구스러움)에 주목한다면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사적 돌봄의 이중적 의미를 포착하게 된다.228)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살필 작품은 연작소설 「엄마의 말뚝 2」와 「엄마의 말뚝 3」이다. 이 두 연작소설은 돌봄과 관련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장례 절차를 두고 딸과 장손의 관계에서 딸이 어떠한 결정권도 갖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먼저 「엄마의 말뚝 2」에서 어머니는 유독 "정정한 목소리로"(146면) '나'에게 유언을 남긴다. 당신이 죽거든 묘를 쓰지 말고 "오래비"(147면)에게 한 것처럼 화장해서 개풍군 방향으로 "훨훨"(같은 면) 날려 달라는 유언은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같은 면) 딸밖에

^{228) &}quot;박완서 노년소설에서 주체는 초점 행위자인 노년이거나 치매를 간병하는 가족, 특히 딸이나 며느리가 주로 대상이 된다. 그들은 분명 공동체 내에 존재하지만 타자를 환대할 결정권은 부양의 허울만을 지닌 남성에게 있기에 공동체의 타자로 전락한다. 노년과 그들의 실질적 부양자인 여성은 모두 환대 주체로서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지만 가부장의 질서 속에서 외존하는 인물들이다." 우현주, 『박완서, 타자의 환대』, 소명출판. 2021, 319~320 면.

없다고 여긴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이었다. 그날 어머니가 잡아 온 손이 지녔던 전에 없이 "알맞은 온기와 악력"(146면)으로 인해 '나'는 "그짓을 또 한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148면)는 암시를 느낀다.

그러나 「엄마의 말뚝 3」에서 어머니 장례 절차를 장조카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나'는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1-[a]

"고모가 **할머니의 헛소리**에 헛소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신 다니 안심이에요."

조카는 비로소 정색을 하고 7년 전 첫 번째 대수술과 그 야단법석 끝에 나온 **할머니의 유언을 헛소리로 돌릴 뜻**을 분명히 했다. (중략) 그러나 그의 태도가 하도 단호하여 나는 주눅든 소리밖에 못 냈다.

"그건 절대로 헛소리가 아니었어, 너."

"그게 유언이었대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지키기 싫으니까요. 내 맘 이에요."

"쟤 말버릇 좀 보게나. 그게 뭐가 어렵다고."

"어렵다곤 안 했어요, 싫다고 했지. 할머니도 아버지처럼 화장해서 그 뼛가루를 고향이 바라다뵈는 바다에다 뿌리라구요? 고모 제발 다시 그런 유난떨 생각 말아요. 내가 싫은 건 할머니나 고모의 그 유난스러운 한풀이를 지금 이 시점에서 되풀이하는 거란 말예요. (중략) 저도 남들이 하는 대로 보통 장례를 치르고 싶단 말예요. 저도 사회적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는 사람이란 말예요. 상주도 저구요."

"그래애, 고몬 **출가외인**이다 이거지. 할머니 속으로 낳은 자식은 나하나밖에 안 남았는데도 싹 무시하겠다 이거지."229)

1-[b]

"고모, 화났우? 누가 감히 고모를 무시한다고 그러세요. 자아 화 푸세요. 할머니 묏자리 골라잡는 일은 전적으로 고모한테 맡길게요."

"얘는 묏자리가 무슨 보세 스웨터냐? 아무나 골라잡게."

그렇게 되받으면서도 싫진 않았는데 그것도 미리 정해진 거나 마찬 가지였다. (중략)

"그래도 연고권이 있는 데가 좀 납디다."

^{229) 「}엄마의 말뚝 3」, 162~163면.

"그럼 느이 엄마 산소가 있는 신천지 공원묘지 말이냐"

신천지묘원은 어머니가 너무 장수하신 탓에 앞세운 며느리를 장사 지낸 묘지였다. (중략)

"저도 거기가 썩 탐탁지는 않지만요, 산 사람 편의대로 해야지 어쩌겠어요. 명절 때 성묘가 큰일인데 어머니 산소하고 할머니 산소가 각기 딴 묘지에 떨어져 있어보세요. 부득이 한쪽은 접게 될지도 모르잖아요."230)

1-[c]

어머니의 장례 날은 푸근했지만 전날 밤에 많은 눈이 내려 교통이 걱정되었다. 해가 나면서 도심의 큰길은 눈이 다 녹아 별로 문제가 없 을 것 같았지만 묘지까지 올라가는 급한 경사길을 생각하면 아찔했다. 눈하고 어머니하고 무슨 악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으로부 터 산에 묻히길 원치 않는 어머니의 강력한 의사표시일지도 모른다는 허황한 생각까지 좋지 않은 생각만 꼬리에 꼬리를 물어 도무지 안절부 절을 할 수가 없었다.²³¹⁾

1-[d]

엄마 이제 그만 한 풀어. 그까짓 육신 아무 데 묻히면 어때 난 어떡하든지 엄마 소원 풀어주고 싶었지만 쟤들이 싫다는 걸 어떡해? 쟤들한테 져야지 우리가 무슨 수로 쟤들을 이기겠어. 실상 쟤들이 옳을 지도 모르잖아. 나는 엄마 치마꼬리에 매달리는 계집애처럼 어린 마음으로 울먹이며 빌었다.232)

어머니의 혼수상태가 계속 이어지던 어느 날 장조카는 어머니 유언에 '헛소리'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겠다고 선언한다(1-[a]). 이어 장례 방식뿐 아니라 묏자리를 정하는 일 역시 이미 조카가 내정한 대로 따르게 되는 대목 (1-[b])에 이르러서는 집안 큰일에 관한 결정권이 온전히 장조카, 즉 어머니의 종손에게로 일임되어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 내 권력이 장남에게 부착되는 까닭은 노부모를 부양할 일차적 책임이 장남 부부에

^{230) 「}엄마의 말뚝 3」, 163~164면.

^{231) 「}엄마의 말뚝 3」, 171~172면.

^{232) 「}엄마의 말뚝 3」, 173면.

게 지워지는 사적 부양체계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엄마의 말뚝 3」에서 어머니 장례 진행의 주도권이 장조카에게 무겁게 실리는 까닭은 어머니를 누가 돌보았는가와 별개의 문제처럼 보인다. 어머니 수술 이후 7년 동안 딸네와 맏손자네, 그리고 둘째손자네가 번갈아 어머니를 모셨기 때문이다. 어머니 부양/돌봄의 책임을 고르게 분담하였음에도 어머니 장례 진행의 주도권이 장조카에게 무겁게 실리는 까닭은 그가 '상주'로서 상징적 권력을 갖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간곡한 유언을 들은 '나'는 결혼한 딸이라는, 즉 '출가외인'이라는 자리로 밀려나 어떠한 결정권도 갖지 못한다.

'나'는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개운하고 상쾌"(163면)하다고 생각하는 한편, "그 짓을 하기가 싫었다"(같은 면)는 식으로 빠르게 포기하며 갈등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기실 '나'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지 못한 일로부터 그처럼 가뿐히 놓여나지 못하고 있으며(1-[cl), "의식 밑바닥에 응어리진 자책"(174면)을 더불어 어머니를 전송(餞送)한다(1-[dl). 이처럼 「엄마의 말뚝 2」, 「엄마의 말뚝 3」 연작은 여성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딸'이라는 자리가얼마나 불안정한가를 그린다.

한편 논의를 다시 돌봄의 문제로 가져와 분석할 단편소설은 「환각의 나비」이다. 「환각의 나비」는 노모를 부양하는 딸의 돌봄 수행의 의미를 왜곡하는 사회적 통념을 문제 삼는다. 영주는 아들이 아닌 딸에게 노후를 의탁하는 것을 치욕스러운 일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을 의식하며 모종의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 박탈감은 어머니가 "딸하고 사는 걸 굴욕스럽게 여기"(60면)리라 짐작하는 마음으로부터 촉발된다. 남동생 '영탁'이 결혼한 이후 친척들이 "어머니가 아들네로 안 가는 걸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같은 면)을지언정자기 처지에 대한 어머니의 의중을 추측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음에도 영주는 딸인 자신이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는 일이 오히려 어머니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로 여겨질까 주저한다. 이처럼 자신이 어머니를 부양하는 일이 '어머니의 행복'에 기여하지 않으리라는 왜곡된 신념을 갖게 되는 인물로 딸 영주를 세움으로써 박완서는 어머니에 대한 딸의 돌봄 수행의 가치가 사회적통념에 의해 폄훼되는 문제를 조명한다. 여기서 사회적 통념이란 "딸네에 의탁하거나 거기서 죽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치욕이라"(68면)고 보는

인식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환각의 나비」는 돌봄의 책무가 여성에게 일차 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²³³⁾ 그것이 여성에게 돌봄의 자격까지 승계됨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영주의 내적 갈등을 통해 서사화한다.

따라서 영주에게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자기 집에서 모실 명분을 구할 것이 암묵적으로 요구된다. 영주가 자기야말로 "어머니를 누구보다도 잘"(60 면) 안다는 것과, "장녀로서 동지로서 어머니와 함께해온 수많은 세월"(68면) 이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며 '어머니의 딸'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 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대학에 전임강사 자리를 얻어 서울 둔촌동에서 대전 까지 출퇴근을 하느라 어머니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는 없지 만 그럼에도 영주는 어머니를 자기 집에서 돌보는 일을 통해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2-[a]

그렇게 해서 다시 둔촌동으로 모셔온 어머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그전의 모습을 **회복**해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벌써 남을 무조 건 의심하고 경계하는 방어적인 눈빛과 몸짓은 사라진 뒤여서 식구들 은 아무도 할머니가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들이에서 돌아오 는 분 맞듯이 했다.²³⁴⁾

2-[b]

어머니의 손은 아직도 **든든하고 예뻤다**. 아, 아, 빨래를 꼭 다림질해놓은 것처럼 개키는 우리 엄마 손, 이러면서 어머니 손을 어루만지고 있노라면 경배하며 입 맞추고 싶은 따뜻한 충동에 사로잡히곤 했다.235)

²³³⁾ 에바 페더 커테이(Eva Feder Kittay)는 "의존인을 보살피는 임무를 **의존노동**이라 불러왔다. 이는 종종 돌봄이라 언급되기도 하지만 필자는 의존인에 대한 돌봄이 노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노동**(work)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또한 "의존노동자에 대해 젠더 중립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의존노동을 대부분 담당해 온 이들은 -엄마, 자매, 아내, 간호사, 그리고 딸인- 여성"임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의존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들이 "빈곤, 학대, 그리고 종속적인 지위에 보다 취약하게" 되는 구조를 설명하였다. 에바 페더커테이, 『돌봄: 사랑의 노동』(Love's Labor), 김희강·나상원 옮김, 박영사, 2016, 82~83면; 98면. 강조 표시는 원문의 표기를 따른다.

^{234) 「}환각의 나비」, 73면.

그런데 딸 영주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보살피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채 단지 둔촌동으로 모셔오자 어머니의 증상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다는 식으로 서술(2-[al)된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남동생 영탁이네 집에서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었음과 비교할 때 모녀 관계가 고부 관계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설정은 자칫 어머니를 가장 잘 보살필 수 있는 주체로 딸을 세움으로써 어머니와 딸의 유대 관계를 신비화하는 효과를 야기할수 있기에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또한 「환각의 나비」에서 박완서는 치매에걸린 어머니의 의존성에 대하여는 거의 무관심하며 영주가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다소 온정적으로 그리는 측면(2-[bl)이 있다.

그럼에도 「환각의 나비」가 나이들고 아픈 어머니를 직접 보살피고자 하는 딸의 심리를 복잡화하며 나아간 자리는 유의미하다 할 만한다. 이 소설은 주로 여성에게 돌봄의 책무를 부여하면서도 딸에게 어머니를 부양할 자격은 부여하지 않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갈등하는 딸 영주의 내면을 치밀하게 묘사하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돌봄의 대상인 "어머니에게는 이미 아들이냐 딸이냐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68면) 어머니는 "여기도 아닌 저기도 아닌데"(같은 면), 즉 과천으로 가고자 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영주는 어머니가 과천으로 가겠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아들네로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참담한 기분을 느낀다. 결국 "어머니의 입장은 무시된 채 돌봄 주체의 입장만이강조되"236)는 셈이다. 「환각의 나비」는 아들 아닌 딸이 어머니를 돌보고자할 때 갖게 되는 피해의식을 체득된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로전환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마지막으로 살필 작품은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이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는 딸이 어머니를 부양하는 일이 장남의 가족 내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일로 여겨지는 문제를 다룬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에서 어머니는 위암 수술을 받은 후 육 개월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나'의 집에서 간병을 받다가 임종한다.

^{235) 「}환각의 나비」, 74면.

²³⁶⁾ 우현주, 앞의 책, 334면.

3-[a]

"알아, 나도 다 알아, 네가 천사푠 거. 그렇지만 천사 옆에 서면 보통 사람도 나쁜 새끼밖에 해먹을 게 없이 되는 것도 할 짓이 아니다, 너. 어머니 때 그만큼 오래비 망신시켰으면 됐지, 이번엔 또 무슨 **망신**을 시키려고……"

"그때 오빠가 무슨 망신을 했다고 또 그 소리야. 약속대로 임종 즉시 영안실로 모셨잖아. 딸네서 죽은 귀신은 관에 그렇게 써 붙이기라도 한대?"²³⁷⁾

3-[b]

어머니가 우리집에서 돌아가시게 한 걸 오빠는 늘 그런 식으로 못 마땅해했다. (중략) 그때 오빠는 자기네만 못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 가 모시는 것도 반대했다. 딸이 모셔간 줄 알면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면서 간병비나 서로 분담하자고 했다.²³⁸⁾

위의 두 인용문에서 보듯 장남인 '오빠'는 어머니가 여동생인 '나'의 집에서 임종한 것을 장남으로서의 '망신'으로 여긴다. '나'가 어머니를 돌보기로한 데는 항문 괄약근을 조절하지 못하게 된 어머니의 체면을 지켜 드려야한다는 '나'의 책임감뿐 아니라(3.1.의 내용) 맞벌이하는 오빠와 올케 처지에말기 암환자를 돌볼 여력까지는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되었음에도 '나'는 딸로서 어머니의 임종까지 간병한 일 때문에 "죄지은 것처럼 위축"(126면)된다.

이처럼 박완서는 「환각의 나비」와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를 통해 "스스로 내면화한 사회적 규범과 내면의 불화를 서서히 의식하면서 살아가는"239) 여성 인물인 딸이 어머니를 돌보는 일과 관련하여 겪는 내적 갈등을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주목하였다. 박완서 소설 속 '어머니의 딸'들은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기꺼이 떠맡으면서도 그 일이 어머니에게 굴

^{237)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127면.

^{238)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128면.

²³⁹⁾ 이선미, 『박완서 소설 연구 - 분단의 시대경험과 소설의 형식』, 깊은샘, 2004, 75면.

욕적인 일이 될까 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며 자신의 돌봄 수행이 장남의 고유한 자격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것을 염려하는 등 위축된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박완서는 후기 단편소설에서 어머니 돌봄과 관련한 행위를 노동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지만,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 주어지면서도 그 주체가 딸일 경우 돌봄 수행자가 돌봄 행위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어머니의 딸'에게 있어서 돌봄을 통해 '딸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되찾는 일이란 한편으로는 보람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면구스러움을 벗어나기 어려운 일종의 굴레인 셈이다.

4. 결론

이 연구는 박완서 소설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된 문제의식으로서 모녀 관계의 독특성을 발견하면서 출발하였다. 지금까지 축적된 박완서 소설 연구 및 비평에서 주목해 온 측면을 작가의 독특한 모녀관과 각각 결합할 때 새로이 가시화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기왕의 박완서 소설 연구 및 비평의 주제들이 모녀 관계를 경유하면 첫째, 한국 전쟁기에 형성된 모성이 딸의 자기 정체감 획득에 끼치는 영향의 측면, 둘째, 중산층 가정의 어머니세대와 딸 세대의 생존 방식 차이의 측면, 셋째, 여성해방의식에 대한 세대론적 접근 가능성의 측면, 넷째,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온 딸이 수행하는 어머니 돌봄의 의미의 측면, 다섯째, 당대 주요 독자층으로서 주부 여성의 반응과 요구에 대한 이해의 측면이 부각된다. 이 연구는 모녀 관계에 대한 작가의 일관된 관심에 주목하되 첫째, 넷째 문제를 중심으로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박완서 소설 속 인물들이 특정한 상황의 이해관계에 따라 같은 편이 되기도 하고 다른 편이 되기도 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흥미롭게 포착하였다. 특히 어머니와 딸이 특정한 계기로 가까워졌다가 다시 느슨한 관계로 돌아가는 일시적 유대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결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박완서 소설의 모녀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대체로 한국 전쟁기를 바탕으로 한 소설에 경도되어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낀 이 연구는 1970~90년대까지의 소설을 두루 살폈다. 궁극적으로 이연구는 박완서 소설 세계가 모녀 관계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어머니와 딸이 공존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겹의 감정이 박완서 모녀서시의 중추가 됨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장 1절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전쟁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 나타 난 가족 인식의 협소화와 모녀 결속의 양상을 조망하기 위하여 「엄마의 말뚝 1」, 『나목』, 「부처님 근처」, 『목마른 계절』, 「엄마의 말뚝 2」, 『그 많던 싱아 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 전쟁 이전 시기인 「엄마의 말뚝 1」에서부터 어머니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형태가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전쟁이 초래한 가족의 남자 구성원들의 죽음과 관련하여 박완서 주목한 문제가 단순히 아버지 가장 없는 모자녀 가족 형태를 서사화하는 데 있기보다 가족의 남자 구성원들의 죽음 이후 어머니와 딸이 삶을 살아간 방식에 있었음을 화두로 올렸다. 이러한 관점으로 나머지 소설들을 분석했을 때 박완서 소설에서 아들의 신체·정신적 상해와 죽음이 가족 구성원으로 하여금 생존에 대한 불안을내면화하도록 하는 사건으로서 가족 밖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을 추동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사결정 역할이 모녀를 포함한 여자 가족 구성원에게 압도적으로 부과되는 계기가 됨을 분석하였다.

2장 2절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에 대한 기갈로부터 멀어지는 동시에 자기존재의 '가치 있음'을 확인하고자 분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딸의 서사가『나목』,『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목마른 계절』,『그 산이 정말거기 있었을까』에 걸쳐 마련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함 속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삶을 생기 있게 유지할 의지를 전적으로 상실할 때 도리어 딸에게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생존 반응으로서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려는 자기애가 발동되는 양상을 발견하고자 한 이 논문의 당초 목적이기도 하였다. 이 절에서는 『나목』에서 '옥희도'에 대한 이경의 사랑이 자기 긍정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3장 1절에서는 초기 단편소설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집을 떠났던 딸들이 후기 단편소설에서는 아픈 어머니 곁에 머물며 수행하는 돌봄의 상징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딸의 자립이 집을 떠나는 것일 뿐 아니라 어머니를 떠나는 문제로 복잡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단편소설로 「무중(霧中)」,「무서운 아이들」을 살폈다. 이를 통해 박완서 소설 속 성장기 아들의 자립이 '방문 단기'라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그려지는 데 비해 딸의 자립은 '집 떠나기'로 서사화된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딸의 자립 문제는 나이들고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주체로서 딸이 등장하게 되는 토대가 되며 딸들의 돌아옴이 어머니 돌봄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특히 어머

니를 돌보는 일차적 주체가 될 때 딸들이 느끼는 감정이 「엄마의 말뚝 2」의 경우와, 「환각의 나비」,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의 경우에서 상호 대비됨에 주목하였다.

3장 2절에서는 딸의 돌봄의 의미가 왜곡되는 양상에 착목한 박완서의 시선을 따라감으로써 모녀 간 돌봄의 굴레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후기 단편소설에서 돌봄 수행자(딸)와 돌봄 대상자(어머니)가 관계 맺는 방식은 아내가 남편을 돌보거나 며느리가 시부모를 돌보는 단편소설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하게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그 다름은 여성에게 돌봄의 책무를 승계하면서도 그 주체가 딸인 경우 돌봄의 자격은 부여하지 않는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기인하였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주도할 권한이 딸보다 장손에게 무겁게실리는 장면을 통하여 돌봄 수행자가 돌봄 행위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문제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엄마의 말뚝 3」을 읽었다. 「환각의 나비」,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는 딸 자신이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장남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빼앗는 일이라고 여기며 죄책감을 느끼는 양상이 두드러짐을 보였다. 어머니를 돌보는 딸에게 주어지는 내적 보상(보람)과,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겪게 되는 갈등 및 심리적 어려움(면구스러움)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사적 돌봄의 굴레를 독해하는 주요한 심리적 역동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의 끈끈함을 동성의 혈연 가족 구성원끼리 가질 수 있는 선험적인 것으로 한정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 이 연구는 모녀가 결속하고 갈등하면서, 혹은 생존하기 위하여 돌봄을 수행하면서 퇴적해 온 여러 겹의 감정 작용을 공존의 흔적을 의미화함으로써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 관계의 문학적 의의를 구명하는 자리에놓인다. 다시 말해 박완서 소설은 어머니에 대한 딸의 애정 및 그에 따른 실망, 그리고 증오 및 그에 따른 속죄를 풀어내는 대지이다. 그 광활한 대지에서 딸은 어머니를 이해하고자 끊임없이 애쓰며 어머니에게로 무한히 가까워진다. 여기서 박완서 소설 속 어머니를 '아들의 어머니'로 호명함으로써 모녀관계를 주변화해 온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만 하는 까닭이 분명해진다. 박완서는 결속과 돌봄이라는 모녀의 경험을 통해 '딸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의 딸'이라는 이름을 딸에게로 거두어들이기 때문이다. 이

는 박완서 소설 속 어머니를 향한 딸의 심리·정서적 분투를 이해하는 자리에서 어머니와 딸의 위치가 새롭게 발견된다는 점에 일관되게 착목한 이 연구의 결론이다. 또한 이는 딸이 어머니의 삶에 대해 말하는 방식으로 구축되는 모녀 서사가 갖는 문학사적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1) 소설
박완서, 『나목』(박완서 소설전집 결정판 01), 세계사, 2012. , 『목마른 계절』,(박완서 소설전집 결정판 02), 세계사, 2012. , 『엄마의 말뚝』(박완서 소설전집 결정판 11), 세계사, 2012.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박완서 소설전집 결정판 19)
세계사, 2012. ,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박완서 소설전집 결정판 20), 세계
사, 2012. , 「어떤 나들이」,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박완서 단편소설 전집1)
문학동네, 2013. , 「부처님 근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1)
문학동네, 2013. , 「무중(霧中)」,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3), 문
학동네, 2013. , 「무서운 아이들」,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3), 문학동네, 2013. , 「환각의 나비」, 『그 여자네 집』(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6), 문학동네
2013. ,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그 여자네 집』(박완서 단편소 설 전집 6), 문학동네, 2013.
(2) 기타 자료
박완서, 『프롤로그 에필로그 박완서의 모든 책』, 작가정신, 2020. , 민충환 엮음, 『박완서 소설어 사전』, 아로파, 2021.

2. 국내 논저

- 간호옥, 「현대소설에 나타난 노인부양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사업적 접근 : 박완서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Vol.11,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7~24면.
- 강영경 외, 『한국 여성사 연구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 강인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강인숙 평론 전집 3』, 박이 정, 2020.
- 김윤식, 『내가 읽은 박완서』, 문학동네, 2013.
- 안남연, 「가족 서사의 복원 혹은 해체」, 『한국문예비평연구』 No.46, 한국현 대문예비평학회, 2015, 111~132면.
- 권명아, 「박완서 문학 연구 억척 모성의 이중성과 딸의 세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가세계』, 세계사, 1994.11, 332~350면.
- ____, 「딸아, 괜찮다 괜찮아 이 계절의 작가 박완서」, 『실천문학』, 실천문 학사, 1996.8, 250~278면.
- _____, 「박완서 자기상실의 '근대사'와 여성들의 자기찾기」,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98.11, 389~410면.
- 김명자·손서희, 「기혼자녀(아들,딸)와 부모간의 정서적 결속도에 따른 부양행 동」,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43 No.7, 대한가 정학회, 2005.
- 김미영, 「박완서 소설 속 돌봄 인식 방식 연구」, 『국어문학』 Vol.72, 국어문학회, 2019, 195~229면.
- 김은정, 「모녀 서사를 통해 본 '치매'의 상징성 연구」, 『한국문학논총』 Vol.61, 한국문학회, 2012, 303~327면
- _____, 「현대소설에 나타난 치매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No.63, 한민족 어문학회, 2013, 313~340면
- _____,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질병의 의미」, 『한국문학논총』 Vol.70, 한 국문학회, 2015, 293~332면
- 김은하, 「애증 속의 공생, 우울증적 모녀관계 : 박완서의 『나목』론」, 『여성과 사회』 15, 2004.5, 112~130면.
- ____,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 『상허학보』 Vol.51, 상허학회, 2017, 21~22면
- 김지혜, 「현대소설에 나타난 치매 표상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No.72, 현대문학이론학회, 2018, 53~80면.
- 박재간, 「21世紀 老人問題와 私的扶養機能」, 『한국노년학』 Vol.5 No.1, 한국 노년학회, 1985, 54~61면.
- 박정애, 「여성작가의 전쟁 체험 장편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와 '딸의 성장' 연구 :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과 박완서의 『나목』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3, 2005, 311~336면.
- 박태상, 「박완서의 90년대 노년문학에 나타난 '가족갈등' 양상 갈등이론과 심리학적·사회학적 노년학 이론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No.76, 한 국비평문학회, 2020, 89~124면.
- 박혜경, 「사인화(私人化)된 세계 속에서 여성의 자기 정체성 찾기」, 『문학동 네』 제2권 제3호(통권 4호), 문학동네, 1995.08.15.
- , 『박완서의「엄마의 말뚝」을 읽는다』, 열림원, 2003,108면.
- 서동진 외, 『감성사회』, 글항아리, 2014.
- 서혜숙·노정옥·길성숙,「한국노인부양의 가족중심적 성격에 관한 연구」,『사회과학논집』 Vol.16, 동아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 1999, 399~415면.
- 송명희, 「노년 담론의 소설적 형상화 박완서의 「마른 꽃」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3 No.1,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2. 1~25면.
- 심영희·정진성·윤정로 공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어머니의 성, 삶, 정체성』, 나남출판, 1999.
- 안남연, 「가족 서사의 복원 혹은 해체」, 『한국문예비평연구』 No.46, 한국현 대문예비평학회, 2015, 111~132면.
- 안지나, 「1970년 한일 노년문학의 '치매' 표상과 젠더」, 『횡단인문학』 제3 호,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2019, 47~76면.
- 안혜숙, 「한국노인의 공적 부양」, 『논문집』 Vol.18, 상지대학교, 1997, 325~344면.
- 양영자, 「중산층 가정 시부모의 피돌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 박완서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Vol.14 No.1, 한국

- 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2020, 39~68면.
- 엄미옥, 「고령화사회의 문학 '치매'를 다룬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학 회』 Vol.24 No.1, 대중서사학회, 2018, 285~321면.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페미니스트 정신분석이론가들』, 여이 연, 2016.
- 오자은, 「1980년대 박완서 단편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존재방식과 윤리」, 『민족문학사연구』 Vol.50, 민족문학사연구소, 2012, 231~256면.
- _____, 「중산층 가정의 욕망과 존재방식 : 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론」, 『국어국문학』 No.164, 국어국문학회, 2013, 489~518면.
- _____, 「중산층 가정의 데모하는 딸들 : 1980년대 김향숙 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No.45, 한국현대문학회, 2015, 413~449면.
- _____,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정체성 형상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2.
- _____, 「무엇이 중산층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가: 70~80년대 중산 층 여성 소설들을 중심으로」, 『문화과학사』 No.95, 문화과학, 2018.9, 378~406면.
- 오준심·김승용,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 갈등 연구」, 『한국노년학』 Vol.29 No.4, 한국노년학회, 2009, 1341~1359면.
- 우현주, 「어머니의 법과 로고스(logos)의 세계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엄마의 말뚝 1」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No.49,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177~203면.
- ____, 『박완서, 타자의 환대』, 소명출판, 2021.
- 윤종주, 「우리나라 노인부양구조(老人扶養構造)의 변화(變化)」, 『보건사회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58~81면.
- 이선미, 『박완서 소설 연구 분단의 시대경험과 소설의 형식』, 깊은샘, 2004.
- _____, 「'여성'의 사회적 해석과 1976년의 박완서 소설 《휘청거리는 오후》의 대중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No.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10, 571~611면.
- 이선옥, 『한국 소설과 페미니즘』, 예림기획, 2002.

- _____,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 『또하나의 문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Vol.43,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7~36면.
- 이성구, 「老親을 위한 公的扶養의 法理」, 『한국노년학』 Vol.7 No.1, 한국노년학회, 1987, 93~105면.
- 이의자, 「우리 나라 老人問題에 관한 序設的 研究」, 『논문집』 Vol.5 No.2, 경성대학교, 1984, 341~358면.
- 이희배,「한국(韓國)에 있어서의 노인(老人)의 공적부양(公的扶養) 사적부양 (私的扶養)과 관련하여」, 『외법논집』 Vol.4,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187~208면.
- 전길양·김태현, 「노모와 성인딸간의 상호작용과 부양기대감 부양기대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Vol.13 No.1, 한국노년학회, 1993, 17~38면.
- 정미숙·유제분,「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시학」,『한국문학논총』 Vol.54, 한국 문학회, 2010, 273~300면.
- 정연희, 「박완서 단편소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의 '여성가족로 맨스'와 돌봄의 영적 의미」, 『현대소설연구』 No.87, 한국현대소설학 회, 2022, 515~540면.
- 정우경,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 나타난 '돌봄 주체화' 양상」, 『한국 현대문학연구』 No.63, 한국현대문학회, 2021, 85~112면.
- 한경혜, 「만성질환노인 부양체계로서의 가족의 역할」, 『한국노년학』 Vol.18 No.1. 한국노년학회, 1998, 46~58면,
- 한경희, 「박완서 작가 연구 대중·민중·여성문학장에서 '주부'의 발화 위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2.
-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 편찬위원회,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한울, 2005.
- 홍기령, 「신화적 사유 속의 모녀관계: 여성주의 정신분석학을 방법론으로」, 『아시아여성연구』 Vol.45 No.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6.5, 284면.

2. 국외 논저

- Adrienne Rich,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Essential Essays: Culture, Politics, and the Art of Poetry), 이주혜 옮김, 바다출 판사, 2020.
- Amia Srinivasan, 『섹스할 권리』(The Right of Sex), 김수민 옮김, 창비, 2022.
- Caroline Knapp, 『욕구들 여자들은 왜 원하는가』(Why Women Want), 정지인 옮김, 북하우스, 2021.
- Eva Feder Kittay, 『돌봄: 사랑의 노동』(*Love's Labor*), 김희강·나상원 옮 김, 박영사, 2016.
- Gerda Lerner, 『왜 여성사인가』(Why History Matters), 강정하 옮김, 푸른역사, 2006.
- Maurice Blanchot, 『문학의 공간』(*L'espace litteraire*), 이달승 역, 그린 비, 2010.
- Rosemarie Putnam Tong·Tina Fernandes Botts,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Feminist Thought), 김동진 옮김, 학이시습, 2019.
- Sigmund Freud,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프로이트 전집 7), 박종대 옮김, 열린책들, 2020.
- The Care Collective, 『돌봄 선언』(*The Care Manifesto*), 정소영 옮김, 니케북스, 2021.

Abstract

A Study on the Mother-Daughter Realationships in Park Wansuh's Novels

YUN Min He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plored the complex web of emotions that emerge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 that dominate Park Wansuh's novels and form the mainstay these narratives. To do this, the mother-daughter narrative was positioned at the center of the literary arguments that have thus far shaped the discourse around Park's novels including Korean War and testimonial narratives, narratives of middle-class women's survival tactics, events that became the catalyst for women's liberation, and the literary representations of old age and aging.

As an effect of the Korean War of 1950, the South Korean family structure underwent massive change with the decrease in household size. I have argued that it was during this time that mothers and daughters were compelled to adopt what I call

'maneuvering' as a survival tactic. I use maneuvering to shed light on the literary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mother-daughter and the unique emotions that bonded Furthermore, I have contrasted the different sources of life that mothers and daughters in Park's novels depended on. I have shown how mothers in Park's work often fall into deep despair after losing their sons to war, and thereby also forfeit their will to live. In stark contrast to this, the daughters draw their will to live from their own decision to cherish their lives and a form of self-love. Previous discourse has not delved into these aspects of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and it is these very gaps that I fill tried to through my thesis. Scholars disproportionately fixated on the genders of the mothers and daughters and have long since argued that daughters are the only characters in Park's novels who have acknowledged the mother's subjectivity as a woman, and their internal development is often triggered by their understanding of their mothers who had grown up in an era of war and industrialization. There has also been a tendency to look at the love-hat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 through a psychoanalyst lens to show that daughters are destined to hate and envy their mothers.

This thesis has mainly examined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that appears in the serialized novels and late short stories published during the period of 1980 to 1990 and discovered a new facet to the mother-daughter narratives. I scrutinized the significance of daughters leaving their mothers in the early short stories to become independent, and then returning in the later short stories to 'care' for their mothers. I have examined the way the daughter, constructed as a 'caregiver, and the bond formed between the caregiver (daughter) and the recipient (mother),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aregiver role

assumed by a wife for her husband and a daughter-in-law for her mother-in-law.

In 2.1., I examined the novels set in colonial Korea and the Korean war to look at the changes to the family structure and its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 I have shown how " Eommaui malttuk I " (Mother's Stake I), set before the Korean war, exemplifies the formation of the family around the mother. Thus, instead of focusing on the absence of the father brought on by the war that often led to the death of the male members in the family, and then on narrative of the family composed of mothers and sons, I looked at how the death of the men in the family affected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and the methods of survival they adopted. I analyzed the rest of the novels similarly to argue that the physical and mental wounds and/or death of the son became a catalyst for internalizing anxieties about survival and about strangers. Moreover, this demise also led to the decision-making power, which was indispensable to running a family fell to the women, i.e., the mothers and daughters.

In 2.2., I examined novels such as Namok (The Naked Tree), Geu manteon singaneun nuga da meogeosseulkka (Who Ate Up All the Shinga?), Mongmareun gyejeol (The Thirsty Season) and Geu sani jeongmal geogi isseosseulkka (Was that Mountain Really There?) to explore the daughters' shifting away from pining for their mothers' love to finding self-worth in their own existence. In part, this thesis was also aimed at delineating the emotional response expressed by the daughters when their mothers lost their will to live upon their sons' death. Thus, in this chapter, I looked at how Lee Kyung's selfhood in *The Naked Tree* culminates after losing her mother's love and forces because consciousness to move out of her and externalize. Moreover, I showed how the love Lee Kyung has for Ok Hee Do helps her reaffirm her subjectivity.

In 3.1., I examined the 'return' of the daughters who had left home in early short stories due to social realities, and the symbolic meaning of care they perform when they return in later short stories, to stay by their sick mothers and take care of them. The independence displayed by them contrasts with the kind asserted by sons during their puberty. While 'Closing the Door' becomes the sons' way of asserting their independence, it is 'Leaving the House' that becomes the daughters'. daughters' departure from the house also constitutes abandonment of the mother as portrayed in " Mujung " (In the Fog) and " Museoun aideul " (The Scary Children). Furthermore, since the independent daughters' return home becomes the basis on which their new subjectivity as the caregiver of their old, sickly mothers is established, I looked at how the daughters' homecoming is deeply intertwined with their role as the caregiver. I analyzed " *Eommaui malttuk II* " (Mother's Stake II), Hwangagui nabi " (The Butterfly of Hallucination), and " Gilgo jaemieomneun yeonghwaga kkeunnagal ttae " (When the Long and Boring Movie Ends) to explore the complex emotions daughters experience when they become their mothers' primary caregivers. These short stories are written in a first-person narrative with the daughter talking about her relationship with her mother and constitute the 'Daughters' Mother' narratives.

In 3.2., I dissected the bonds of caregiving that exist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 following Park's emphasis on the distortion of the care daughters provide to mothers. In the later short stories, the bond that emerges between the caregiver (daughters) and the recipient of such care (mothers),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bond that emerges between wives taking care of their

husbands of daughters-in-law taking care of their mothers. The difference being that although the role of the caregiver is often seen as falling under female purview in the way it is passed down from woman to woman, society precludes daughters from holding the title of the caregiver absolutely. I looked at " Eommaui malttuk Ⅲ " (Mother's Stake Ⅲ) to show how the mother's funeral is not led by the daughter but the eldest grandson of the mother, an act that alienates the daughter from becoming the 'owner' of the care despite performing it. Furthermore, I analyzed *The* Butterfly of Hallucination and When the Long and Boring Movie Ends to investigate the guilt the daughters experience for having usurped the role of caregiver from the eldest son of the mother's oldest brother. The internal compensation (reward) given to the daughter who takes care of the mother and the conflicts and psychological difficulties (shame) among family members are the main psychological undercurrents that characterize the bond of care in Park's works.

In conclusion, this thesis distanced itself from previous scholarship that viewed the close bond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 in Park's body of work as an obvious product of them belonging to the same gender and family. Instead, it examined the literary significance of these relationships by analyzing the multi-layered emotions that emerged from moments of conflicts and solidarity between the mothers and daughters because of them sharing and experiencing personal and familial history, and major historical events.

Keywords: Park Wansuh, Mother-Daughter Realationships,
 The Korean War, Mother-Daughter Solidarity,
 Old Age, Care

• Student Number: 2019-27053